

보보담

Outdoor & Culture Magazine BOBODAM
Volume 9, Summer 2013



太白旌善





Cover Photo © Park Jeonghoon, Kyungjae Kim

〈보보담〉2013년 여름 호(통권 9호)
Outdoor & Culture Magazine BOBODAM
Volume 9, Summer 2013

등록번호 용산바 00030
등록일자 2011년 6월 27일
ISSN 2234-1102

편집 주간: 구자열
자문 위원: 김윤수, 김화성, 안대회
제작 총괄: 안경한(경영지원본부장)
실무 담당: 손호영, 전유니, 김지은

기획·편집: 권기봉, 강시영, 오호수
디자인: 헤이즈(Hey Joe) www.hyjoe.net
사진: 박정훈, 김도형, 김도원, 김경태
통역: 함선재(프랑스어)
인쇄: 으뜸인쇄(02-2278-6387)

용지: 리브스디자인 250g (표지),
스노우화이트 100g (내지1),
백모조 100g (내지2), 미색모조 80g (내지3)

발행인: 김승동
발행일: 2013년 6월 30일
발행처: (주)LS네트웍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www.lsnetworks.com

구독 신청: 02-822-5114
기타 문의: 02-799-7095
독자 의견: bobodam@lsnetworks.com

구독 연장 신청 안내

기존 독자 분들 중 아직 2013년
구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구독 연장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별도의 연락 없이
배송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합니다.

구독 연장 신청 마감
7월 26일(토)

구독 연장 신청 방법
당사 홈페이지 '사이버홍보실' 내
보보담 메뉴에서
'구독 신청-구분-연장'을
선택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보담 답사 안내

2013년 여름 답사지는 '태백과 정선'
입니다. 1박 2일 동안 트레킹, 문화
체험 등 여름 호에 다룬 태백과 정선
곳곳을 직접 만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답사 중
퀴즈 이벤트도 진행하니 여름 호를
꼼꼼하게 읽고 오시면 유리합니다!

접수 마감
7월 26일(금)

신청 방법
〈보보담〉 이메일로 참여하실 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답사 신청은 동반 1인까지 가능합니다.
bobodam@lsnetworks.com

답사 일정
8월 9~10일(금~토), 1박 2일

기타 사항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답사 참가자들에게
메일로 개별 발송합니다.

LS Networks

〈보보담〉은 LS네트웍스에서 발행하는
멤버십 매거진으로 연 4회 발행됩니다.





Photo © Park Jeonghwan



Photo © Kyungtae Kim



Photo © Park Jeonghoon



Photo © Kyungjae Kim



Photo © Park Jeonghoon



Photo © Kyoungae Kim



Photo © Park Jeong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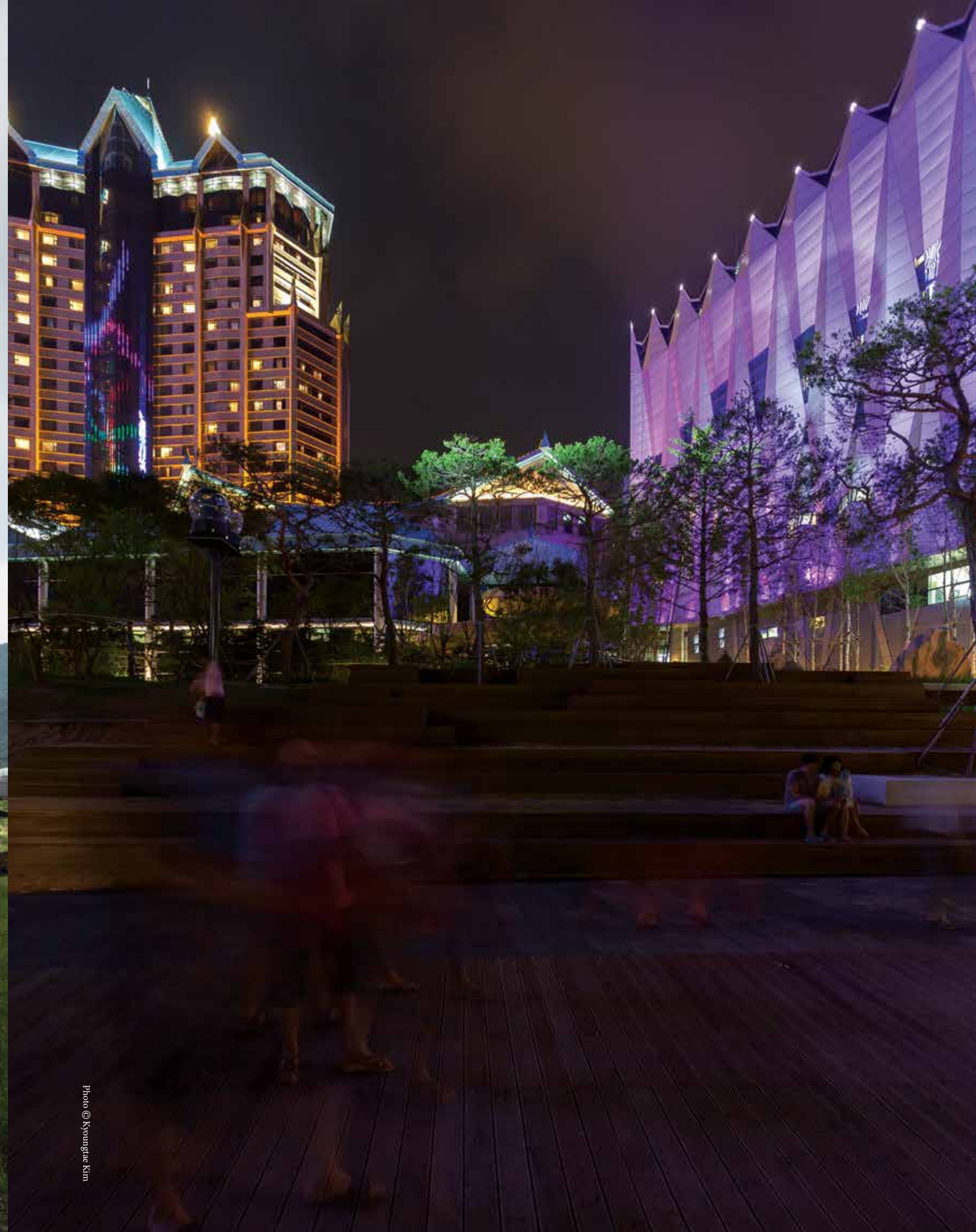


Photo © Kyoungae Kim



Photo © Park Jeonghoon



Photo © Kyoungae Kim



Photo © Park Jeonghoon

Outdoor & Culture Magazine
BOBODAM
Volume 9, Summer 2013



026



048



106

Direction	길은 걸어야 길입니다 글:정진홍	016
Column	그 많던 ‘싸나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글:김화성	228
Site 1	태백太白 정선旌善	
Walking with a Shot	태백과 정선을 다녀간 네 가지 시선 글:정성일	022
Meeting People	토박이 인터뷰 글:김경 · 사진:김도원	026
Jeongsun Arirang	1 흘러보내고 전디기에 좋은 세 음절, 아라리... 글:김우성	040
	2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 정선아리랑 가사 24수 편집부	045
	3 그리고 계속될 진용선의아리랑 변주 글:임윤혁 · 사진:박정훈	048
Trekking	검은 먼지 폴폴 석탄 운반길, 반공중에 푸른 하늘길로 두둥실 걸렸네 글:김화성 · 사진:김도형	065
Way Back in the 18 th Century	조선말 정선군수 오형묵, 그 일기에 그려진 정선 풍경 글:안대회	074
Village	남기고, 가져갈 것 없는 저 무욕의 땅 글:임윤혁 · 사진:박정훈	080
Going to Market	편집되지 않은 일상, 임계장과 통리장 글:최성우 · 사진:박정훈	092
Train	103.8킬로미터 씬포 같은 기찻길, 태백선에 오르다 글:조성면 · 사진:김경태	106

스스로 빛을 내는 자연, 그리고 사람

초여름, 휴양객들이 밀려들기 직전에 코르시카를 찾았습니다. 프랑스이되 프랑스가 아닌 땅. 삼색기와 코르시카 깃발은 곳곳에서 함께 펄럭였습니다. ‘지중해’라는 단어가 풍기는 인상에 붙잡히지만 않는다면, 코르시카는 아주 풍부한 표정을 드러냅니다. 오래된 코르시카인들의 마을은 주로 바다로 들어오는 적을 감시하기에 좋은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오르내리며 그 마을들을 찾아가는 동안, 눈 덮인 산악과 깎아지른 기암괴석, 지천에 널린 들꽃과 올리브숲, 혹은 보랏빛으로 내려앉는 석양이나 시야 가득 들어오는 별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든 혹은 범접하기 힘든 거친 기운을 뿜어서든, 코르시카인들은 다른 무엇이 아닌 그 자연에서 마음의 ‘사치와 고요, 그리고 쾌락’을 얻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한국은 때 이른 여름이었습니다. 태백과 정선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 지명에는 ‘검은 산 검은 하늘’이나 ‘오지 마을’이 아니라 레저 관광도시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립니다만, 이미 “요즘은 30도만 넘으면 폭염이라 난린데 탄광은 기본 35~36도, 습도 70퍼센트”라는 말을 들은 터였습니다. 발길은 반짝반짝 새롭게 눈길을 끄는 풍경보단 작지만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오래된 풍경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길에서 아라리를 만났고, 잠시 내리는 승객들을 위해 역무원들이 손수 그네를 만들어둔 간이역을 지났습니다. 숲에서 나는 들꽃 향을 하나하나 구별할 줄 아는 생태해설가와 농촌이나 어촌처럼 광산촌에도 어엿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탄전전문가도 만났습니다. 그제야 태백과 정선이 조금 만져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낮선 곳에 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곳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린다고 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친숙한 지점을 찾은 다음, 그곳을 중심으로 지금 서 있는 곳을 확인하고 그 외에 것들은 생략한 채 어떤 이미지를 따라 자신만의 지도를 완성합니다. 이번 호는 그렇게 그려진, 태백과 정선, 그리고 코르시카에 대한 〈보보담〉의 여름 지도입니다. 편집부 ■



176



184



196



204

Reading the City	1	검은 산 아래 팔도공화국	113
		글:정연수 · 사진:김제영	
	2	30년 전, 정선에서 자란 아이들	137
		편집부	
	3	‘카지노 흥’의 취재 수첩	146
		글:홍준봉 · 일러스트:김태우	
Site 2		코르시카 Corsica	
Walking with a Shot		눈을 감고 이름을 부른 다음 상상한다	170
		글:정성일	
Meeting People		풍요롭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땅, 코르시카	174
		글:권기봉 · 사진:박정훈	
	1	되살아난 전통의 불꽃, 코르시카 칼	176
	2	염소 농장의 아침 풍경	180
	3	정통 코르시카 치즈란 이런 맛	182
	4	민낯의 코르시카를 만나고 싶다면, 승마	184
	5	바닷가 버려진 나무로 할 수 있는 근사한 일	186
	6	식재료에 담긴 코르시카의 역사	194
	7	올리브 숲에서 태어난 음악	196
	8	달콤 쌉싸름한 코르시카 대표주, 캡 코스	198
Trekking	1	13일 간의 GR 20 트레킹 종주기	204
		글 · 사진:권기봉	
	2	GR 20 트레킹 전 준비할 것들	206

길은 걸어야 길입니다

길은 걸어야 길입니다. 그 위를 걷지 않으면 길은 길이되 길이 아닙니다.
길은 있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길’은 길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그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따라 걷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소리 되어 ‘들리는 길’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컫는 아름다운 길도 있고,
그런 험한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도 내가 거기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길의 아름다움은 물론 그 길도 없습니다. 험준한 길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도 위, 기다림으로 있는 길

지도에는 무수한 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 따라 길게 뻗은 길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그 강을 가로질러 산등성이를
넘는 길도 우리가 쫓아 마침내 그 길이 어느 마을에 닿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는 우리에게 참 친절하게 길이 있음을 환히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지도의 길은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길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런 길은 실은 없습니다. 있어도 나를 ‘기다리는 길’이거나
혹 내가 언젠가 ‘가야겠는 길’이어서, 그래서 아직 거기 이르지
않았거나 미처 그 길을 걸으리라 다짐을 하지 못한 길이어서, 내게는
채 없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글: 정진홍
종교학자이자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한국종교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서울대 명예교수,
울산대 석좌교수,
이화학술원
석좌교수이다.
《종교학개론》,
《종교문화의 이해》,
《종교문화의 인식과
해석》 등의 책을
펴냈다.

하지만 그런 길을 마냥 없는 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머뭇거리집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뉘지 내 삶을 온전히 담지 못한 듯 아쉬움이 서리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밟아보지 못한 지도 위의 길이 ‘기다리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아무래도 ‘있다’고 해야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걷지 않았지만 보이는 길이나 그러한 들리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인다고 반드시 그 길에 들어서야 한다거나 들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당위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아예
그 길 자체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지만, 이와 달리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지도 위의 낯선 길들은 ‘기다림’으로 있는 길이어서 ‘아직’
그 길 걷기를 의도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도 곧 갈 수 있는, 아니면 꼭 가야
하는 어떤 필연적인 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도 위, 내가 걸어온 길

그런데 지도에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고 내 옆에서
말해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 위에는 내가 ‘지나갔던 또는 지나온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이미 지난 길이라 해서 없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고스란히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폭이 보입니다. 그 길의 길이를 훤히 가늠합니다. 길가의 나무와
거기 일던 바람도 그대로 내 안에 있습니다. 길바닥 위에서 이글거리던
햇볕도, 길을 내려 뒹던 밤의 어둠도, 스친 길가에 지천으로 피어 있던 들풀의
꽃향기도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 다. 세월 따라 산 흔적이 부끄러워 서둘러
감추듯 말고 또 말았던 내 걸었던 긴 길이 지도 위에서 굽이굽이 퍼지는 것을
하릴없이 바라봅니다. 그렇게 멍석 퍼지듯 열리는 삶을 길은 수많은
모퉁이를 꺾고 또 돌면서 아무 가리는 것 없이 책장 넘기듯 보여줍니다.
에이듯 아프면서도 나는 지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인 우리는 강 위에 놓인 철교가 바라보이는 강변 옛 성의 가파른 절벽을 따라 토치카를 뺏습니다. 유월이었습니다. 우거진 나무 그늘이었는데도 따가운 햇볕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절터 우물까지 다녀오기에는 너무 멀고 힘들었습니다. 강물에 이르기에는 절벽이 너무 가팔랐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포성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모두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식구들 끼리끼리 모두들 피난을 갔습니다. 우리는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조용히 마을을 빠져 나왔습니다. 동네 뒤편 들판을 지나 옷샘 길을 따라 긴 산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오르내림이 되풀이되는 길은 무척 길고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용이 하늘로 올랐다는 소(沼)도 지났습니다. 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골짜기를 빠져나오자 초가집 두어 채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날이 어두웠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떠난 길이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피나리붓집 몇 덩어리에 의지해 아홉 식구가 향방(向方)도 없고 입에 풀칠할 대책도 없으면서 그 길을 이어 걷는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고향에서 죽어야지!’ 그렇게 우리는 그 밤을 거슬러 다시 그 길을 되짚어 걸어 처음 떠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도는 내 속에서 그 길을 걷던 내 걸음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돌아와 이제는 주검도 남겨놓지 못하고 떠나신 어른의 걸음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른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대낮뜰이란다. ‘한낮의 밭’이라는 말이지. 본래 네 할아버지 소유의 밭이었는데 글 읽으시느라 살림을 보살피시지 않아 다 남의 손에 넘어갔지...”

“한여름에도 이 옷샘에서 친구들과하고 등물을 하면 더위를 몰랐지. 그 친구들 다 이 전쟁을 잘 견뎌야 할 텐데...”

“용은 본래 없는 거야. 용이 되고 싶은 사람한테만 있는 거야. 용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미 용인 거지. 그런데 있다 해도 이런 어마어마한 골짜기에서 하늘로 솟는 용은 진짜가 아냐! 개천에서 나는 용이 진짜란다...”

지나온 길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다가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그 길이 서리서리 스스로 자기의 길을 땀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만납니다. 그때 더위한테도 말을 겁니다. 갈증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항변도 합니다. 나는 언덕진 길에게도 불평을 합니다. 왜 그리 부서지는 바윗길이었느냐고, 그리고 조금만 덜 경사가 졌어도 좋았지 않았겠느냐고. 그러다가 밤의 길에다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둠 탓이었는데 그때는 길 탓만 했다는 것을 이제는 스스로럼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틈에 어른의 손을 잡습니다. 크고 따듯한 손이 내 작고 찬 손을 잡습니다. 저는 다시는 놓치지 않을 양 손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도 책을 읽느라 집안 살림 엉망이에요.
용서해주세요... 친구들 다 잘 견디셨어요.
당신만 빼고는요... 용이란 상상의 동물인 것
알아요. 그런데 있어요. 그리고 용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개천에서 나세요. 저도
그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도
용이 있다고,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걸어온 길과 기다리는 길로 이뤄진 한 장의 지도

견지 않으면 길이 아닙니다. 보이는 길도, 들리는 길도 그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길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걸어온 길’은 없어도 있습니다.
언제나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그저 있지 않습니다. 이미
지났지만 ‘살아 있는 길’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삶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지도’를 바라보면요.

그리고 보니 이제는 ‘가다리는 길’의 현실성도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걸어온 길’과 ‘가다리는 길’이 이어져 한 데 한 장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길을 아직 견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길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 이어짐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침내 나는 ‘살아 있는 길’ 위에
계신 그 어른을 틀림없이 만나 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때 그 길에서는 다시
헤어짐 없는 ‘새 길’을 함께 천천히, 그러나 뚜벅뚜벅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낮뜰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옷샘 이야기, 용의 이야기, 거기에 붙여 우리가
헤어져 있던 세월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

太
白

旌
善

태백과 정선을 다녀간

네가지 시선

풍경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잠시라도 시선을
돌리는 것. 정성일은
그런 것이 여행의
참맛이라 이야기 한다.
때로 쓴맛, 하지만
오랫동안 남아서
그 맛을 음미하게
만들어줄 바로 그런
의미의 맛.

글 : 정성일
영화평론가이자 감독.
1995년 영화 탄생
100주년이 되던 해에 태어나
'90년대 시네필 문화'를
낳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잡지 <키노>의 편집장으로
한국 영화 비평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2009년
첫 영화 <카페 느와르>로
감독에 데뷔했고, 현재
두 번째 작품을 편집 중이다.
저서로 «필사의 탐독»,
«언젠가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가 있다.

태백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막 서른 살이 넘었고, 대학교 시절 선배가 두 번째
영화를 거기서 찍는다고 해서 취재 때문에 사진기자와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그 영화는 <그들도 우리처럼>이었고,
그 영화를 연출한 감독은 박광수였습니다. 아직 태백에 많은
탄광촌이 남아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으로 여행을 가진 않았습니다. 엄동설한 한겨울에
이 영화는 그곳에 머물면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종종 사라지는 길 안내 표지판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 수 없는
고갯길과 “그저 저기 고개만 넘으면 거기”라는 동네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물어 물어 촬영지에 도착했을 때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아침에 비로소 그곳 풍경을 처음 본 저에게
태백의 첫인상은 기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랄까, 여기는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가 그린 입체적인 풍경화 안으로
내가 걸어 들어온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온통 눈 덮인
하얀 색 바탕 아래로 시키면 바위들이 숨어 있고, 그 사이로
햇살에 막 녹아내리는 물이 온통 검은 색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사진기자의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그냥
한 마디 했습니다. “세상이 흑백이네요.”

박광수의 태백, 돌아가기 위해 떠나는

<그들도 우리처럼>에는 문성근 씨가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친
운동권 대학생으로, 그리고 박중훈 씨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연탄공장 사장의 성질 나쁜 외아들로 나옵니다. 심혜진 씨는
이 동네 다방에서 티켓을 팔며 그저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낯선
남자를 보고 사랑에 빠져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운동권
대학생은 자기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워 그 사랑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자 탄광촌에서는 파업의 기운이 무르익기
시작하고, 이 동네 형사는 이 낯선 남자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정치의 계절이 막 지나가고 있던 1990년의 이야기입니다.
한낮에도 바람은 몹시 차가웠고, 촬영현장에서 코가 조금
답답해서 풀고 나면 휴지는 금방 시커멓게 젖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촬영을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풍경은 스산했고
산속에서는 금방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광수 선배가
멀리서 손님이 왔다고 스테프들과 함께 술 마시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술을 마시다 말고 물어보았습니다.
“선배는 여기서 무얼 보았어요?” 약간 생각하더니 혼잣말처럼
대답했습니다.
“저승길. 여기 오면 웬지 산다는 마지막 절벽에 온 기분이
들어. 여긴 위로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거 없어. 연탄가루
흙먼지들뿐이잖아, 그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그래도 여기서도
살아야 하잖아,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지, 세상 바깥으로.”
저는 그 말을 돌아오는 길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생각한 사람은 저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의 연출부를 했던 조용한 철학과 졸업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거의 말도 없고,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그저 미소를 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영화 현장에 오래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4년 후에 자기 첫 번째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찍었습니다. 허진호는 그리고 다시 4년 후에 두 번째 영화 〈봄날은 간다〉를 위해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이 영화는 강릉과 삼척, 그리고 정선 일대를 돌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사운드 엔지니어인 상우(유지태)는 지방 라디오 방송국 피디인 은수(이영애)를 만나서 ‘자연의 소리’ 방송을 위해 사운드 채집을 하러 떠납니다. 물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영화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은수는 자신이 이혼녀이며 다시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우는 둘 사이에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은수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상우는 이 사랑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봄날이 지나갑니다. 허진호는 이 영화에서 사운드 채집하는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마음속 사랑의 진동판을 건드릴 것이며, 그 울림만이 그들의 사랑의 시작을 알릴 것이며, 그 소리의 깊이가 그들이 헤어질 때 그만큼 아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허진호는 자신이 〈그들도 우리처럼〉을 찍기 위해서 헌팅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만난 정선의 송천과 골천이 마주치는 아우라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남면 유평 2리에 조용하게 자리 잡은 느릅나무 보호수가 생각났습니다. 허진호는 〈봄날은 간다〉의 두 배우를 고르면서 그들에게서 나무 같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애와 유지태는 영화 속에서 나무처럼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 그렇게 휘파람 소리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무처럼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마음을 아파하고 그렇게 자기의 봄을 맞이한 다음 다시 떠나보냅니다. 허진호에게 정선은 봄이 오는 장소이며, 그렇게 봄이 떠나가는 마을입니다. 만일 당신이 〈봄날이 간다〉를 본 다음 이 이야기는 마치 내 사랑 같아,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사람은 그러면 나무일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봄날은 간다〉의 연출부 중 한 명은 차라리 겨울에 도착한 다음 거기서 봄을 기다리면 안 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영화가 끝난 다음 자기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강원도로 재빨리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선을 둘러본 다음 태백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류장하의 〈꽃피는 봄이 오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허진호와 반대의 방법을 취했습니다. 허진호는 시나리오를 모두 쓴 다음에 장소를 찾았지만 류장하는 태백에 머물면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가 유난히도 그 장소와 친밀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그가 그 장소에서 매일 아침 밥을 먹고 낮에 이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그런 다음 어둠이 내리면 이곳 어딘가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잠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향악단에서 트럼펫을 불기 원했던 현우(최민식)는 아무 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도 접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싫어서, 하지만 무언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강원도 도계중학교의 관악부 임시교사로 부임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전국경연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관악부는 이제 해산해야만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읽으면 당신께서는 자,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난 잘 알아,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안심하고 이 이야기를 가슴 따뜻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동네 약사인 수연이 현우에게 조금씩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봄은 오고 가고 하는 거죠, 선생님처럼.” 아마도 이 말은 류장하가 허진호의 〈봄날은 간다〉에서 나왔던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는 대사를 맞받아치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에는 누구라도 가슴 따뜻하게 만들 만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공부에 별 도움도 안 되는 관악부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이 못마땅하기만 합니다. 그 아버지들이 탄광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그들의 자식들이 선생님의 지휘에 맞추어 에드워드 엘가(Edward Elgar)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 훌륭한 아버지들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선생님의 뜨거운 지휘봉 아래,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인, 연주를 합니다. 저는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이처럼 멋지게 연주된 영화 장면을 달리 알지 못합니다.



박광현의 정선, 꺼안고 사과해야 할

그런 다음 저는 다시 정선으로 돌아올 생각입니다. 〈웰컴 투 동막골〉은 정선에서 대부분 촬영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기가 정선이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진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무대는 한국전쟁입니다. 하지만 동막골은 전쟁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산골이라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터에서 길을 잃은 육군이 그만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하필이면 북한군도 똑같은 처지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군 비행기가 추락해서 스미스 씨도 여기에 오게 됩니다. 이들은 여기서 마주치자 바로 서로 총칼을 겨누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들이 서로 놀이를 하고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북한군과 육군이 서로 몰려오는 줄음을 참아가면서 눈을 부릅뜨고 총을 든 채 마주보고 있을 때 그걸 지켜보던 이 동네 소녀(강혜정)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손에 든 걸 그냥 붙잡고만 있고 거기 매달려 있는 핀을 뽑지 못하는 것일까. 그녀는 손에 든 채 마주하던 수류탄 핀을 보다 못해 답답해서 그들 대신 뽑아버립니다. 깜짝 놀란 양쪽은 서로 그걸 어찌 해야 할지 모른 채 허둥거리다가 옥수수 창고로 집어 던지고, 그만 거기서 터져버린 수류탄은 창고 속의 옥수수를 팝콘으로 만들어 하늘에서 뿌려줍니다. 말하자면 이건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이 영화의 많은 장면들은 마치 애니메이션을 연상케 합니다. 박광현 감독도 이 영화를 만들면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야기가 지나치게 솜사탕처럼 부드러워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때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의 낭만주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우산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부대들이 강원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안가에 늘어서 있는 철조망들. 당신이 놀러 가는 휴일에도 길목에서 수 없이 마주치는 군부대 트럭들. 주말이면 면회를 가기 위해 늘어선 부모님의 차량들, 그리고 애인이 탄 시외버스. 그저 지리학적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전쟁은 강원도에 숨어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영화가 그 땅을 위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웰컴 투 동막골〉은 당신(뿐 만)이 아니라 그 땅을 꺼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영화입니다.

당신께서 태백을 거쳐 정선으로 여행을 가신다면 그저 풍경뿐만이 아니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저 잠시라도 좋으니 눈길을 돌려주십시오. 아마도 그것이 여행의 참맛일 것입니다. 때로 쓴맛, 하지만 당신에게 오랫동안 남아서 그 맛을 음미하게 만들어줄 바로 그런 의미의 맛. ■



1936

세상과 동떨어진 첩첩산중 오지이거나 사람도 집도 거리도 온통 새까맣던 탄광촌 시절에 정선이나 태백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만났다. 개중에는 토박이는 아니지만 타향을 고향인 듯 오랜 세월 사랑하며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관광업을 빼면 먹고살 것이라고는 석탄이나 옥수수, 감자, 곤드레나물이 거의 전부인 곳에서 ‘인간이 보석이구나’ 하는 생각을 절로 들게 하는 이들이다.



1960

인터뷰

토박이



1940



1942

글 : 김정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트렌드를 만드는 패션지 에디터로 17년을 살았다. 그 특별한 경험과 정신없이 바쁘고 불안한 도시를 떠나 강원도 평창에서 화가 남편과 소박하게 살고 있다. 지금의 삶에서 얻은 통찰로 얼마 전 «나는 항상 패배자에게 끌린다»라는 에세이집을 냈다. 그 밖에 저서로 칼럼집 «뷰티풀 몬스터», 인터뷰집 «김훈은 김훈이고 싸이는 싸이다», 여행에세이 «셰익스피어 배케이션»이 있다.

사진 : 김도원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프랑스에서 조형예술과 사진을 공부했다. 세계적인 사진가이자 아트디렉터 장 폴 구드(Jean Paul Goude)의 어시스턴트로 3년간 일했다. 귀국 후 «하퍼스 바자», «마리 클레르», «엘르» 등 여러 패션지와 일하고 있다.



1965



1962



전옥매

1936

첩첩산중 오지로 유명했던 이곳 정선의 아우라지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관광버스 대절해서 오는 정선의 대표적인 여행지가 된 건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 때문이기도 하고 이 특별한 할머니 때문이기도 하다. “유홍준 교수님이 영남대 계실 당시니까 1992년인가 1993년인가 그래요. 70명의 답사팀을 모시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아우라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때였어요. 우리 집에 처음 온 관광버스라 어리둥절 했지요. 볼 거 없는 이 산중에 와준 답사팀이 하도 고마워서 성심성의껏 모셨죠. 제가 아우라지 강가에서 주운 돌 이야기도 해드리고 정선아리랑도 불려드리고.” 훗날 유홍준은 이곳 옥산장 여관 주인 전옥매 할머니에 대해 이렇게 적는다.

‘옥산장 주인아주머니는 여느 여관집 주인과 다르다. 깨끗하고 곱상한 얼굴에 맑은 웃음은 장모님 사랑 같은 따뜻한 온정이 흠뻑 배어 있는데, 손님을 맞는 말씨에는 고마움의 뜻을 엿어 무엇 하나 귀찮다는 티가 없다. (중략) 그분의 인생드라마는 그저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 단편 단편에는 상징과 알레고리가 스며 있어서 났을 잃고 듣고 있는 청중들은 그모두를 자기 인생에 비추어보면서 가슴 찢리고 부끄러워하고 용기를 갖게 되며 뉘우치게도 되는 문학과 도덕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정말 그랬다. 여관 뒤편에 마련된 ‘돌과 이야기’라는 전시실에 앉아 그녀가 지금껏 모아온 수석과 인생 이야기를 들려줄 때 나는 무슨 대단한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삼은 영화라도 보고 있는 양 감탄하다 울다 웃다 했다. “이 돌은 한국 지도고, 이진 일본 지도, 일십 마음심, 물오리 세마리가 봉봉, 이진 코끼리입니다. 아빠 코끼리는 코를 눕혔고 엄마 코끼리는 코를 들고, 여인이 치마를 품고 앉았고요. 관세음보살님, 경주의 반가사유상 같죠? 다 자연 그대로예요.” 정말 놀라웠다. 수석 수집가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다. 그걸 발견한 이의 눈이 참 보배롭다 감탄하면서도, 누가 돌에 저런 사랑스러운 그림들을 그렸을까 싶을 만큼 신비롭게 그럴 듯했다.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암탉을 줬잖아요? 그럼 다음 날 장닭이 와요. 신기하죠? 장닭이 오고 나면 빼약빼약 병아리가 와요.” 돌이 자기 짝의 돌을 부르는 걸까? ‘현실, 그 가슴이 뛰는 마법’이라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 그림 솜씨가 여느 위대한 화가 못지 않게 보이는 그 돌들을 그녀는 테마 별로 모았다. 예수님, 마리아, 부처님 등 종교를 테마로 한 수석들이 있는가 하면, 1에서 10까지의 숫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한 무늬석이 있고, 12간지 동물은 무려 4세트나 된다.

전국 곳곳은 물론 전 세계를 돌며 수석을 모으고 또 많이 보아온 한 손님은 ‘이진 정선의 보물을 넘어 한국의 보물이고 세계의 보물이니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한다’ 우겼다며 그녀는 웃는다. 워낙 겸손한 분이지만 돌에 관해서 만큼은 조금도 겸손하고 싶지 않은, 조용한 자긍심이 느껴지는 그런 웃음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다. 아마도 이런 분을 곁에서 오래 지켜본 누군가 깨달은 진실이 아닐까 싶다. “시어머니가 저 결혼할 때 앞을 못 보셨어요. 남편 또한 불구인지라 처음엔 시어머니 병환을 숨겼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앞에 두고 거짓 없이 말해달라, 정말 당신 어머니가 앞을 못 보나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물어본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잘 하면 되지요, 하며 그 사람을 위로했어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다. 나중에 중풍까지 얻은 눈먼 시어머니를 한 방에 모시고 살며 삼남매를 키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몇 번인가 눈물을 흘렸고 그러다 또 웃었다. 할머니는 놀랍게도 그 와중에 함께 웃을 수 있는 포인트를 알았다.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강박해도 인간은 문득문득 웃을 수 있으며, 또 그 웃음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공유하며 일종의 인류애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

유재철

1960

이런 시가 있다.

‘심하게 앓아 누었다더니?/ 난 자네가
진폐증에 걸려/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줄 알았네/ 그게 아니었어/
대견스럽구먼 / 그래/ 비록 자네 몸뚱아리
속에는 탄광갱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겠지만/ 쿨럭거리지 않고/ 용케도 몸
추스르고 일어나 앉았구먼/ 고맙네 그러/
보게나/ 자네의 또다른 모습을/
저기 못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어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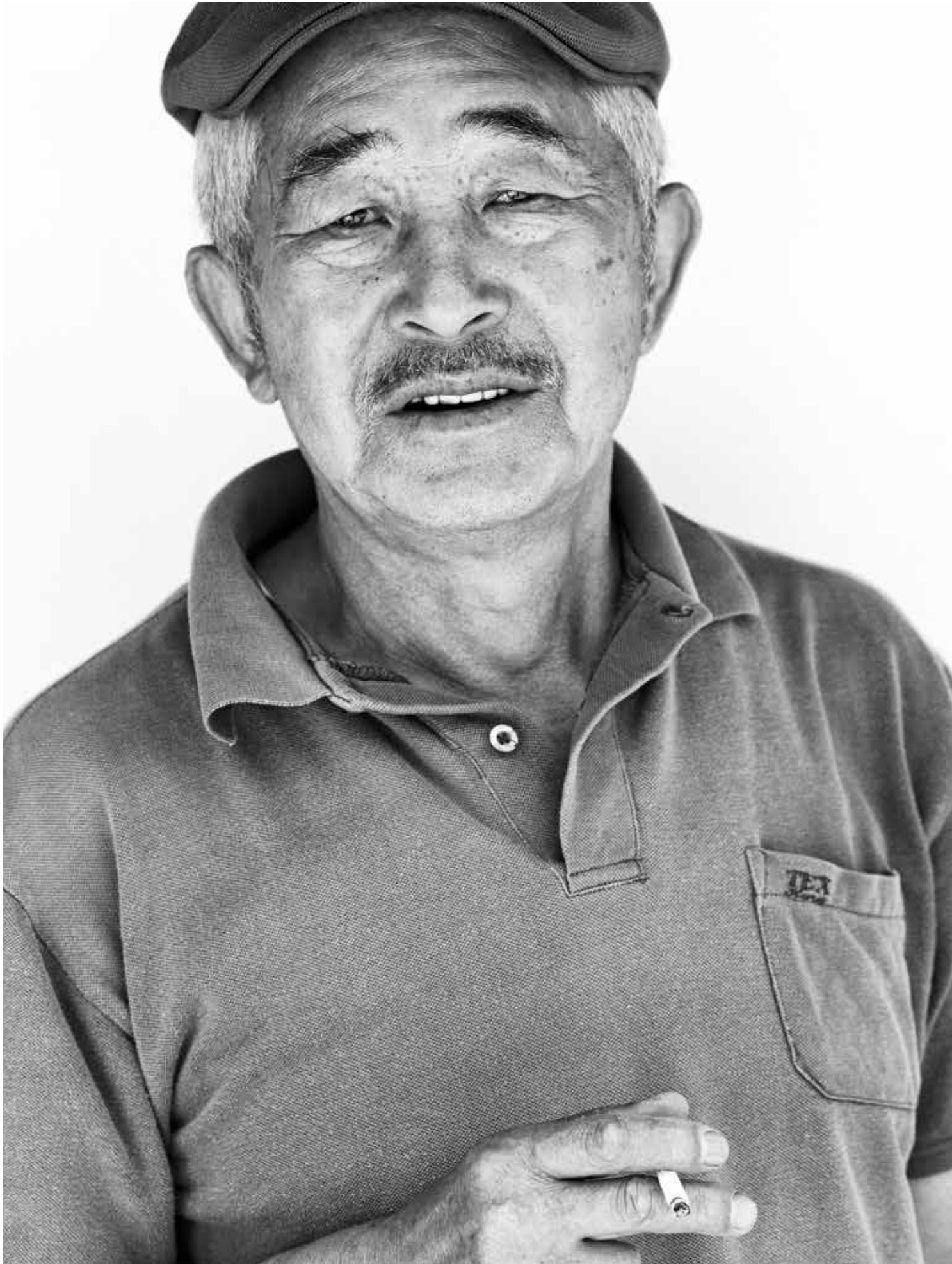
폐광의 막막함 속에서 사시사철 아름다운
함백산을 위안 삼아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난 고한 사람들을 위해
전재욱 시인이 쓴〈겨울 함백산〉이라는
시다. 유재철 씨는 이 시가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는 책자 «아름다운
함백산 야생화»의 발행인이다.
고한 함백산 야생화 축제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그에게 어린 시절에 대해 물었다.
“지나가는데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던
한때 가장 잘나가던 광산 지대였죠.
덕분에 동네 전체가 시커멓던.
장화 없이는 못 다니는 동네였어요.
하지만 폐광되면서 살길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한때 인구 4만이던 동네가 5천 명으로
줄 정도로. 남은 사람들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야생화 축제도 그 일환으로
시작된 거죠.”

올해로 8회를 맞은 함백산 야생화 축제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열린다. 사시사철
피지만 그 시기에 가장 많은 야생화가
핀다며 유재철 씨는 말을 이었다.
“무려 3천여 종의 자랍니다. 우리
주민들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희귀한
야생화들이 있는 줄 몰랐죠. 시꺼먼 광산
지역이라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10여 년 전 우리 관에 있던 김수복
국장이, 지금은 서울에서 문화관광부
과장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여기에 귀한
야생화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해서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2~3년 조사를 해서
지금의 야생화 축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좋아하는 야생화가
있냐고 물으니 겨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장 먼저 피는 복수초를 말한다.
“간혹 눈발을 뚝고, 심지어 얼음 사이에
핀 복수초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혹한을 견디고 피어나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늘 감동을 받곤 합니다. 뭐 어디
복수초뿐이겠습니까? 바람으로 피어난
바람꽃, 고드름을 먹고 자란 돌양지꽃,
저 홀로 맵시를 뽐내는 앵초,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는 달맞이꽃, 온 기슭을
하얗게 수놓는 구릿대, 쪽부쟁이,
구절초, 물봉선, 동자꽃 모두가 아프고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함백산의 자랑이죠.”

고한에서 태어나 자라고, 먹고살기 위해
펼 펼 끊는 20대 청춘을 광부로 살았던
그는 누구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잘 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는
와중에도 관의 번영회장이며 야생화 축제
위원장 같은 번거로운 역할까지 겸직하고
있다. 그런 그의 고한 자랑이 이어진다.
“한여름이면 들꽃 천지가 되는 만항재는
해발 1,330미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의 화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한여름에도 시원합니다. 좀 춥다
싶을 정도로. 당연히 모기도 없고요.”

작년 함백산 야생화 축제에는 2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한다. 올해는 폐광을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예술공간 ‘삼탄아트마인’이
문을 열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고한 주민들은 모두 기대하고
있었다. 어디 여름뿐이라. 한겨울 함백산
눈꽃을 보기 위해 주말이면 버스 400대가
몰려 주변 교통이 마비될 정도라고 한다.
“꼭 무슨 축제 때가 아니더라도 정선은
사시사철 아름답고 넉넉한 곳입니다.
정선 오일장도 있고 스카이워크에
레일바이크 등 즐길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고한은 함백산 야생화에 겨울 눈꽃에,
하이원 리조트, 정암사, 삼탄아트마인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으니
1박 2일 이상 느긋하게 여행하시면
분명 더 흡족하게 여기고 가실 거라
믿습니다. 여하튼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한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소박한 공손함이 담긴 그의 마지막
말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H**





안정의

1940

시대 감각이 한 10년이나 20년쯤 앞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부동산 투자든 투기든 했다면 떼부자가 됐을 사람들이다. 돈보다는 인형과 연극을 좋아하여 한국 무대 인형극의 창시자가 된 안정의 할아버지도 그런 안목의 소유자다. “서울사범학교를 나왔는데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 만나면 다들 걱정했어요. 친구들은 대개 학교 교사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그랬죠. 인형극 해서 밥 먹니? 그럼 제가 ‘야! 다음에 늙으면 니들은 파고다공원 가지만 난 파고다공원 안 가’ 그랬는데 진짜로 그리 됐어요. 친구가 학교 교장 퇴임하는 자리였는데 ‘야, 나 정말 파고다공원 가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 막막해서 수위를 하려고 했더니 선생들이 말린대. 퇴임 교장이 그러면 학교면 안 서는 일이라고.” 그에 비하면 안정의 할아버지의 노년은 아직도 가슴 설레는 날이 많고 심지어 우아하기까지 하다.

“27년 전에는 정선이 어디 붙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서울인형극회를 만들어 손수 깎은 인형 배우들과 함께 공연 차 전국을 누볐던 그다. 서울인형극제며 춘천인형극제며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인형극제가 없을 정도로 일 벌이는 데는 선수였다. 그런 선수가 15년 전 첩첩산중 정선에 정착했다.

“산간 오지 어린이들도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정선문화원장의 청으로 1986년부터 1년에 한두 번 찾아와 공연을 했는데 그게 인연이 된 거죠. 그로부터 10년쯤 지나서 정선군청에서 폐교를 무상으로 임대해 해줄 테니 상설 인형극장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물어왔어요. 마침 그 동안 모은 인형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안타까웠던 터여서 쾌히 승낙을 하게 됐지요.” 그리하여 서울 생활을 훌훌 털고 정선군 북평면에 있는 옛 나전분교를 개조해 상설인형박물관 ‘아라리 인형의 집’을 만들고 그곳을 지키는 수장으로 살고 있다. 서울 생활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답했다. “전혀요. 미래를 봤으니까. 1천만 인구가 있는 서울에서도 잘 안 되는 인형극이 정선에서 되겠냐고 서울의 지인들이 저를 붙들었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주6일 근무였지만 곧 미국처럼 주5일 근무로 바뀔 것이고 집집마다 자동차를 가지고 가족 여행을 하는 시대가 온다고 예상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애매하지만, 실은 사려 깊은 진실이 담긴 답을 했다. “어떨 땐 제 예상만큼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판단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울 밖에 없어요. 문화라는 게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가 1965년에 올린 첫 인형극 〈꼭두각시〉를 위해 만든 투박한 막대 인형부터 멕시코, 헝가리, 영국, 프랑스, 덴마크, 불가리아, 티베트, 태국, 베트남, 러시아 등 각국에서 만들어져 무대에 올랐던 2백여 점의 인형들을 한 자리에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라리 인형의 집’은 거의 세계 수준의 박물관이다. 형식 면에서는 아쉬웠지만 내용 면에서는 확실히 그렇다. 만약이 인형들을 스위스 바젤이나 이탈리아 피렌체 문화관광부에 갖다 준다면, 모르긴해도 아마 엄청난 보물로 대접 받으며 미니멀하지만 굉장히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공간에 모셔질 컬렉션이다. 정작 본인은 손사래를 치며 “이 정도도 만족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없지 않은지 이런 말을 했다. “80평 전시장이 작아서 5분에 2밖에 전시를 못 하고 나머지는 창고에 쌓여 있어요. 아쉬운 대로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전시품을 바꾸긴 하는데 좀더 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죠.”

그나저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일흔넷에도 여전히 손수 목각 인형을 만드는 그가 얼마 전부터는 정선아리랑을 테마로 한 새로운 인형극을 만들어 선보이고 있었다. “아리랑 하는 노인네들 하고 같이 준비한 무대인데 평균 나이가 예순 임니다. 금년 3월부터 매일 연습해서 5월 25일부터 정선 오일장에서 선보이고 있어요. 모처럼 설레죠.” 참 멋진 일이다. 일흔넷나이에도 가슴 설레는 일이 있다는 거. ■

김부래

1942

어떤 이는 그를 ‘태백의 보물’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태백의 돈키호테’라고도 부른다. 숲 해설가이며 태백산의 생태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고 김부래 씨. “평창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한 다음에는 춘천에서 자랐어요. 사회생활은 강릉 KBS 성우로 시작했고.” 그러다가 어찌하여 태백에 자리 잡게 되었냐는 질문에 그의 답이 참 솔직하다. “그때만 해도 광산 경기가 좋을 때라 돈 벌러 들어왔죠. 지역 연예협회 회장 하며 마스터로서 밴드 만들어 업소에서 기타 치고 뭐 그랬어요.” 한마디로 ‘똥파라’였던 거다. 그런 이가 또 어찌하여 태백산 파수꾼이 됐을까? “난 계획이 있었어요. 약기는 쉼 살까지만 한다고 마음먹었던 터라 정확히 마흔아홉 살에 그만뒀어요. 왜냐요? 다른 세상 구경해야지. 그때도 하는 일이 많았어요. 음악 하면서 산도 타고, 분재에 수석, 낚시 다 했죠. 제일 재밌는 게 등산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걸 다 치웠어요.”

워낙 산 타는 걸 좋아하고 오지에 대한 모험심도 충만하다 보니 금방 소문이 나서 나이 오십에 잡지 〈사람과산〉 태백 주재기자로 활동하게 됐다. 창간호부터 무려 20년 동안이나. “주로 오지의 산을 소개하는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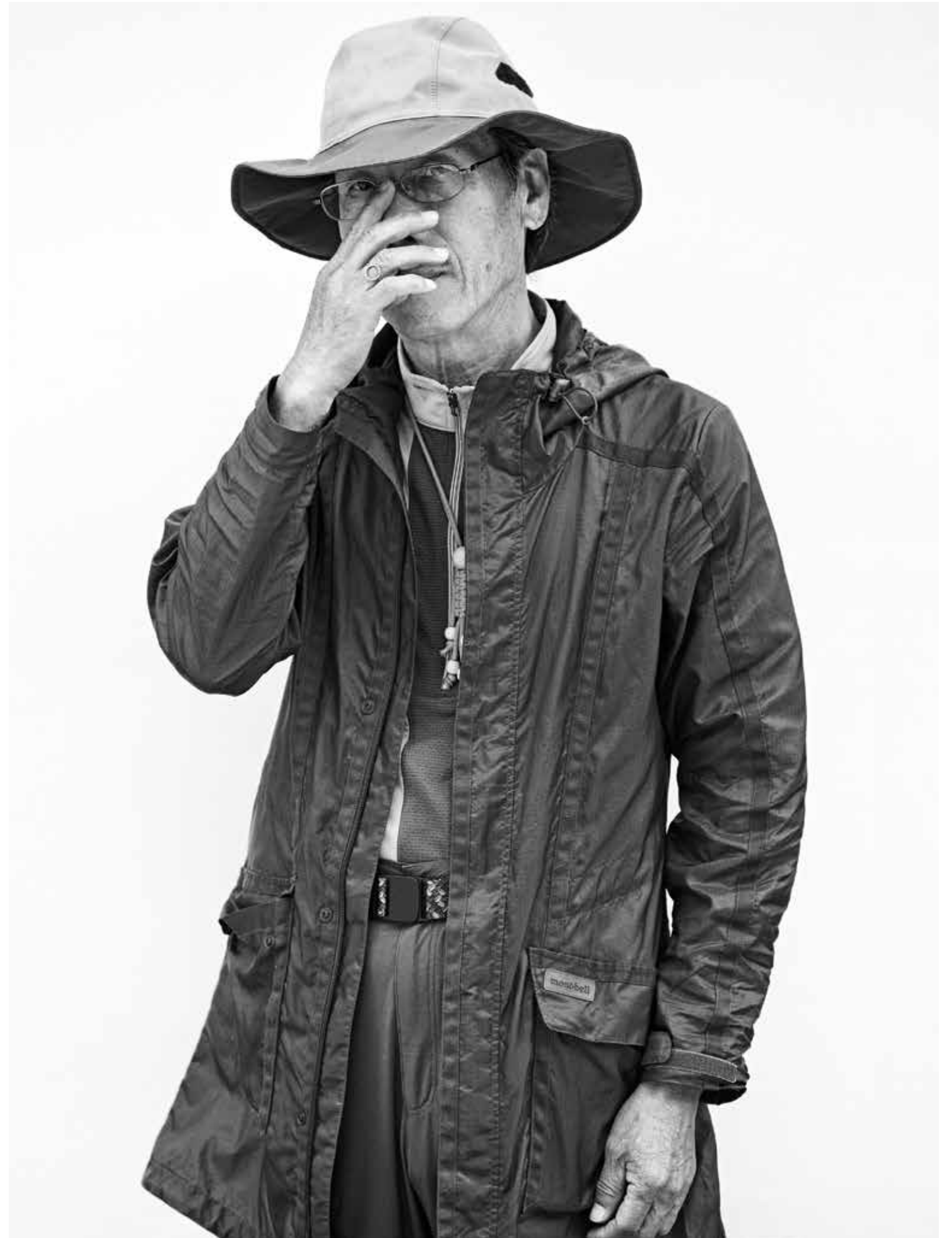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산이나 계곡을 개척해서 이름 찾아주는 일을 한 20년 했더니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제가 만든 이름을 쓰더군요. 그렇게 이름 붙인 게 한 천 개쯤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월간 산〉 기사까지 한 달에 두 꼭지씩 했으니까.” 단행본을 내도 여러 권 냈을 분량이다. “직접 안 내고 회사 이름으로 딱 한 권만 냈어요. «거짓말 같은 오지의 산»이라고 아, 한 권 더 있네요. 나는 사진만 찍었지만 〈월간 산〉의 이정숙 기자랑 같이 만든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나올까»란 책이 있죠. 제주 올레길이 뜨기 전에 전국을 돌면서 잊혀진 우리 옛길을 여행하고 조사한 책이에요.”

지금도 기사를 써달라는 곳이 많지만 그는 다 접고 지난 10년간 주로 태백의 산을 돌보고 안내하는 일만 해왔다. “왜 그런가 하면 힘들어요. 사진 찍고 글 쓰는 게 싫어요. 귀찮고. 대신 산 타는 건 좋아요. 잡지 일은 사진이며, 글이며, 심지어 모델까지 구해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이젠.” 그에게 태백의 산은 뭐가 다르냐고 물었다. “태백의 산들은요. 사계절이 뚜렷해요. 그리고 식생이 아주 좋지요. 겨울이 길고 아주 추우니까. 대신 봄도 가을도 아주 짧아. 여름도 아주 짧嘛이고. 그래서 추위에 강해요. 여기서 살다 보니 저도 추위를 몰라요. 더위는 타지만.” 산의 식생은 물론 야생화에 대한 식견도 거의 박사급인 그다.

“태백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야생화 군락지가 있습니다. 태백에서만 자라는 야생화도 많고요. 태백제비꽃, 대성쓴풀, 나도범의귀 같은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태백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들이 있는데 오직 그걸 보기 위해 금대봉 계곡과 대덕산 트레킹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도 혼자 산에 가는 게 제일 좋고 틈만 나면 배낭 메고 나가 10일, 20일, 때로는 한 달씩 걸다 온다는 그에게 물었다. 태백에서 가장 걷기 좋은 곳이 어디냐고. “전 정말 다 좋아요. 태백산도 좋고, 함백산도 좋고, 연하산도 좋죠. 백병산은 어떻고요. 어디가 좋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좋아요. 다만 개발 안 된 오지를 원한다면 태백시계 종주를 추천합니다.” 재밌는 건, 태백에서는 태백산에 안 가고는 서로 말이 안 돼서, 등산 인구가 무려 80퍼센트나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도시임에도 온갖 등산 관련 매장이 다 들어와 있고 장사도 제법 된다고. 그에게 태백에 더 바라는 게 있는지 물어봤다.

“태백산이 국립공원이 됐음 좋겠고, 또 자연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다 손을 대지만 오직 태백에서만 손을 안 대면 그 자체가 최고의 관광 상품이 되거든요.” 그런 그가 인터뷰 말미에 정말 보석 같은 말을 해줬다. “왜 이런 걸 더 일찍 몰랐을까 싶어요. 잘 먹고 잘사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자연 속에서 걸으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하고 감사하면 돼요.” ■





박창수

1962

15년 전에 왔던 철암을 떠올리고 있다. 1980년대 가장 번성했던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곧바로 모든 사물의 시간도 정지한 듯 보이는 마을 풍경이 너무 애뜻하게 기이해서 충격을 받은 기억이 선명하다.

“15년 전이면 제가 다시 철암으로 들어왔을 때네요.” 스물세 살 무렵 미래가 없다며 철암을 떠났다가 다시 15년 만에 돌아온 남자 박창수 씨의 말이다. “그 사이 철암도 많이 달라졌어요. 15년 전만 해도 버려진 폐허 같았어요. 황폐했죠, 정말.” 다섯 살 때쯤 부모님 따라 철암에 와서 20대 초반까지 줄곧 철암에서 살았던 남자가 어린 시절의 철암을 떠올린다. “대단했죠. 철암 시장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깨 부딪히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우회도로가 참 길었는데 일부러 빨리 가려고 그 길로 가곤 했어요.” 그다지 크지도 않은 동네에 돈도 사람도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상하수도 개념도 없는 작은 판잣집이 닭장처럼 붙어 있는 작은 마을에 음주 문화만 잔뜩 번성하여 사람들은 막장에 들어가 힘들게 번 돈을 흥청망청 써댔다. 탄가루 마시며 돈 벌고 그 탄을 씻어내기 위해 술 마시는 일 말고는 달리 할 게 없는 곳이었다. 내가 광부의 아들이고 딸이었다 해도 철암을 떠났을 것이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떠나려고 아주 안달을 났을 거다.

“그런데 이상하죠? 광부 일이 싫어 철암을 떠났는데 15년 만에 다시 돌아와 광부가 되어 막장에 들어가니 너무 좋은 거예요. 도시에서는 하루 종일 일 하잖아요.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고 휴일 되면 자기 바쁘고. 그런데 여기서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면 퇴근해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시간이...,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 못 차리고 매일 술 먹고 그랬는데 아내 덕분에 정신 차렸죠. 아내가 만삭이 되던 해에 철암에 내려왔는데, 처음엔 그리도 싫다더니 어느새 아이 낳고 기르고 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 취직하고 나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도 방통대 환경보건학과 입학해 벌써 4학년이에요.”

지금의 철암은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매우 이상적인 도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 손으로 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철암도서관을 봐도 그렇다. “2003년 철암역 앞에 있던 불탄 노래방을 고쳐 시작한 철암어린이공부방이 대한석탄공사 등 여러 단체의 도움으로 2007년 번듯하게 새로 지어 철암도서관이 됐습니다. 그게 다 스스로 저금통 모으고 어른들 찾아가 도와달라고 한 아이들 참여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철암도서관 관장인 김동찬 씨가 아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며 자주적이고 서로 도울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힘쓴 결과이긴 하지만, 여하튼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도서관을 지었다는 자긍심이 대단하긴 합니다.”

애뜻하게 황폐한 국내 최대 폐광 마을이 큰 수해를 연거푸 두 번이나 입은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철암에 왔다. 사회사업가도 왔고 예술가도 왔고 씨시봉과 조영남도 왔다. 개중에는 무려 10년 넘게 한 달에 한 번씩 화가며 사진가들을 몰고 와서 ‘철암 그리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할아택이라는 아티스트 단체도 있다. “철암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 보내주신 그분들 덕분에 올해부터 철암역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그 큰 역에 사람이 없었어요. 개표 창구도 없었고, 꽤 오랫동안. 그런데 올해부터 코레일에서 관광상품을 만들어 하루에 일곱 번씩 열차 손님을 태우고 옵니다. 여자 통장님이 매표 담당인데 저녁마다 좋아서 못 살아요. 마을 사람들은 역에 불이 켜지게 켜져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흐뭇하고.” 덕분에 상철암 통장 일을 맡아 마을 대소사를 챙겨오던 그도 굉장히 바빠졌다. “얼마 전 부랴부랴 마을 기업을 만들었어요. 열차 손님들을 위해 간이식당을 만들어야 해서요.”

이방인 눈에는 시간이 멈춘 듯 정체되어 있던 철암의 옛 풍경이 마치 서부영화 처럼 흥미로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바뀐 철암이 처음엔 좀 못마땅했다. 하지만 박창수 씨를 만나고 생각이 좀 바뀌었다. 보존 가치 있는 폐허 같은 풍경 좋다. 하지만 풍경보다 사람이 먼저다. 철암은 지금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조금씩 조금씩 진진하고 있다. ■

전남 신안이 고향인 그는 어린 시절 늘 바다를 보고 살았다. 그러나 서울로 유학 가서 철도학교를 졸업하고 받은 첫 발령지 추전역은 늘 파랗게 출렁이던 그 바다와는 너무도 다른 삭막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다. “아, 처음 발령받아서 왔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1984년도 1월 17일이었어요. (“추웠겠네요?” 문자) 네, 엄청 춥고 무서웠어요. 껌껌할 때도 착했어요, 혼자. 그때 열한 명이 발령 받았는데 도시마다 하나하나씩 내리고 마지막에 저만 남았어요. 추전이 가장 마지막 역이었는데 내려서 보니 킁킁한 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을씨년스럽게 춥고 시꺼멓던지. 스무 살에 그런 곳에도 착하냐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싶은 게 앞이 캄캄했어요.”

태백에서 30년을 살았고 추전역에만 네 번 발령받아 지금은 추전역 역장으로 있는 김남국 씨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 웬지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라는 제목의 프랑스 영화가 떠오른다. 하지만 그 암울한 회상도 잠시. 건강하게 그을린 중년 남자의 얼굴에 금방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걸리고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랬는데 정이 들었죠. 태백이 그래요. 시꺼먼데, 여기 온 사람들의 타는 마음을 뜻하는 것 같아요, 지배적인 그 인상이. 전부 다 ‘막장 인생’이라고 쫓기고 쫓겨서 마지막에 온 곳이 태백인 거죠. 저야 뭐 어린 나이에 가라하니 온 거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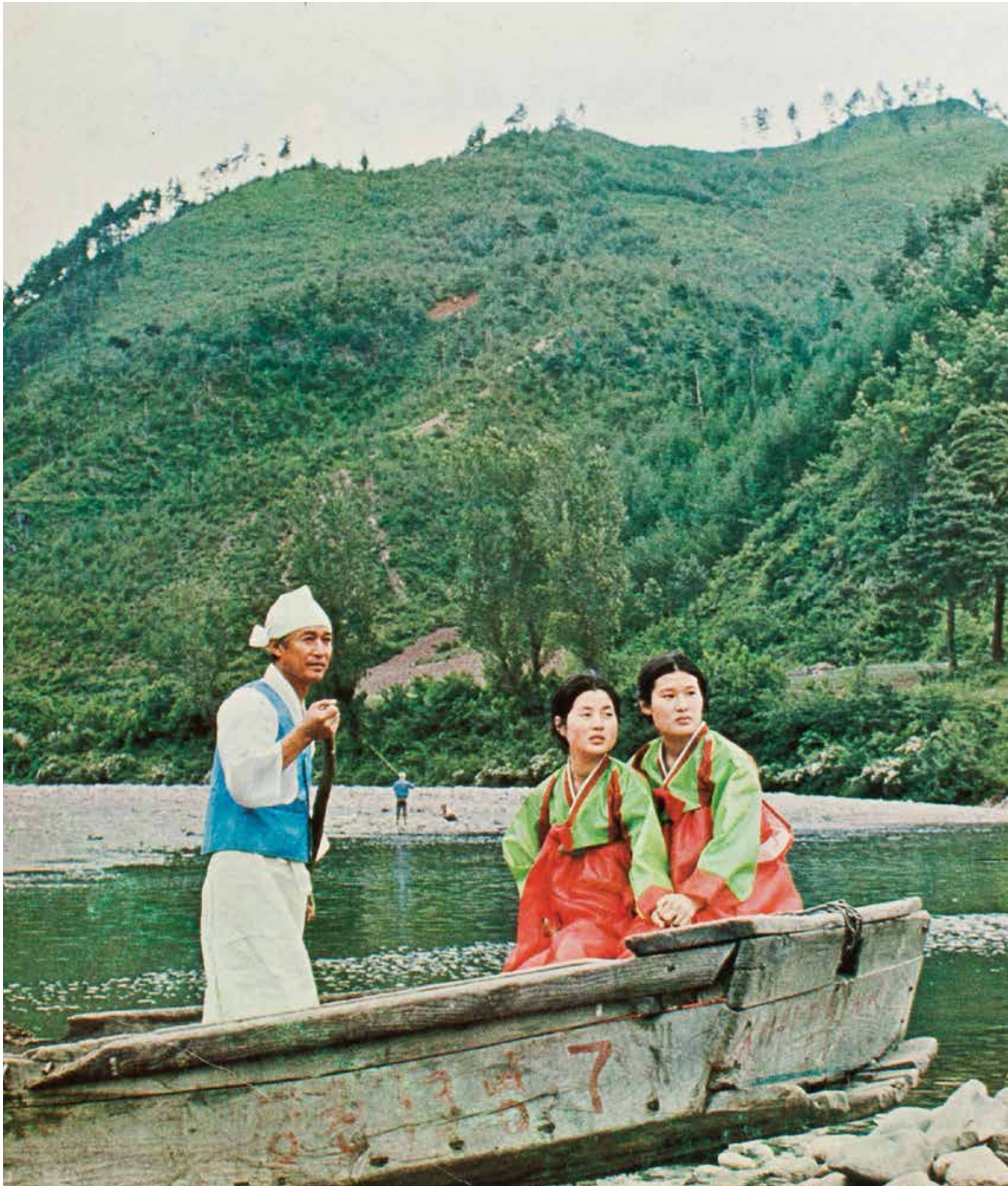
당시 KBS 다큐멘터리에서 ‘하늘 아래 첫 역’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는 추전역 풍경을 보며 남자는 울었다. “물도 없어서 관사에 1.5킬로미터 떨어진 정암터널이라는 곳까지 걸어가 말통으로 매일 아침 길러다 먹었어요. 근데 TV에 정선아리랑이 깔리면서 물지게 지고 오고 가는 시꺼먼 사람들이 나오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웬지 서러워서.” 그런데도 나름대로 재밌었다며, 생각해 보면 그때가 좋았다며 남자가 또 웃었다. “동네 사람들 하고 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통운 작업하는 사람들 모두 모여서 돼지를 사서 키워가지고 가을 되면 돼지 잡아 놓고 마을 전체가 다 같이 잔치를 벌이곤 했어요. 다 합쳐봐야 열 일곱 명이 됐단 됐다 하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일하고 놀고 그랬던 그때가 역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어렵지만 정이 있었던 거죠.”

어떤 책에서 봤던 얘기가 떠오른다. 따뜻한 곳보다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던. 따뜻한 곳에서는 삶이 편안해서 타인과의 협력은 그저 선택 사항이지만 추운 곳에서는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란단. 협력을 통해 인간은 사랑을 배운다. 게다가 척박한 땅으로 찾아온 이들은 애시당초 엄청난 기대치를 가진 것도 아니어서 웬만해서는 잘 낙담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시기심도 없다. 그래서일 거다. 삶이 마냥 춥고 암담할 것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의외로 행복감을 느끼는 건.

예전에 함께 공을 차고 돼지를 잡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모두 떠나갔다. “추전에 사는 민가들 다 별명들이 있었어요. 예컨대 베트콩네 집. 베트콩 처럼 생긴 해병대 나오신 분이 살았거든요. 성냥곽집, 집이 성냥곽처럼 생겨서요. 규폐증 앓는 아저씨와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살던 집이었는데... 집들마다 다 아픔이 있었죠.” 하지만 그가 추전역에 다시 올 때마다 빈집이 늘어났다. “이사 갔거나 돌아가시고 없더라고요. 지금은 민가는 전혀 없어요. 오로지 역만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단다. “1998년에 눈꽃열차가 생기면서 추전역에 관광객들이 내려요. 잠깐 10분이지만.” 지금도 무연탄 운송이 추전역의 주 업무지만 점차 관광객들이 많아져서 심심할 틈이 없단다. 어떻게 하면 역을 더 예쁘게 꾸밀까 고민한다는 그는 초여름 녹음을 바라보며 꿈꾸듯 말했다. “고향은 아니지만 저는 태백예찬론자예요. 너무 좋아요. 탄광촌이지만 산소 도시라고 부를 만큼 공기 좋고, 숲도 지천이고 바다도 멀지 않아요. 아시죠? 태백이 시군 단위에서 1인당 술 소비량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거. 공기가 한몫 하는 겁니다. 정말 술이 덜 취해요. 수도권에서 좀 먼 게 흠이지만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파괴되지 않은 전원도시의 가능성이 이곳 태백에 있다고 믿습니다.” ■





〈정선아리랑 LP음반〉(1976년,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재킷 일부.

흘려
보내고

전디기에
좋은

세음절,

어떤 노래가 있다.
수백에서 수천 개가
넘는 가사를 가진
이 노래는 신기하게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노래를 모두 아는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나만의 가사
몇 개쯤은 갖고서
부르는 노래.

글 : 김우성
(前) 국악방송 PDJ
(PD 겸 DJ), 매일 새벽
1시 FM국악방송 '깊은밤
깊은소리'를 통해 전
세계로 한국 음악의 맛과
이야기를 내보냈다.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프로그램 '자이니치,
공존의 아리랑'(2013)을
연출해 여러 상을 뒀다.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덕분
(?)에 다양한 시선으로
이 땅의 '땅 음악', '땅 글'을
캐내는 길을 걷고 있다.

아라리...

아리랑
ありらん
타령
タマリヨ
（ありらんの唄）

아리랑
アリラン
아리랑
アリラン
아라리오
アラリヨ

아리랑
アリラン
아리랑
アリラン
고개로 넘어간다
コゲロノモカンダ

나를 버리고
ナルポリコ
가는
カシヌン
님은
ニムン
발병
バルピヨン
난다
ナンダ

십리도
シムニト
못가서
モツカッ
발병
バルピヨン
난다
ナンダ

妾を捨てて
行
君は

이 노래가 단 한 사람의 권력자나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이 노래를 접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담겨 지금까지 전해진다는 것이다. 그것만큼 확실한 유래가 또 있을까?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모난 데 없이 둥글게 흐르는 소리, 아라리...

정선아리랑은 사실 아리랑이 아니라 ‘아라리’라고 불러야 더 맞는 듯하다. 아라리...라고 말할 때의 부드러운 모습과 연음의 흐름. 아리랑...하고 울리는 땃음이 아니라. 아라리...하고 보내버릴 수 있는 이 말은 세월을 건너기에 좋은 음절을 품고 있다. 아라리...하고 흘러버리는 말의 모양새는 또한 강원도의 산하를 닮았다. 어라연의 맑은 물이 오랜 세월 정선 땅을 흐르며 사람이 동강을 닮았는지 동강이 사람을 닮았는지 모를 만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듯, 아라리도, 사람도, 그 땅도 서로 닮는다. 태고를 품은 적막한 강산, 기적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낡은 철길, 그리고 단종의 슬픈 생을 닮은 청령포처럼 정선은 단절을 닮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단절에서 다시 소통이 시작된다. 산이 만든 단절, 강이 만든 단절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을 이어주는 노래를 탄생시켰다. 끝과 시작이 만든 교집합이 정선아리랑이고,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아리랑의 고향, 아리랑의 원형으로 정선아리랑을 꼽는다.

“사발그릇이 깨지면은 두세 쪽이 나는데
삼팔선이 깨지면은 한 덩어리로 뭉친다.”



〈정선아리랑 LP음반〉(1976년,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1975년 12월 정선아리랑제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이듬해 정선아리랑의 대중화를 위해 낸 12인치 음반.
지구레코드에서 제작했다.

그렇다. 아리랑은 ‘듣는’ 노래가 아니다. ‘부르는’ 노래다. 무대 아래의 관객이 아니라 인생의 무대 위에서 ‘나’를 이야기하는 노래, 빈부귀천을 떠나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노래, 아리랑.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을까? 아마도 아리랑을 정의하는 그 순간부터 아리랑은 아리랑이 아닌 것이 될지도 모른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휘둘리지 않을 우리의 노래, 나의 아리랑. 이런 다양성과 확장성의 가치를 인정해 유네스코는 2012년 12월 5일 아리랑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했다.

고단한 삶 따라 흠어진 아리랑 꽃씨

아리랑은 노래가 아닌 이야기에 가깝다. 단순한 선율, 쉬운 변형으로 인해 한반도와 세계 전역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 새롭게 노래된다. 사할린의 고달픈 역사를 품은 ‘사할린 아리랑’, 광복의 의지를 엮은 밀양아리랑의 선율에 담아 부른 ‘광복군 아리랑’, 참을 수 없는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킨 중국 지린 성의 ‘기쁨의 아리랑’, 1990년대 한국과 중국, 일본, 북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불렀던 ‘도쿄 아리랑’과 하와이로 이주한 일본인 2세가 고향 일본을 생각하며 연주한 이른바 ‘니세이 아리랑’까지, 아리랑은 국적, 민족, 시간을 뛰어넘었다. 정선아리랑학교 진용선 소장의 말처럼 ‘꽃씨’가 된 아리랑은 이산의 아픔을 타고 날아가 저마다의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그 꽃씨를 품고 간 사람은 죽고 없어도, 꽃은 해마다 피어 향기로운 아리랑의 유산을 남겨주었다.

아리랑의 고향, 정선

수많은 아리랑들의 고향은 어디일까? 여기 아리랑의 가장 오래된 모습을 간직한 채, 가장 먼 미래를 꿈꾸는 정선아리랑이 있다. 1971년 12월 강원도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돼 정선을 비롯한 강원도 사람들의 마음을 표상하는 노래가 정선아리랑이다. 아리랑의 유래는 정확한 근거나 자료가 없다. 공식적이고 국가적인 기록이 아니라 민중들의 삶 속에서 생명력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어쩌면 아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된 노래일지도 모른다. 정선아리랑의 유래는 그 노래말로 추측할 때 고려 말 조선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에 등장하는, ‘만수산 드령취’으로 얹히길 거부하며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정선에 유배한 전오륜을 비롯해 고려 유신(遺臣) 칠현(七賢)의 애절한 마음과 이야기가 아리랑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강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지 못한 애절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근원이라거나, 비밀스런 암호문의 형태로 아리랑이 만들어졌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설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리랑은 저마다의 계절을 상징한다. 가을의 무르익은 들판은 ‘진도아리랑’의 비옥한 음색과 닮았고 여름의 뜨거움이 ‘밀양아리랑’의 경쾌함으로 이어진다면, ‘정선아리랑’은 봄을 부르는, 흑독한 기다림을 노래하는 ‘겨울의 아리랑’이다. 기다림은 철길을 닮았다. 마주보고 평행하는 운명 속에서 시간을 견디듯 정선은 변해가는 세월의 광풍 속에서 유적처럼 낡은 철길을 남겨두었다. 이젠 흰밥을 꿈꾸는 검은 석탄의 기적소리 대신 소소한 웃음과 추억을 싣고 달리는 레일바이크가 낡은 철길에 몸을 대고 흐른다. 계절과 계절, 시절과 시절 사이의 교집합을 만들며 평행한 저 시간의 선로는 지금 강원도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의 표정이 된다. 어느 계절에 머물든 정선은 겨울을 암시하고, 그렇게 새로운 시작에 갈증 난 사람들에게 희망의 단서가 되어준다.

누가 알아줘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정선아리랑 30~40자의 짧은 가사는 흡사 SNS의 메시지를 닮았다. 트위터에 올려진 140자가 쉽고 간단하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듯 아리랑의 서른 자는 태초의 SNS였고, 어쩌면 오래된 미래였다. 한편의 원대한 서사나 대단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 ‘누군가’의 이야기다.

“밥 한 냄비를 달달 볶아서 간난이 아버지 드리고
간난이하고 나하고는 저녁 굶어 자자.”

아리랑은 어쩌면 역사를 갖지 못한 평범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었을지 모른다. 노래는 사람보다 오래 살고, 멀리 간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음으로써 더욱 진하게 기록된다. 삶의 역사를 품은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정선아리랑이다. 전문 예인들에 의해 노래되기보다는 소박한 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서 공유되는 이 노래는 그런 이유로 3천 수가 넘는 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원형적인 형태의 아리랑으로 남아있다.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사람들에게 그저 내 이야기를 소리 높여 공유하는 ‘타령’처럼 시골집 부엌에서, 피약별 아래의 밭두렁에서 그 순간을 기록하는 역사가 된다.

이제 정선에 가면 나만의 아리랑 가사 한 수를 만들어야 한다. 자연과 사람과 시간이 빚어낸 3천 수가 넘는 노랫말에 나의 이야기도 함께할 때, 비로소 정선아리랑을 만나게 된다. 그 노랫말이 타고 흐르는 메나리 선율을 입안에 머금다 보면 비로소 마음은 정선, 강원도의 산하를 온전히 그려낼 수 있다. 두위봉의 철쭉이 되었다가 아우라지의 나룻배가 되고 때론 삼탄아트마인으로 새롭게 노래되는 나만의 아리랑, 그렇게 내가 만들어 부르는 나의 정선아리랑은 점점 정선의 땅을 닮아 흐르게 된다.

“나비 없는 강산에 꽃은 피어 멎하며
당신 없는 요 세상 단장하여 멎하나”

곡선으로 부드럽게 휘감으며 기다림을 노래하는 저 강과 산의 조화처럼 나의 이야기, 나만의 아리랑도 누군가의 공명을 기다린다. 내가 ‘아리랑’하고 부르면 누군가가 ‘아라리요’ 하고 대답하는 아리랑의 공명은 속도에 쫓기는 직선이 아니라, 세월을 따라가는 곡선의 모양새가 된다. 곡선은 생명이다. 땅을 비옥하게 하고 사람들을 살게 하고 시간을 숙성시킨다. 또한 여러 음악가들을 곡선으로 거쳐가는 동안 정선아리랑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다. 단명한 비운의 경기 명창 김옥심의 서늘한 노래 속에서는 슬픈 계절의 흑백사진이 되고, 정선의 토속 소리꾼 김병기와 박경원의 노래에서는 시간을 잃어버린 뚝뚝한 산그늘의 한나절이 된다. 유럽을 무대로 세계에 정선아리랑의 매력을 알리는 재즈가수 나운선의 노래 속에서는 푸른 동강 물빛이 되며, 낮설고 새로운 시선에 담겼을 땐 일본의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의 선율처럼 설렘을 빚어낸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노래가 사람을 타고 사람을 부르며 한 시절의 곡선으로 흐르는 것, 정선아리랑은 그것에 다름 아니다.

검도록 푸르른 정선의 산과 강과 사람은 아리랑으로 회귀한다. 그리고 다시 아리랑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모두의 이야기가 공존하며 아직 현재진행형으로 살아 흐르기에 정선 아리랑은 누구의 노래도 아닌 바로 ‘나의 아리랑’이 출발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어쩌면... 나의 아리랑이 도착할 정착역일지도 모른다. **H**

“정선아리랑에는 느리고 길게 이어지는 ‘긴 아리랑’과 긴 아리랑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듯 촘촘하게 엮는 ‘썩음아리랑’이 있다. 가사도 비교적 짧고 음악적으로도 최고음과 최저음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데다 선율도 단조로워 가락이 귀에 익으면 누구나 즉흥적으로 가사를 만들어 무한정 붙일 수 있다. 이미 아는 가사에 토씨나 단어만 바꿔 불러도 노래가 되니, 정선 사람들은 정선아리랑을 ‘찍어다 붙이면 되는 소리’라고 한다.”

정선아리랑은 현재 채록되고 정리된 가사만 3천여 수.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 2013년 말을 목표로 준비 중인 «정선아리랑 가사 사전»이 완성되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2012년까지 전승되고 채록된 가사 수가 모두 8천 7백여 수에 이를 전망이다. 이 방대한 작업은 정선아리랑학교 진용선 소장이 맡고 있다. 재단은 사전이 완성되면 정선아리랑을 ‘세계에서 가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노래’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할 예정이다.

“우리가 흔히 정선아리랑의 후렴구로 생각하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는 서양 음악의 후렴과는 그 쓰임이 다르다. 이는 서로 소리를 주고 받다가, 혹은 여럿이 한마디씩 돌아가며 부르다가 자기 순서가 되어 갑자기 가사가 막혔을 때 판을 깨지 않기 위해 부르던 것으로, 이 때는 모두 함께 부르며 어울리는 소리가 되도록 했다.”

참고문헌 : «정선아리랑 가사집»(진용선 편저, 집문당, 2003),
«아리랑 포켓북 - 아리랑, 정선아리랑»(진용선 편저, 정선아리랑학교, 2012)

아
라
리
요

아
리
랑

아
리
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당신은 내속 썩는 것 그다지도 모른다면
앞남산 봄눈 썩는 것 쳐다가 봐요

백봉령 굽이굽이 자동차가 돌고
요내가슴에 굽이에굽이에 수십만 돈다

서울 장안에 불붙은거는 소방대가 끄지
요내가슴 불붙은거는 어느 누가 끄나

시아버지를 들릴려고 옥수수를 따다 왔다가
잠결에 잘못 삶아서 빨래방망이를 삶았네

정선읍내 물레방아는
사시장철 물살을 안고
빙글빙글 도는데
우리집의 서방님은
날안고 돌줄 왜 몰라

아리랑 고개는 열두고개라는데
마지막 고개는 넘어가지 마세

앞남산에 달뜬거는 밝아서나 좋지
이내마음 달뜬거는 매맛을 징조



호박은 늙으면 단맛이나 나지
사람은 늙어만 진다면 단맛도 없네

그대 당신을 사모하다가 골수에 든 병
화타 편작이 치료한들 일어날 수 있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꼬치발 한 골을 못 매는 저 여자가
이마 눈썹은 여덟팔(八) 자로 잘 가꾸네

네 팔자나 내 팔자나 이불 담요 깔겠나
마틀 마틀 장식자리에 깊은 정 들자

눈물로 사귄 정은 오래도록 하지만
금전으로 사귄 정은 잠시 잠간이라네

담뱃불이야 반짝반짝에 님 오시나 했더니
저 몸쓸 놈의 반딧불이가 나를 또 속이네

당신은 나를 알기를 흑싸리 껌질로 알아도
나는야 당신을 알기를 공산명월로 알아요

우리집에 서방님은
울치고 담치고
열무김치 소금치고
오이김치 초치고
칼로 물친듯이
썩돌아 서서 가더니
평창 팔십리 다 못가고서
왜 되돌아왔나

당신이 날만치만 생각을 한다면
오동지 선달에도 진달래가 피지요

당신이 생각을 날만치만 한다면
가시밭이 천리라도 신발 벗고와요

앞남산의 딱따구리는 생구멍도 뚫는데
우리집의 저 멧렁구리는 뚫어진 구멍도 못뚫네

무정한 기차야 소리말구 가거라
산란한 이내 마음이 더 산란하구나

수수밭 삼밭을 다지내 놓고서
뽕뽕한 잔디밭에서 왜 이렇게 즐라

앞 남산 살구꽃은 필락말락 하는데
우리 둘이 정이야 들락말락 하네

아우라지 강물이 소주 약주 같다면
오고 가는 친구가 모두 내 친굴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우수야 정첩에 대동강이 풀리고
우리님의 말 한 마디에 이내 속이 풀리네

정선같이 살기 좋은 곳 놀러 한 번 오세요
검은 산 물밑이라도 해당화가 핍니다





그리고 계속 될

2012년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는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아리랑의
출발 신호이다.
아리랑 전문가로
25년을 살았건만
여전히 ‘아리~’ 하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다는 진용선에게
아리랑은 영원한
현재진행형이다.

글 : 임윤혁
자유기고가. 지역 문화와
풍물을 들여다보는
일과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듣는 일을 즐긴다.
‘뿌리깊은나무’에서
나온 인문지리서
《한국의 발견》 증보판을
내는 것이 일생의 목표다.
농촌 지역 문화에 관심이
많아 (사)도농문화콘텐츠
연구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사진 : 박정훈
도쿄비주얼아트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기다리고 지켜보다가
꾸미지 않아도
빛나는 순간을 찍는다.
‘박정훈 사진작업실’
실장으로 다양한 매체와
사진 작업을 하고 있다.

유물 이미지 제공:
정선아리랑연구소

진용선의 아리랑 변주

이제 그만, 정선을 떠나고 싶다고 했다. 편하게 안주할 수 있는 보장된 삶을 뒤로 한 채 오로지 아리랑 하나만 바라고 돌아온 고향이었는데, 그 어려운 세월 다 견디고 이제 와서 왜? 산간벽촌의 여전한 일상이 갑갑해진 걸까, 아니면 25년째 파다 보니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것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역시 사람이고, 아리랑을 완성형으로만 본다면.

“그게 아니다. 애초에 명리를 좇았다면 아예 돌아오지도 않았을 거다. 난 내 고향이 좋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이제와 아리랑을 놓고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정선을 버리는 게 아니라 뛰어넘고 싶은 거다. 중앙아시아 이주민들이나 유럽 입양아들의 아리랑을 듣고 싶고, 아프리카에 아리랑을 보급하는 일도 하고 싶다. 아리랑은 파면 팔수록 더 깊어지는 우물이다.”

진용선. 올해로 선돌.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1리 옛 함백초등학교 매화분교에 정선아리랑연구소와 정선아리랑학교, 아리랑 아카이브, 추억의 박물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아리랑 전문가. 그에게 아리랑은 영원한 진행형이다. 정선아리랑은 (누구라도 지어 부르면 되니) 지금도 노랫말이 늘어나는 등, 시대와 상황에 맞게 계속 변주되고 있다.

“유럽 입양아들에게 강연을 한 일이 있었다. 이미 청년이 된 그들이 흠을 가득 메운 장면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강연이 끝나고 나를 위해 서툰 한국어로 아리랑을 불러준 일 때문에 울컥했다. 나는 나대로, 그들은 그들대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내 손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메모지를 쥐어주며 엄마를 찾아달라던 그들에게 아리랑은 어머니였다.”

아리랑 따라 돌아온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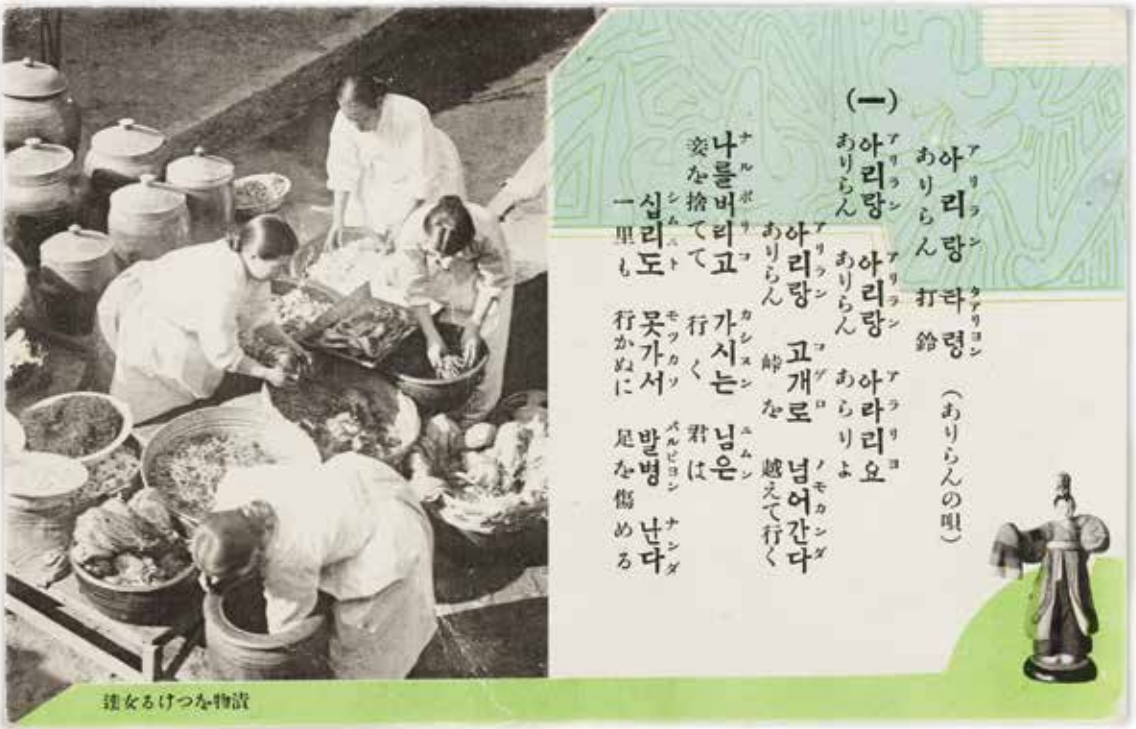
정선군 신동읍에서 나고 자란 진용선에게 아리랑(정선아리랑)은 웬지 모를 푸근함과 안온함을 주는 고향의 품이었다. 그래서인지 객지생활이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그는 정선을 생각하며 습관처럼 아리랑을 읊조렸다. 그런 태생적 배경 때문인지 청년 진용선은 틈틈이 아리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한국에 다니러 온 독일인 환화가의 통역을 맡았는데, 그가 아리랑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바람에 좀 더 깊숙이 아리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많지 않아 곧 벽에 부딪혔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아리랑은 시대에 뒤쳐진 고전이였으며 고작 술집이나 노래방 이름으로 차용될 뿐인 너무 흔하고 경박한 노래일 뿐이었다. 그걸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었다. 진용선 역시 한계를 절감하며 아리랑과 거리를 두었다. 무엇보다 생활비며 대학원 학비며, 돈을 벌어야 했다. 그는 잘나가는 토틀 강사였고, 기업에서 찾아주는 통역이었다. 대기업의 대졸 초임 임금이 50만 원 안팎이던 당시에 그는 월 4백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만 간다면 꽤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겠구나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 강의를 들어가서 기껏 수강생들 머릿수나 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 하나하나가 돈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진 아니다 싶을 때 머릿속에 경종처럼 정선아리랑 구절이 떠올랐다. 고민은 깊었지만 결행은 신속했다. 그렇게 진용선은 아리랑 가락을 따라 고향 정선으로 돌아왔다.

아리랑 좇아 걸어온 25년

“고향 오면 다 될 줄 알았다. 할 일도 많을 거고, 아버지도 좋아하시진 않겠지만 내놓고 반대하시진 않을 거다, 뭐 이런 확신도 있었다. 그런데 주변에선 미친놈, 할 일 없는 놈 취급을 하고, 아버진 아예 외면을 하시더라. 대학 은사님이 써주신 ‘아리랑연구소’ 현판을 걸려고 했는데, 아버지 반대가 완강해 미룰 수밖에 없었다. 당혹스러웠다.”

결국 정선 부군수와 신동읍장까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한 끝에 1991년 11월에야 겨우 연구소 현판을 걸고 개소식을 할 수 있었다. 마지못해 허락은 하셨지만 아버지는 탄가루 마시며 공부시킨 아들놈의 ‘헛짓거리’가 미워 개소식엔 얼굴을 비추지 않으셨다.





아리랑 엽서(88×139mm, 1920~1930년대,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일제강점기에 나온 아리랑 엽서.

막상 연구소를 열긴 했지만, 처음엔 아버지의 우려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는 비아냥도 여전했고, 결정적으로 뭔가를 할 돈이 부족했다.

“예전 인터뷰 사진이나 기록물들을 보면 세월이 한참 지나도 옷이 똑같은 경우를 볼 수 있다. 아내가 아이들 이유식 값이 없어 난감해 하는 걸 지켜봐야 했고, 아리랑캠프를 진행할 장소가 없어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하기도 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은 몸으로 때우며 버틸 수 있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대학 등에 적을 두지 않아서 겪는 설움이었다. 자료 하나 찾기도 힘든 그 냉대와 무시라니. 세상이 온통 적들뿐이었다.”

그럴수록 더 아리랑에 매달렸다. 다행히 88올림픽과 2002 월드컵을 거치며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늘며 그의 작업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1997년에는 지금의 자리로 터전을 옮겨 아리랑학교도 열었고, 2004년엔 지역과 함께 나누는 문화를 꿈꾸며 추억의 박물관도 개설했다. 녹음기와 사진기, 수첩 하나 달랑 들고 국내는 물론 연변, 사할린, 일본, 하와이 등 방방곡곡으로 아리랑 채록에 나섰다.

그리움을 달래고 혼을 찾는 동포들의 아리랑

아리랑을 기억하는 이들 대부분이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를 고령자들이어서 진용선 소장의 마음은 급했다. 국내든 국외든 아리랑을 아는 이가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바로 찾아갔다. 그렇게 부지런을 떤 덕분에 실전되기 직전인 ‘영천아리랑’, ‘구미아리랑’, ‘부산아리랑’ 등 우리에게도 생소한 노래들을 채록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진 소장은 해외동포 아리랑에 주목했다. 갓난아기가 엄마 등에 업혀 만주까지 가며 들었던 아리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전쟁터를 전전하며 불렀을 아리랑, 강제동원으로 홋카이도 유바리탄광에 끌려가며 듣고 불렀던 아리랑, 사할린에서 하와이에서 조국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부르던 모든 아리랑들을 모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 노력들은 25년의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여 «동강아리랑», «정선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정선아라리 그 삶의 소리 사랑의 소리», «중국 조선족아리랑 연구», «러시아 고려인 아리랑 연구»,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등 50여 권의 저술로 정리되었다. 또한 채록 과정에서 찍은 슬라이드 1만여 점과, 국내외 아리랑 관련 희귀 서적과 음반 등도 아리랑을 연구하고 확산시키는 데 중요 자료로 가치를 인정받기에 이른다. 그가 만난 많은 해외동포들에게 아리랑은 흠어진 민족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구심점이었으며, 어머니 품과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자체였다. 또한 그것은 주변의 이민족들과 한민족을 구별하는 상징이기도 했다. 진용선은 그런 아리랑을 하나로 모아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아리랑 문화권)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 정점에 유럽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가 있는 것이다.

진용선의 아리랑 네트워크

아리랑 네트워크 구축의 첫걸음은 2012년 12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였다. 그리고 ‘아리랑로드-해외순회전’을 마련해 2013년 4월 국립민속박물관 전시를 시작으로 일본 오사카(5월)와 도쿄(7월)를 거쳐 내년과 내후년엔 각각 미국과 러시아를 찾을 계획이다. ‘아리랑-The Soul of Korea’라는 주제로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에서 열린 5월 전시는 재일 한국인들의 아리랑 관련 이야기가 담긴 영상과 아리랑의 역사 및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각종 자료 393점을 소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국립민속박물관이 함께 하는 이번 전시는 기존 문화재 전시 형태에서 벗어나 라키비움(Larchiveum)식 전시를 도입했다. 이것은 라이브러리(library)와 아카이브(archive), 그리고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관람객이 진열장 속 유물을 관람한 뒤 전시 주제와 관련된 책과 자료도 직접 읽어볼 수 있는 형태다. 아리랑 네트워크를 말하며 진 소장은 조선족 아리랑 문제를 꺼내든다. 2011년 중국은 ‘조선족 아리랑’을 자국의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한국으로 치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으로 지정한다. 이 때문에 2009년 정선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 실패를 경험했던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연일 동북공정을 성토하고, 중국에게 선수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를 서둘렀다.



〈한국민요선집 LP음반〉(1960년대 초,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미도파레코드사에서 제작한 10인치 LP판. 당시 한국 최고 명창으로 꼽히던 이은주의 ‘아리랑’ 등 총 여덟 곡이 수록되어 있다.



〈재일교포 이화가요집〉(102×137mm, 1960년대,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일본 콜롬비아레코드에서 제작한 여덟 트랙 테이프.
재일한인 이화가 부른 ‘아리랑’ 등이 수록되어 있다.

“중국 정부에 조선족아리랑의 국가급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름아닌 조선족이었다. 정신을 팔아먹는다는 등 비판이 일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현재 엔벤[延邊] 조선족 자치주에서 조선족 비율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조선족이 70퍼센트가 넘었는데 한국으로 대도시로 다 떠나고 그 빈자리를 한족이 채우면서 남은 조선족 사이에선 자치주인 엔벤이 일개 시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중국에 문화적으로 동화당하고 종속될까봐, 중국이 아리랑마저 먼저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설칠까봐, 미리 ‘조선족’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아리랑 지키기, 조선족 정체성 지키기에 나선 것이라고 본다.”

진용선의 아리랑 네트워크는 지역 간의 연대를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정서적 공유 내지는 문화적 향유까지를 아우른다. 학자들이 수집과 연구를 통해 모은 다양한 자료들을 나름대로 계통화시키고, 그것으로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전시와 공연을 만들어 다 같이 즐기는 것이 아리랑 확산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지금 열리고 있는 ‘아리랑 로드 - 해외순회전’처럼 말이다.

작은 의미의 아리랑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소통하는 일도 고민했다. 아리랑연구소나 아리랑학교가 지역 주민은 접근할 수 없는, 혹은 관심도 없는 동떨어진 섬이어서 곤란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추억의 박물관도 만들고, 옛 학교 운동장에 있던 놀이기구도 그대로 두었다. 또 직접 나무를 심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꿔서 여름이면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드는 등 아리랑학교와 연구소를 지역 주민이든 지나는 길손이든 누구든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광장으로 가꿨다. 주말 이틀 동안만 운영되는 ‘추억의 박물관’에는 음반·가사집 등 아리랑과 직접 관련된 유물뿐 아니라 색연필·라디오·담배·재떨이·잡지·단행본 등 아리랑이 붙은 온갖 수집품을 포함한 근현대사 자료 2만 2천여 점이 보관·전시되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끈다.

‘부아가 나도 부르고 즐거워도 부르는’ 아리랑

“요즘 들어 아리랑 판이 확대됐다. 유네스코 등재 이후 공급과 수요가 한꺼번에 늘어난 탓이다. 그러면서 예전의 순수하고 순박했던 아리랑에 세련됨이 가미되는 등 다양성의 폭도 커졌다. 물론 (지자체끼리의 지나친 경쟁 등)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 이렇게 커진 판도를 어떻게 끌고가고 또 정착시킬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88올림픽 때 잠깐 반짝했던 아리랑 붐은 2002년 월드컵 때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의 아리랑 열기는 집단 신명이었다. 한민족은 누구나 ‘아리랑 DNA’가 유전자 구조 속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과 같은 저력은 언제든 발현될 수 있다는 게 진용선의 주장이다. 다만 그것을 촉발하는 매개가 무엇이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저항으로, 해외에선 그리움으로, 사랑하는 연인들에겐 정한으로, 월드컵 팬 신명으로, 글로벌 시대엔 케이팝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아리랑을 통해 그 저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개는 ‘정치’라는 게 진소장의 분석이다. 좋은 정치를 펼쳐 그런 판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판에 뛰어들어 신명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발산할 것이라고.



〈아리랑 잡지〉(129×189×20mm, 1955년,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1955년 아리랑사에서 발행한 월간 〈아리랑〉 11월 특별호. 1955년 창간된 이 잡지는 8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로, 매달 270쪽 내외에 소설, 만화, 신변, 잡기 등을 두루 담았으며 독자 고민 상담 코너도 큰 인기를 끌었다.



〈아르렁 SP음반〉(133×190×255mm, 1932년,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1926년 단성사에서 상영한 영화 ‘아리랑’과 ‘어두운 길’의 주제를 가수 김연실이 부른 회귀 SP 음반으로, 한국 가수의 최초 아리랑 음반이다. 일본 빅타레코드에서 제작했다.



〈신아리랑 SP음반〉(1936년,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1936년 오케레코드에서 발매한 고복수의 〈신아리랑〉 SP음반을 1940년대 중반 재발매한 것이다.



《조선속곡집》(150×217×270mm, 1923년,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근세 음악교육자 이상준(1884~1948)이 조선 재래 속곡과 풍류곡의 편한 연주를 위해 서양식 오선보로 채록해 펴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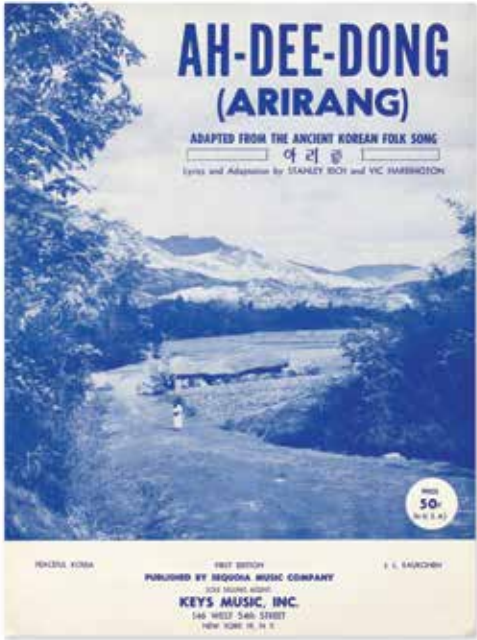


《Glimpse of Korea》(180×252×6mm, 1957년,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1950년대 당시 대표적인 음악출판사였던 국민음악연구회에서 펴낸 한국민요집. ‘아리랑’, ‘밀양아리랑’ 등 한국 대표민요 열여섯 곡을 해설과 함께 영문으로 수록했다. 국민음악연구회 대표 이강염은 한국 민요를 해외에 홍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아리랑 엽서(88×139mm, 1920~1930년대,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엽서 봉피(封皮:물건을 싸는 종이)와 함께 당시 인기하던 아리랑 여덟 곡의 가사를 기생의 모습과 함께 담은 엽서 세트.

유물 설명 참고 문헌 : 아리랑-The Soul of Korea(2013년, 일본국립민속학박물관) 전시 도록.



«AH-DEE-DONG 악보»(139×315mm, 1954년,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뉴욕 'SEQUOIA MUSIC COMPANY'에서 제작한 아리랑 악보로, '아리랑'을 'AH-DEE-DONG(아디동)'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유포(UP)통신사 기자로 있던 스탠리 리치(Stanley Rich)가 가사를 쓰고 빅 해링턴(Vic Harrington)이 편곡해 엘리 윌리엄즈(Elly Williams)가 부른 아리랑이 실려 있다. 재킷 표지에는 한국 시골마을 정경을 담았다.



«명작 시나리오 선집»(180×252×6mm, 1957년,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나운규 원작 영화 '아리랑'을 김소동 감독이 각색한 영화 '아리랑'의 시나리오가 수록되어 있다.



왼쪽: 아리랑 EP음반(1960년대,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패티김이 컬럼비아레코드에서 취입한, '아리랑'과 '도라지'가 담긴 EP음반이다 일본인들이 아리랑을 대중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한일국교수립(1965년) 직전인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패티김을 시작으로 한국 가수들이 일본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패티김은 한국 가수 최초로 일본 NHK에 출연했고, 이듬해 이 음반을 제작했다.
 오른쪽: 아리랑 EP음반(1961년,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빅타레코드에서 출판한 '김치캣' 음반. 김치캣은 부산사범대 출신 박영수와 이화여대를 중퇴한 김영기가 만든 듀엣으로, 미8군소에서 데뷔해 히트곡을 이어가다 큰 명성을 얻은 뒤, 패티김에 이어 일본 무대에 진출했다. 일본에는 아직도 이들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다.



«아리랑 임시 증간호(일본소설선)»(145×188×20mm, 1960년,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서울 삼중당에서 펴낸 '아리랑' 임시 증간호, 1965년 한일수교에 앞서 일본 문학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특별호로 발행한 책으로 일본 작가 작품 17편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



'아리랑 낭랑' 가사(11.5×6mm, 1950년,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포켓용 유행가 책에 실린 '아리랑 낭랑' 가사.

“아리랑은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저절로 부르게 되는 그런 노래이며, 시키지 않아도 어깨 너머로 전해지는 소통의 노래다. 특히 정신아리랑은 한을 초월하고 이를 신명으로 승화하는 소리이다. 인생이 한스럽고 고달파 노래를 하지만, 막상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 고단한 일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탈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 소리이다.”

‘함백역 아리랑’을 아시나요?

1957년부터 2006년까지, 탄광으로 대표되는 함백 지역의 성쇠를 고스란히 지켜봐온 함백역도 진용선에게 또 다른 아리랑이다. 함백탄광이 폐광되고 역의 임무도 다했다지만, 함백역은 여전히 ‘추억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의 종착역’이었다. 석탄산업화시대를 대표하는 이 근대문화유산 곳곳엔 광원과 그 가족들의 애환이 아리랑 가락에 얹혀 뒬뒬히 흐르고 있었다.

“그런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처음엔 황당했다. 작지만 소중한 추억이 공문서 몇 장 오간 끝에 이렇게 허망하게 철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아연했다. 비록 누추하고 허름한 풍경일망정 지역 주민들에게는 승례문 보다 더 소중한 문화재인데, 매일 보던 그것이 없다는 사실에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다. 그래서 복원을 하자고 뜻을 모았다. 관심없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 천 원짜리 지폐를 들고 오는 아이도 있었고, 벽돌 1만 장을 쾌척한 이도 있었으며, 그 벽돌을 쌓아가는 이도 있었다.”

진 소장은 그것이 바로 아리랑 정신이라고 강조한다. 나 하나로부터 시작해 모두가 하나 되는 대동정신. 함백 사람들의 ‘함백역 아리랑’은 그렇게 755일간의 산고 끝에 사라진 ‘역사’를 복원했고, 추억을 더듬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복원된 역사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콘텐츠였고, 지난 세월의 기억을 간직한 타임캡슐이었다. 그런 사연을 안 국가기록원에서는 함백을 ‘기록사랑마을 제1호’로 지정했다.

아프리카 아리랑을 기다리며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 냄새’를 그리워한다. 인정이 있고 나눔이 있고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을 희구하는 것이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캄캄하고 당장의 고단함을 어찌진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희망을 애기하며 저만의 아리랑을 흥얼거린다. 길을 걸으며, 밭을 매며, 운전을 하며, 혹은 아이를 업어 재우며 가슴에 맺힌 것을 무심결에 풀어내고 이제 곧 다가올 행복을 노래한다. 어찌면 진용선에게 주변 모든 게 아리랑일지 모르겠다. 철거된 함백역을 755일 만에 복원한 것은 ‘함백역 아리랑’이고, 새벽 3~4시까지 일에 몰두하느라 온 저혈당 쇼크를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로 극복한 것은 ‘전화위복 아리랑’이다. 아리랑의 역사성과 가치와 기록을 보존하고 전세계에 퍼져 있는 아리랑 원천 자료를 찾아 연구하고 활용하는 데 남은 생도 바치려는 진용선 소장. 여전히 어디서 ‘아리~’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뒹다는 그가 다음번에 넘어야 할 ‘아리랑 고개’는 아프리카 어디쯤 초원을 지나는 길목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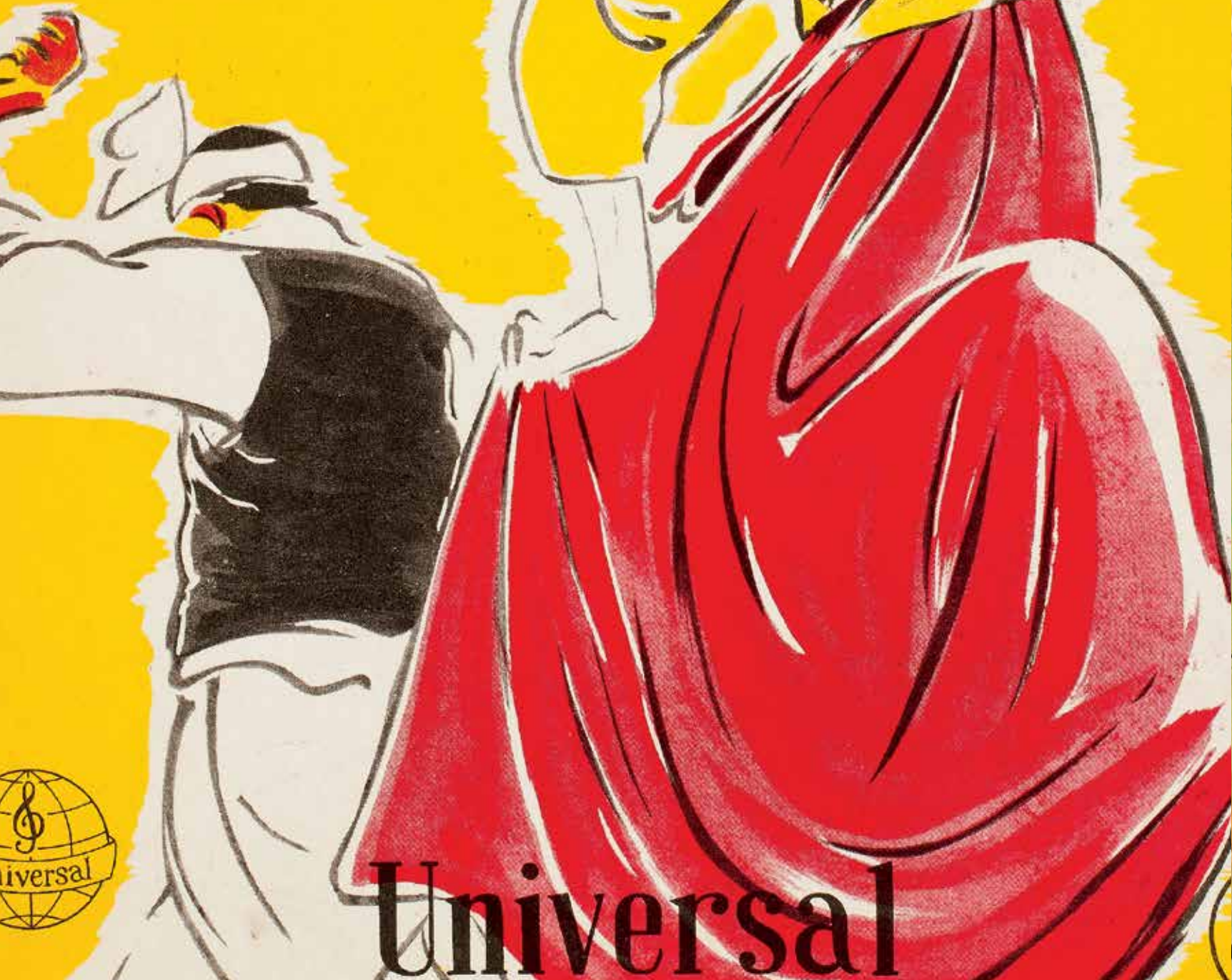
아리랑 EP음반 <재킷 일부 (7inch, 1955년, 일본 콜롬비아레코드 제작, 정신아리랑연구소 소장)

한국민요 VOL. I

KOREAN FOLK SONGS

아리랑 ARIRANG
봉산타령 OBONGSAN TAHRYUNG
양아리랑 MIRYANG ARIRANG
명가 TAE PYUNG GAI

라지 DO RA JI
추년가 POONG NYUN GAI
화타령 MAEHWA TAHRYUNG
성남봉가 KAESUNG NAM BONG GAI



Universal



〈한국민요 1집 LP음반〉 재킷 일부(12inch, 1950년대 후반,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아리랑 고개넘어 LP음반〉 재킷 일부(10inch, 1960년대,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アラン峠を越えて



ン歌鈴鈴
ルナ辺カ山
ンギ

ド服部
ケストラ

ビレコー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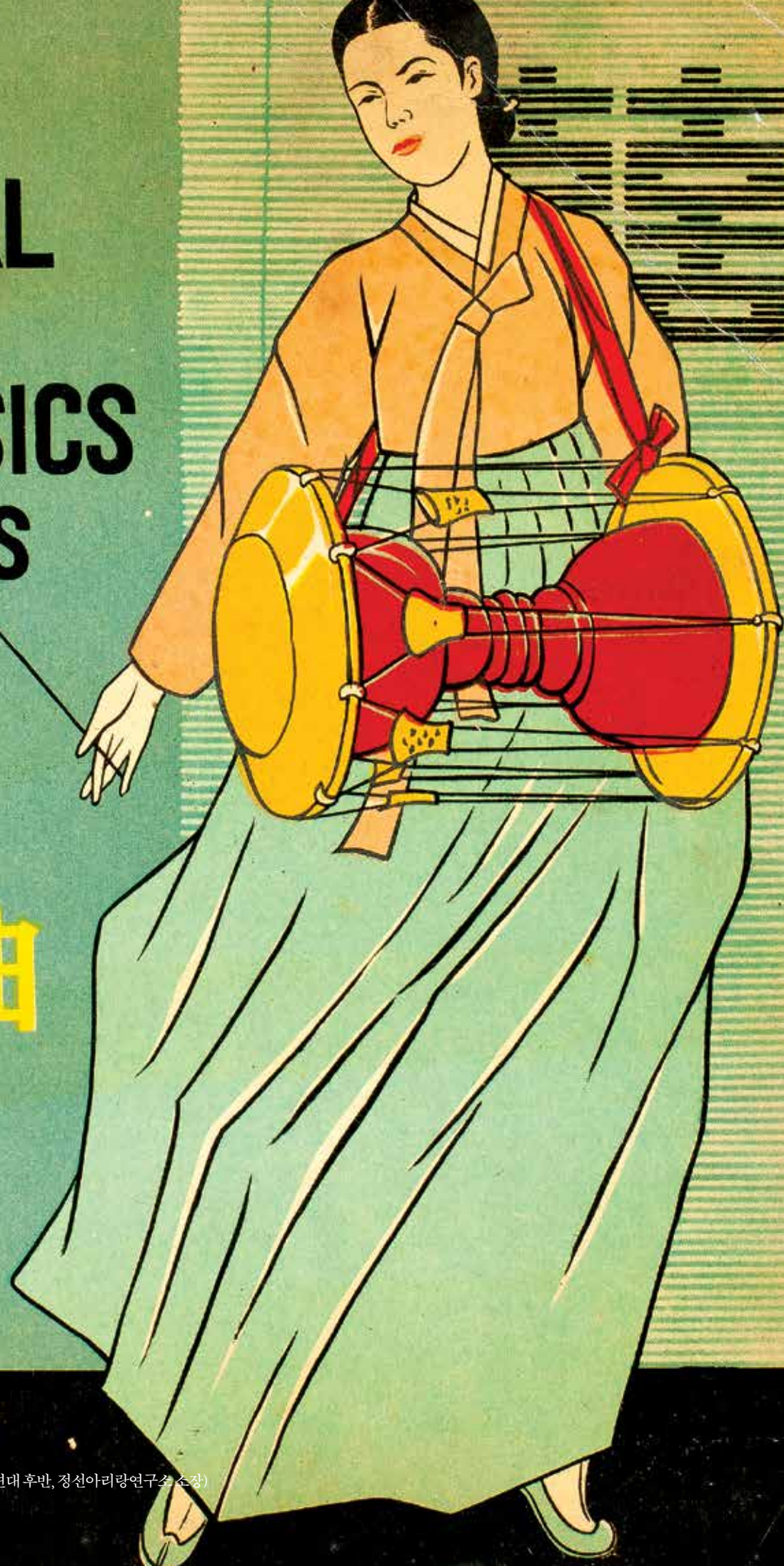
KSM-70071

ADDITIONAL
KOREAN
DANCE MUSICS
INSTRUMENTALS
Vol 1

韓國
典舞踊曲
特輯
第1集

킹스타-民俗國樂團

(한국고전무용곡특집 제1집 LP음반 재킷 일부 (10inch, 1950년대 후반, 정신아리랑연구소 소장))



orean
Folk Songs

Selected Refinedly Vol.1

國民謠特集

第一集

玉心
銀珠

(한국민요특집 제1집 LP음반 재킷 일부 (10inch, 1959년, 정신아리랑연구소 소장))

스타-韓洋合奏團



‘검은
민들레꽃’

검은 먼지
풀풀

석탄
운반길,

반공중에

푸른
하늘길로
두둥실
걸렸네

글: 김화성
동아일보 스포츠 기자.
스포츠나 건기뿐 아니라
글, 술, 음식, 꽃, 나무 등에
두루 해박해 지인들은
그를 ‘여러 문제 연구소장’
이라 부른다. «책에 취해
놀다», «전주에서 놀다»,
«길 위에서 놀다», «꽃밥» 등
여러 권의 저서가 있다.

사진: 김도형
홍익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에서 사진디자인을
전공했다. 스튜디오
에이 파트(Studio A Part)의
실장으로 다양한
패션지와 화보 작업을
하고 있다.



함백산과 백운산의 단면을 상상해보신 적 있습니까?

강원도의 백운산(1,426미터)~함백산(1,573미터)은 ‘불의 산’이다. 온몸이 이글이글 불덩어리다. 몸속에 ‘수십억 년 뭉치고 다진’ 불씨 석탄이 한아름 가득이다. 고생대에 나무와 풀 그리고 동물들이 셀 수 없이 쌓이고 또 다져져 검은 화석덩이로 남았다. 1960~80년대 이곳은 대한민국의 ‘No. 1’ 에너지 공급처였다. 대한민국의 엔진이자 심장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산자락 곳곳에 휘뚜루마뚜루 구멍을 뚫고 석탄을 캐고 실어내기에 바빴다. 봄날 고로쇠나무 줄기 수관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박는 것이 이렇다. 수평굴은 물론, 땅밑 수직으로도 800~900미터까지 이르렀다. 바닥이 드러날수록 ‘더 멀리, 더 깊이’ 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갱이 무너져 인명사고가 잇따랐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그러나 어쨌든 고도성장 대한민국은 그 석탄으로 전기를 만들고, 공장을 돌리고, 구들장을 뜨끈하게 달궜다. 나중이야 삼수갑산을 갈망정, 한동안 빗잔치하듯 석탄을 파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신문엔 연일 ‘지하 셋방 일가족 5명 연탄중독 사망’ 같은 기사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 대한민국 사람치고 한두번썸 연탄가스 마시고 머리가 멍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때 역사학자로 이름났던 홍이섭 박사(1914~1974)도 연탄가스 중독으로 눈을 감았다. ‘연탄가스엔 식초나 동치미 국물이 좋다’는 소문에 신세벽 한두 사발씩 벌컥벌컥 마셔보지 않은 사람도 드물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사에 따르면 1953년부터 1981년까지 28년 동안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은 사람은 무려 6만 명, 한 번이라도 중독된 사람은 294만 명에 이른다. 만약 오늘날 함백산, 백운산을 무처럼 도마 위에 놓고 썰다면 그 단면은 어떤 모양일까. 구멍 숭숭 뚫린 연밥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온몸이 구멍 투성이인 벌집 모양일지도 모른다. 함백산, 백운산 산허리에는 아직도 군데군데 검버섯이 피어있다. 검은 버럭더미들이 덩부렁듬쭙 흩어져 있다. 굴 천정을 떠받쳤던 갱목들은 삐죽삐죽 앙상하게 뻗쳐 있다. 그 사이에 푸른 풀과 나무들이 다문다문 검은 흙을 덮고 있다. 문득 광원 출신 정일남 시인의 노랫소리가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인간 세상은 이상고온, 들꽃 세상은 아직 봄

초여름날 함백산~백운산 운탄길(運炭路; 석탄 운반길)을 걸었다. 역시 ‘높은 하늘길’ 이었다. 운탄길은 아직 봄이었다. 연둣빛 나뭇잎들이 막 돋아나고 있었다. 연철쭃꽃이 피어나고, 풀꽃들도 노란 민들레꽃이나 미나리아재비꽃 정도를 빼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빠꼭! 빠빠~꼭!” 짝을 못 찾은 수컷 빠꼭새가 지리산가리산 구슬프게 울어댔다. 저승어디에서 우는 듯, 한순간 혼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듯 했다. “구구~ 구구~” 암컷을 부르는 수컷 멧비둘기의 몽툭한 울음소리도 절절했다. 운탄길은 산잔등, 산허리(해발평균 960미터)에 2백 리(80킬로미터)나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었다. 검은 흙길은 비와 바람에 씻기고 이제 그 길에는 온갖 야생화가 피고 진다.

여긴 어느 세기의 복판인가
누가 물어버린 세기리니
캄캄한 지층 틈 사이에서
내가 만난 고생대의 하늘이
처음으로 열린다

：

한 광부가 매몰되기 전에
이미 저것들은 매몰되어 있었다
하늘과 바다와 산맥이
이 깊은 지층 캄캄한 갱 속에
매몰되어 있었거니
오늘도 위태한 갱 속에서
누가 물어버린 고생대를
한 광부가 조금씩 캐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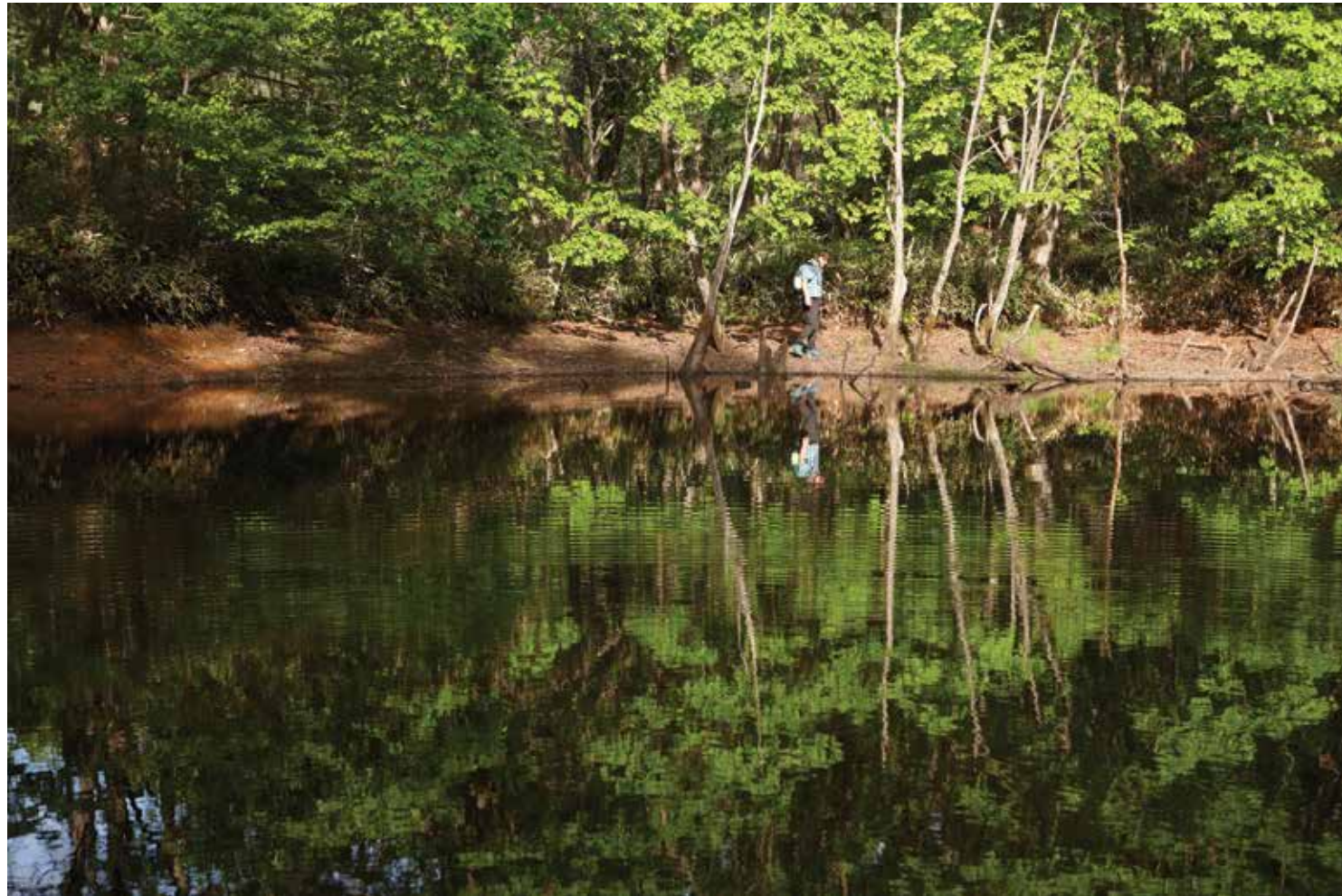
정일남, 〈어느 갱 속에서〉 중에서

화절령~만항재 구간(20킬로미터)은 평탄한 하늘길이다. 백운산, 함백산 어췌죽지를 즈려밟고 가는 구름길이다. 느릿느릿 걸어도 6시간이면 충분하다. 강원랜드호텔 폭포 주차장에서 출발해도 되고 아니면 맞은편 만항재에서 시작해도 된다. 보통은 중간쯤인 하이원골프장 뒤편에서 끼어들어 화절령을 지나 강원랜드호텔 폭포 주차장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거리가 10여킬로미터 정도라 가볍게 걸을 만하다. 하늘길은 강원랜드 카지노, 하이원콘도, 하이원골프장을 끼고 빙 돌아간다. 새벽이나 비가 축축이 내릴 때 걸어야 제맛이다. 안개가 발아래 골짜기에서 끊임없이 는실는실 피어오른다. 문득 동살이 터오면 첩첩 산들의 산주름이 아슴아슴 황홀하다.

화절령(花折嶺)은 ‘꽃을 꺾는 고개’이다. 이곳 사람들은 ‘꽃꺼끼재’라고 부른다. 옛날 봄이 되면, 지천으로 핀 진달래 철쭉꽃을 꺾으러 너도나도 이 곳을 찾았다던가. ‘꽃이 꺾일 정도로 바람이 세서 붙은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온갖 들꽃들이 피고 진다. 화절령 삼거리 부근엔 도롱이와 아롱이 연못이 있다. 갱이 무너져 생긴 습지이다. 산아래 땅이 느닷없이 꺼지자, 위쪽 땅도 엉겁결에 움푹 패어 들어가 연못이 된 것이다. 당시 거기에 살던 키 큰 나무들도 뿌리가 들떠서 죽었다. 죽은 나무들은 병풍처럼 서 있거나, 늪 속에 그대로 누워, 오래된 흑백사진이 됐다. 도롱이 아롱이 연못엔 도롱뇽이 산다. 노루, 멧돼지, 사슴 등 산짐승들이 목을 축이고 가는 곳이다. 광원 부인들이 이곳에 와서 남편이 ‘오늘도 무사하기’를 빌었다. 도롱뇽이 많이 보이면 길조로 여겼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날엔 애간장을 태웠다.

이 길은 강원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로 꼽힌다. 화절령 구간은 특히 아름다워, '하늘길'로 불린다. 이 길은 강원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로 꼽힌다. 화절령 구간은 특히 아름다워, '하늘길'로 불린다. 이 길은 강원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로 꼽힌다. 화절령 구간은 특히 아름다워, '하늘길'로 불린다.





낮이면 들꽃, 밤이면 별꽃이 피고 지는 산상 화원 ‘만항재’

만항재(1,330미터)는 아스팔트길을 따라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이다. 지리산 정령치(1,172미터)나 강원 평창~홍천 사이의 운두령(1,089미터)보다 높다. 태백시-정선 고한-영월 상등이 만나는 삼거리고개이다. 한밤 만항재에 오르면 하늘의 별들이 우박처럼 이마에 박힌다. 만항재 산자락 10만여 평은 들꽃 천지다. 철따라 3천여 종이나 되는 야생화가 피고 진다. 매년 7~8월이면 야생화 축제가 열린다. 만항재에서 함백산에 이르는 3.4킬로미터 능선도 풀꽃 길이다. 만항재 아래 정암사(淨巖寺)는 ‘광원들의 기원도량’이다. 광원들이 힘들 때마다 이곳을 찾았다. 양산 통도사,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상원사적멸보궁, 영월 법흥사와 함께 5대 적멸보궁의 하나다. 5개 사찰 모두 부처님 사리를 모신 절집이라 대웅전에 불상이 없다. 정암사는 단아하고 정갈하다. 아늑하고 소박하다. 부처님 정골 사리를 절 뒤편 수마노탑(보물 제410호)에 모셨다. 열목어(천연기념물 제73호) 서식지의 남방 한계 지역이기도 하다. 자장율사의 지팡이가 썩을 틈었다는 주목(수령 1,300년)도 있다. 함백산은 남한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산이다. 한라산(해발 1,950미터), 지리산(해발 1,915미터), 설악산(해발 1,708미터), 덕유산(해발 1,614미터), 계방산(해발 1,577미터) 다음이다. 자동차로 산꼭대기까지 갈 수 있다. 전망이 그만이다.





그러니, 운탄길 냇물에 목 축이며 옛 얘기할 날도 오겠지요, 곧

운탄길 길섶 냇물엔아직도 폐광에서 침출수가 진물처럼 흘러나온다. 언뜻 보기엔 맑지만 손을 대거나 마시면 큰일 난다. 그 진물은 일단 자연 정화 시설에 모여 걸러진다. 부들 같은 풀들이 독성을 중화시킨다. 하지만 직사각형의 시멘트 정화 시설은 거무튀튀한 쇠물 자국으로 시뻘썩다. 중금속 잔액이 시멘트 바닥에 누런 가래처럼 가라앉아 있다. 바닥이 하얀더께로 덮여 있는 곳도 있다. 요즘도 장마철이면 하루 최대 3만 톤의 정화되지 않은 침출수가 옛 사북광업소 갱내에서 쏟아져 내린다. 그 물은 그대로 정선 지장천(동남천, 48킬로미터)을 거쳐 동강으로 흘러들어간다. 정화 시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토지 보상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는 게 기관의 답이다.

1970년대 중반쯤 정선·태백 광원들은 삼겹살을 슬레이트 판 위에 올려놓고 모닥불에 구워먹기 시작했다. 기름 많은 삼겹살이 목구멍에 달라붙은 검은 먼지를 벗겨준다 믿었다. 몸속의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배출해준다고도 했다. 어쨌거나 맛이 죽여줬다. 슬레이트 주름에 삼겹살을 올려놓으면 기름이 골골마다 기가 막히게 잘 빠졌다. 마른 슬레이트 판은 물먹는 솜처럼 기름을 흡벽흡벽 빨아들이기까지 했다. 1980년 초반쯤엔 삼겹살구이도 진화했다. 광원들은 주변에 흔한 데다 불땀 좋은 석탄불로 삼겹살을 구웠다. 불판도 화학 물질이 나와 안 좋다는 슬레이트 대신 무쇠 불판으로 바꿨다. 그렇게 그들을 키운 건 ‘팔 할이 소주와 삼겹살’이었다.(삼겹살은 입소문을 타고 슬슬 다른 곳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결국 1980년대 중반쯤 전국 산하에 삼겹살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1994년 ‘삼겹살’이란 단어가 국어사전에 올랐다.)

탄광촌 사람들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초등학교도 하나 둘 문을 닫았다. 흥청대던 시장통도 순식간에 먼지만 폴폴 날렸다. 하지만 나무와 풀은 그곳에 뿌리를 박고 끈질기게 생명의 씨앗을 뿌렸다. 산짐승과 풀벌레들은 부지런히 둥지를 치고 새끼를 길렀다. 이제 운탄길은 ‘생명의 길, 초록의 길’로 바뀌었다. 그것은 순전히 억세게 목숨 줄을 이어온 못 생명들의 덕택이었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아라리, 아라리요’ 하면서 느긋하고 끈질기게 버틴 그들의 힘이였다. 결코 ‘영감은 할멈 치고, 할멈은 아치고, 아는 개 치고, 개는 꼬리 치고, 꼬리는 마당 치고, 마당가역에 수양버들은 바람을 휘몰아치는데~, 그래도 낮잠만 자는 우리 집 멍텅구리 인간’ 덕분은 아니었다. **■**

빛물에 빠인 자국 따라
까만 물 흐르는 길을
하느님도 걸어오실까요

골목길 돌고 돌아 산과 맞닿는 곳
앉은뱅이 두 칸 방 우리 집까지
하느님도 걸어오실까요

한밤중,
라면 두 개 싸들고
막장까지 가야 하는 아버지 길에
하느님은 정말로 함께 하실까요

임길택(1952~1997),
『아버지 걸으시는 길』 전문

조선 말 정선군수 오횡묵,

기록이 일상인 사람들이
있다. 고종으로부터
광산 개발 임무를 받고
1887년 봄부터 이듬 해
여름까지 정선군수로
일했던 오횡묵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이다.
그 기록을 따라
옛사람들이 ‘도원
(桃源)’이라 불렀던
120여 년 전 정선을
상상해본다.

글:안대회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궁극의 시학»,
«고전 산문 산책»,
«정조치세어록», «선비답게
산다는 것», «조선의
사로잡은 끈들» 등의 저서와
«궁핍한 날의 벗», «북학의»
등의 번역서 및 다수의
공저를 통해 조선 후기
한문학을 당대의 언어로
풀어내어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 일기에 그려진

정선 풍경



오횡묵(鳴弘默) «정선총쇄록(旌善叢瑣錄)»
1888~1889년, 18 × 26.6 cm,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

백 개의 구비마다
물이 흐르고,
천 층의 높이로
절벽이 서 있네.
百曲流川
千層絶壁

위 구절은 정선군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정선군 ‘형승(形勝)’조에 표제어로 올라
있다. 정선군은 강원도 오지이자 아라리의 고장, 폐광촌, 그리고
카지노의 이미지가 공존하는 곳이다. 그야말로 최근 백 년 사이에
생겨난 이미지이다. 그러나 산수가 험준한 오지라는 이미지는
조선시대에도 다를 바 없었다.
내 기억 속에는 겸재(謙齋) 정선(鄭澈, 1676~1795)이 화암팔경
(畵岩八景; 정선군 화암면 일대의 여덟 명승지) 가운데 하나인
‘화표주(華表柱)’를 그린 그림 하나가 또렷하다. 화암면의 화포동
입구 절벽 위에 뾰족하게 서 있는 두 개의 돌기둥은 산신들이
신들을 걸고 짚신을 삼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명승이다. 그
그림에는 “신선도 인간의 감정이 있나 보다(仙亦有情)”라는
의미심장한 화평이 달려 있다. 하늘로 솟구친 기둥 아래서 짚신을
삼는 신선들의 전설에는 선계와 인간과 가난이란 여러 이미지가
겹쳐 있다. 정선의 별칭이 ‘도원(桃源)’이다. 동양의 이상 세계,
무릉도원의 그도원이다. 인간계에 실현된 선계, 그것이 정선에
대한 옛사람의 느낌이다.

어느 지방관의 근무 일지

정선에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각인되어 있다. 구한말의 무인이자
시인인 채원(菴園) 오횡묵(鳴弘默, 1834~?)이다. 정선군수를
거쳐 자인(慈仁), 고성(固城), 함안(咸安) 등 여러 지방의 수령을
지냈다. 오횡묵은 명문가 출신의 대단한 명사는 아니나 구한말
혼란기에 꼭 기억할 만한 행적을 남긴, 빼어난 지방관이었다.
그는 부임하는 곳마다 상세한 기록을 남겼는데, 당시 일반
관료의 것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사진 이상으로 세밀하게
부임지의 전모를 포착하였다. 그 방대한 기록은 정선군에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른바 «정선총쇄록(旌善叢瑣錄)»
이다. 자질구레한 것을 모두 모아 기록했다는 뜻의 ‘총쇄록’이란
명칭에서 기록 정신이 엿보인다. 채색 지도와 218수의 시, 십여
편의 산문을 포함해 모두 119장 238면의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다.



겸재 정선(謙齋 鄭叡) 〈화표주(華表柱)〉, 23 × 30 cm,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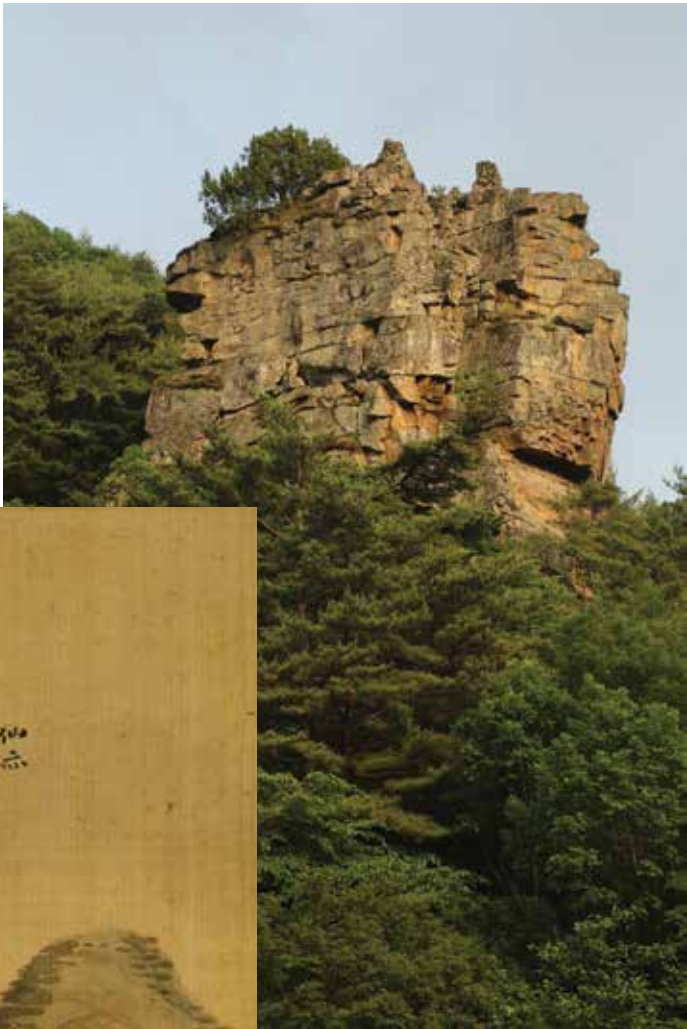


Photo © Park Jeonghoon

54세의 무관, 정선 광산 개발의 특명을 받다

무관 출신인 오형묵은 서울에서 실무 관료로 봉직하고 있었다. 고종 24년인 1887년 3월, 왕은 박문국(博文局; 1883년 문을 연 조선 최초의 근대식 인쇄소이자 출판 기관)에서 주사(主事)로 일하던 그를 불렀다. 정선군수로 내려 보낼 테니 채광 업무를 특별히 유념하라는 지시였다. 첫 지방관 발령이었다. 오형묵은 그즈음 백부가 돌아간 탓에 초상을 치르고 다음달 9일 부임 길에 올랐다. 강원도 행정의 중심이었던 원주 감영에 들러 감사에게 부임 인사를 했다. 원주 감영을 둘러보고 그 건물도 묘사했는데, 남아 있는 감영 묘사 가운데 가장 자세하다. 19일, 오형묵은 평창에서 정선으로 들어가는 가리왕산의 벽파령(碧波嶺; 일명 벨패재)을 넘었다. 삼림이 우거진 이 고갯길은 “위로는 깎은 듯한 벼랑이 내리누르고, 아래로는 작은 강이 팔팔 내려가며, 돌길은 실낱 같아 말을 타기가 어려웠다.” 오형묵은 인부가 힘들까봐 직접 걸어서 고개를 넘었다. 관아에 도착하여 도임상(到任床; 지방 관리가 도임했을 때 대접하기 위해 차리는 음식상)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오형묵은 이후 1년 5개월 동안 중간에 서너 차례 고종을 알현하기 위해 서울에 다녀온 외에는 열의를 갖고 지방을 다스렸다. 열성적으로 행정을 펼친 내용은 «충쇄록»에도 잘 나타나지만 객관적인 증거도 남아 있다. 이는 뒤에 살펴보자.

“풍년이라도 밥의 반은 상수리와 감자, 겨울에도 삼베옷뿐”

오형묵의 눈에 비친 정선은 인구가 적고 살 곳이 없어 절벽에 매달아 집을 짓고 사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고을이었다. 듣던 바와 다름이 없었다. 1887년 9월 6일 감사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약간의 전토는 척박한 자갈땅이 아닌 데가 없고, 논은 전무하다시피 하여 생계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 밖의 산업도 매우 황폐하여, 식량은 아무리 풍년이라도 상수리와 감자가 절반이 넘는 밥을 먹고, 의복은 엄동설한이라도 다닥다닥 꿰맨 삼베옷뿐입니다.”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오형묵은 군민에게 농사를 적극 권장하여 상황을 호전시키려 애썼다. 정부에는 세금과 공물을 줄여 달라 요청하여 일부 탕감을 받았다. 진상용 녹용을 얻고자 사냥꾼을 3개 패(牌)로 나누어 선물까지 주어가며 독려하였다. 군민들은 그의 노력에 호응하여 적잖은 성과도 거뒀다. 잡은 사슴의 생피를 먹기위해 사람들은 정선으로 들어왔고, 본인도 건강을 생각하여 ‘음홍(飲紅)’이라며 선홍빛 사슴피를 먹었다. 원주 감영에서는 정선 특산물이라는 만병초(萬病草) 채취를 지시하기도 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광산이다. 근대 이후 정선은 광업이 크게 번성한 대표 지역이다. 그 정선에 광산 개발이 고개를 드는 현황이 오형묵의 행정 활동에 잘 보인다. 지금의 사북읍과 고한읍 일대가 그 현장이다. 광부들이 함경도에서까지 유입되어 새로운 산업의 열기가 느껴진다. 그는 고종이 당부한대로 도임 이후 광산 지역에 관리를 파견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사금과 은, 구리와 석탄 등의 광맥을 찾아 연군(鉛軍)이라 불리는 광부를 모집하고 채굴하도록 독려하였다. 다음해 5월 10일에는 미천(米川)의 광산에 직접 가서 국가의 사업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훈시까지 하였다. 또 채광과 폐광의 현황을 시찰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서울의 광무국(鑛務局)에 보고하였다.

정선의 별칭은 도원이라

오형묵은 군수로서의 업무 외에도 정선의 풍경과 명승고적 등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집요하리만큼 꼼꼼하게 기록했다. 정선을 집중적으로 묘사한 옛 문헌이 많지 않은 실정에서 그의 기록은 너무도 자세하여 감탄스럽기만 하다.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은 정선 관아와 읍내의 현황 및 풍경을 그린 것이다. 그가 정문 공북문(拱北門)을 들어서자 관아는 도원의 고장에 어울리게 하나같이 그와 연관된 이름이 걸려 있었다. 객사는 도원관(桃源館)이고, 세 개의 문에는 도원선위지부(桃源仙尉之府), 동헌은 범도헌(泛桃軒), 청사 위쪽에는 심원당(心遠堂), 도화유수관(桃花流水館)이 걸려 있었다. 모두 무릉도원의 신화를 만든 문인 도연명(陶淵明)의 작품에서 가져온 것으로 속세와 멀리 떨어진 선계임을 뜻하는 말이다. 첩첩산중에 물이 많은 지형은 외지인이 무릉도원으로 여길 법도 하다. 정선군수가 무릉도원을 다스리는 신선계의 태수로 탈바꿈한 셈이다. 그러나 관아의 곳곳을 둘러보니, 이름과는 달리 퇴락하여 사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규모가 작아 선계의 낭만을 즐길 기분이 나지 않았다. 문루(門樓)는 몇 십 년 전에 허물어져 흔적도 없었다. 사슴 사냥에 필요한 화약을 내기 위해 군기고를 점검해보니 위급 상황에 대처할 무기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관아가 도무지 제 꼴이 아니었다. 도원이라는 별칭과 달리 맞닥뜨린 선계의 현실은 너무 열악했다.

오횡묵은 관아를 벗어나 의풍정(倚風亭), 애산정(愛山亭) 등 읍내의 누정을 자주 찾았다. 그중에서도 자주 찾은 곳이 의풍정이다. 관아에서 남쪽으로 백 걸음 떨어진 강변에 위치한 정자로 여섯 칸 되는 작은 규모였고, 현판에는 의풍정, 열무당(閱武堂), 부민헌(阜民軒) 세 개가 걸려 있었다. 관아에서 가까운 데다 풍경이 아름답고 넓어서 그가 자주 군민들과 어울렸던 정자이다. 바람을 쏘인다는 의풍정이나 병사를 사열한다는 열무당, 백성들을 모이게 한다는 부민헌의 이름에서 이 정자들이 단순히 풍경만을 감상하던 곳이 아니라 군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장소였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 정선 읍내에는 무릉도원을 고을의 상징으로 여겼고, 산수와 정자도 그 분위기를 갖추고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지금은 관아의 여러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의풍정을 비롯한 옛 누정 거의 모두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애산정은 정선읍에 애산리라는 마을 이름이 남아 있고 정선아리랑을 기념하는 아라리촌으로 탈바꿈하였다.

도입 1여 년 만에 정선 유람을 나서다

«정선총쇄록»을 보면, 뜻밖에도 군수로 1년 반 정도를 근무하는 동안에 오횡묵의 동선이 읍내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의욕을 갖고 행정을 편 것에 비하면 직접 다닌 곳은 관아에서 멀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오횡묵이 정선 특유의 산천을 제대로 유람한 것은 1888년 5월이었다. 병을 며칠 앓고 난 뒤 기분도 전환할 겸 5월 7일부터 10일까지 현재의 고한읍과 사북읍 일대를 두루 탐방하고 시찰하였다. 태백산 자락에 있는 정암사(淨巖寺)를 탐방하는 것이 일차 목적이었다. 월정사(月精寺)의 말사로 신라의 자장율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1년 전 이 절에서 정선군민이 고종의 장수를 빌었고 오횡묵은 그 사실을 직접 고종에게 보고하였다.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천년고찰이라 그도 꼭 들러보고 싶었다. 오횡묵은 절에서 한 께짝에 들어 있는 자장율사의 가사와 그가 읽었다는 불경, 그리고 수마노탑과 자장이 심었다는 주목 등을 두루 보았다. 이는 지금도 그 절에서 역사를 자랑하는 풍경이다. 오횡묵은 정암사의 승려로부터 순흥(順興) 법흥사(法興寺)에서 선정에 들어 있던 자장율사 앞에서 뽀어나간 칠닝쿨이 태백산을 넘어 멈춘 곳에 정암사를 세운 것이며, 그래서 갈래사(葛來寺)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설화를 들었다(이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비슷한 사찰연기설화가 전해진다). 그런 다음에는 절에서 20리 떨어진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潢池)를 드리고 싶었으나 너무 험하다는 승려들의 말을 듣고 뜻을 꺾었다.

한편 오횡묵은 절의 암자에서 뜻밖에도 청화(淸華)대사란 승려를 만났다. 20년 전 춘천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었다. 속명은 김명희(金明熙)로 칠송정시사(七松亭詩社)의 핵심 멤버였던 김희령(金義齡)의 아들이다. 이 집안은 할아버지 김낙서(金洛瑞)때부터 여향인 시단에서 유명했다. 대사는 수십 년 전부터 전국을 방랑하며 승려나 문사와 어울리다가 법력이 높은 고승이 되어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오횡묵은 시사의 동인으로 함께 어울린 처지라 승려가 되어 깊은 산중에 머무는 그의 운명에 가슴이 아팠다. 절을 나온 그는 상함박, 중함박, 하함박을 두루 탐방하고 그곳 광부들을 모아 혼시켰다. 지금은 함백산으로 이름이 바뀐 곳이다. 또 우암(牛巖), 조연(槽淵), 불연(佛淵), 3년에 한번씩 벌목하는 황장목 소나무밭, 영남으로 통하는 화절령(花折嶺), 마름터[솔音垜], 몰운대(沒雲臺), 수출리(水出里), 백운대(白雲臺), 화포주, 백학동(白鶴洞), 소금강(小金剛) 등을 두루 구경하였다. 지금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만인산으로 남은 선정의 흔적

오횡묵은 8월 23일까지 근무하고 경상도 자인현감으로 전직하였다. 자인현감인 이규학(李圭學)과 자리를 맞바꾼 것이다. 오횡묵은 재직 중에 선정을 배푼 군수로 인정받아 군민들로부터 만인산(萬人傘)을 받았다. 이것은 고을 사람들이 공덕을 기리며 감사의 표시로 바치는 일산(日傘; 큰 양산)으로 비단에 전 고을 사람의 이름을 수놓았기에 수산(繡傘)이라고도 한다. 영광스러운 일이나 선정비처럼 상투적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횡묵을 이어 정선군수가 된 이규학이 1년 반 만에 군민의 봉기로 축출된 것을 보면 그가 받은 만인산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정선아리랑의 여러 가지 유래 가운데는 오횡묵의 부인이 정선과 평창을 잇는 험준한 성마령(星摩嶺) 고개를 넘는 과정에서 아라리가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다. 사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구한말 이래 급변한 정선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중요한 고리가 오횡묵의 행적에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H**



오횡묵(鳴宏默)의 «정선총쇄록(旌善叢瑣錄)» 첫 장에 실린 채색 지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 당시 정선군 경내의 읍면리 위치와 산과 강, 사찰과 누정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남기고, 가져갈 것 없는

저 무욕의 땅

글 : 임윤혁
자유기고가. 지역 문화와
풍물을 들여다보는 일과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듣는
일을 즐긴다. ‘뿌리깊은나무’
에서 나온 인문지리서
《한국의 발견》 증보판을
내는 것이 일생의 목표다.
농촌 지역 문화에 관심이
많아 (사)도농문화콘텐츠
연구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사진 : 박정훈

차창을 사이에 두고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지는 풍경 대신
사람을 만나러 길을
나섰다. 정선 끝자락
임계면에서 시작한
여정은 골 깊은
산골마을들을 지나
태백 매봉산 자락의
고랭지 채소밭으로,
폐광의 그늘을 지워가는
고한과 철암으로
이어졌다.



“그나마 메밀이나 옥수수도
넉넉지 않아서 알곡 조금에
감자나 곤드레나물 넣고 양을
부풀리거나, 까끌까끌한
귀리죽을 끓여 먹었드랬어요.
그래도 정월 초하루 같은
때는 채만두를 만들어 동네
어른들께 인사 다니며
숨씨 자랑도 하고 했어.
납작만두라고도 했는데,
메밀로 만든 만두피에
고기는 넣지 않고 묵나물이나
갓김치에 두부, 들깨가루,
마늘 같은 걸 다져넣고 찌서
들기름을 발라 물김치랑 먹는
맛이 별미래요. 지금은 다 보기
힘들어진 음식이지 뭐.”
(유씨 할머니)

정선과 태백은 대덕산 함백산 태백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맥의 줄기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어 영서와 영동으로 나뉘기도
하나, 지역 정서나 지형 특질 등이 비슷해
여러 면에서 공통분모가 많은 곳이다.
당연히 기질적인 부분이 유사했고 거기서
파생한 언어적, 문화적, 주거적, 신앙적
동질성은 두 지역의 경계를 가르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높고 험한 고개가 많은 정선과 태백에는
예로부터 고갯마루마다 호환(虎患)
을 당한 이들의 돌무덤인 ‘호식총’이
많았는데, 이 호식총에 시루를 덮고
부지깽이를 찢러 넣어 창귀(호랑이에
물려 죽은 귀신)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막는 풍습이 있었다. 사람들은 창귀가
호랑이에게 다른 먹이를 물고 가또 다른
희생을 유발한다고 믿었다.
벼농사가 어려운 거친 땅이라 옥수수와
감자, 메밀 등이 주식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의 고단함도 닮아 있다. “평생 가야
쌀 두어 말도 못 먹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척박한 자연환경은 일찍이
메밀이나 옥수수 가루로 뽑은 가수기
(손칼국수의 강원도 방언)나,
감자옹심이와 메밀국수를 섞어 옥수에
끓여내는 콧등치기국수(국수 가락이
너무 쫄깃해 먹을 때 콧등을 친다고
해서), 옥수수 가루를 끓여 가는 체에 쳐
찬물에 식힌 올챙이국수(모양이 올챙이
같이 생겨서)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임계장에 닭 팔러
나온 정선맥유씨 할머니(70세)는
요즘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싫어 안 먹는 세상이라며 혀를 찬다.
예전엔 품두 번 팔아야 옥수수 한 말
받았는데, 지금은 품 한 번 팔면 쌀
서너 말을 사도 돈이 남는다고, 세월은
좋아진 것 같은데 인심은 예전만
못하다고 달라진 시속을 전한다.

정선 태백이 아니라 그냥 ‘탄광촌’

1960년대부터 본격 채굴되기 시작해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밑불’이 된 석탄은 산업화 과정에서 정선과 태백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골짜기마다 채탄을 위해 들어선 크고 작은 광업소들로 ‘구덩이’ 천지였고, ‘검은 노다지’의 꿈을 안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이들로 탄광촌은 복새를 이루었다. 지역적 동질성은 그렇게 광산이라는 물질적 유대로 전이되었고, 석탄을 실어 나르기 위한 철로(태백선과 함백선)가 놓이며 외부에서는 정선, 태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저 ‘강원탄좌’니, ‘삼척탄좌’니, 혹은 ‘석공’ 등 광업소명으로 통칭하기기도 했다.

석탄공사 함백광업소가 있던 정선군 신동읍 방제1리에서 만난 김광현(60세) 씨는, 불 없으면 코앞도 안 보이는 지하 300~400미터 막장에 동발(갱도 받침목)을 몸에 묶고 기어들어가는 게 ‘사끼야마’(さきやま, 막장꾼)였다고 회고한다. 카바이트 불인 ‘간드레’(candle)를 걸고 탄을 캐던 그때가 진짜 ‘리얼’이었다는 것이다.

언제까지고 이어질 것 같던 석탄 산업은, 그러나 1989년부터 시작된 석탄합리화정책으로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그 많던 갱도들이 앞다뒀 문을 닫았고 정선과 태백은 폐광의 비애까지도 함께 맞았다.



착실하게 사는 사람만 고생이라

탄이 나지 않는 지역은 거개가 산간벽촌 오지마을들이었다. 꼭 골이 깊어서가 아니라, 외지에서 정선이나 태백엘 오려면 생명보험을 들고 넘어야 할 만큼 험난한 고개들이 많기 때문에 예로부터 인마의 출입이 드물었다. 사방을 꼭 메우며 들어선 첩첩의 산세로 인해 ‘하늘이 세 뼘’밖에 되지 않아 ‘해 뜨자 해 넘어간다’거나, ‘앞 뒷산에 빨랫줄을 건다’는 말이 당연하게 들리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지역이다.

오지마을 느낌은 태백보다 정선이 훨씬 더 하다. 정선군 임계면의 일명 평양마을(평양 출신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로 불리는 임계4리 1반은 태백, 삼척, 강릉의 세 개 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정선의 끝자락이다. 열 가구 남짓한 이곳에서 올해 여든이 된 최승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석옥자(75세) 할머니는 “가만히 있다고 누가 밥 먹여주는 것 아니니,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며 고춧대 세우는 일에서 손을 떼질 않는다. 하지만 남의 땅을 부쳐 먹는 탓에 일 년 농사 지어 도지 때고 비싼 인건비 치르고 나면 쌓이는 건 빚뿐이라고 할아버지는 탄식한다. 최승화 할아버지는 젊어서는 탄광일도 하고 또 솜씨 좋은 목수라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일도 많이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바깥양반 손재주가 너무 좋아 이렇게 ‘꼬부라지게’ 산다고 푸념을 쏟아낸다.

허구한 날 당하고 사느라 가진 건 없지만, 아직은 먼 객지에서 온 지나가는 객일지라도 하다못해 시원한 물 한 대접 떠다 주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는 인심이 남아 있음을 다행으로 여길 따름이다.

“우리 집이 아주 헌집이래요. 기 들어가고 기 나오고. 다행히 영감님 손재주가 좋아 허물어지진 않게 하고는 살지. 시절이 어려워 자식들도 제 앞가림하기 바쁘는데, 돈은 못 물려줘도 빚을 물려줄 순 없는 게 부모 마음이라. 그래 그냥 이래 살아요. 평생 남의 것 가져보지 못하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은 만날 고생이라. 더러 억울한 생각도 들지...” (석옥자)



“그렇게 막장에서 작업을 하다 나올 때, 입구가 가까워지면 일단 숨이 자유로워져요. 그러다 지상으로 올라오면 그때 비로소 ‘오늘도 살았구나’ 마음이 놓이지. 옷이고 몸이고 온통 땀과 탄가루 범벅이지만, 살았다는 기쁨에 우선 술집들을 찾아 목부터 축이곤 했더랬죠. 그래서 ‘광부들 돈은 햇빛만 보면 없어진다’는 소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다수 광부들이 자신한테 쓰는 돈이래야 겨우 막걸리 한잔에 돼지고기 몇 점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 자식 키우고 생활하는 데 썼지.” (김광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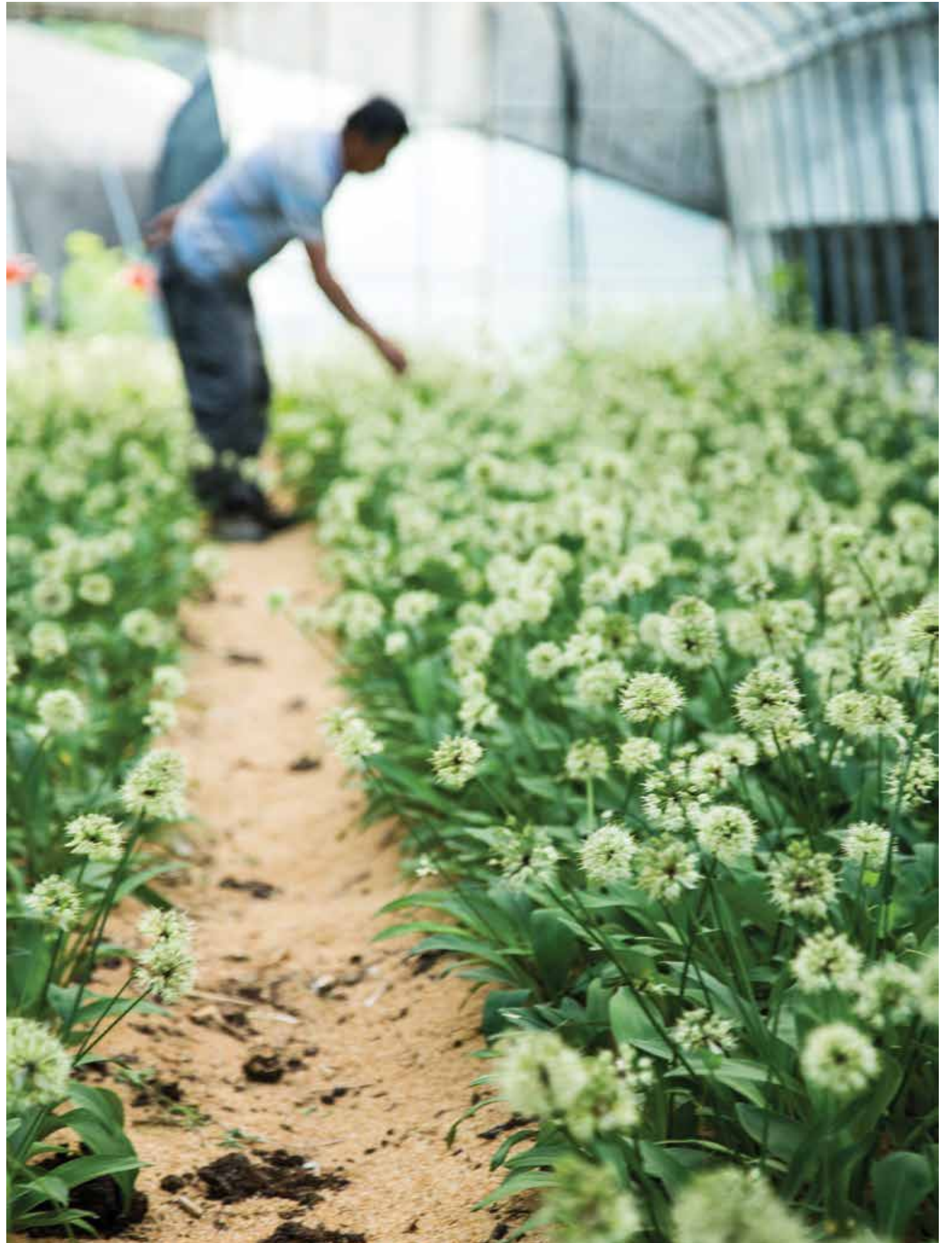
산골에 도시를 들고 오는 사람들

정선에서도 골이 깊기로 유명한 곳이 북평면 숙암리 단임계곡이다. 단임골 장재터에서 3대째 살고 있는 강원영(56세) 씨는 단임마을을 총 열한 가구 중 유일한 원주민이다. 그 역시 젊어 한때 도회지로 나가 월급생활도 해보고 장사도 해봤지만 뭐 하나 적성에 맞는 것이 없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신세내력을 털어놓는다. 그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단임마을은 50여 호, 어른들 말로는 80여 가구가 살았던 적도 있다고 한다. 지금은 폐교돼 흔적을 알아보기 어렵게 된 숙암초등학교 단임분교가 자체 운동회를 할 정도였더니, 제법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긴 했었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자신과 함께 서당 다니며 한문 배우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서울 등 외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들어온 이들의 면면을 보면 가장 오래전(20여 년 전)에 들어온 이영광(탈북 이후 단임골에 정착하며 매스컴도 여러 번 단임골 유명 인사다) 씨를 비롯해, 공무원·은행원·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다 들어온 이들, 사업하다 들어와 농사짓고 있는 이들 등 다양하다. 출신 성분이 다 다르다 보니 11가구가 단기간에 유대를 돈독히 하는 일이 쉽진 않아 보인다. 강원영 씨는 시골에서 살겠다고 오는 이들이라면 도시 생활의 습성이나 행태들을 봐두고 마음만 갖고 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분란이 초래되기도 한다고 전한다. “내가 왕년에 ~” 소리 하는 사람들이 다른 주민들과 어떻게 어울리겠으며, 이런 궁벽한 산간 오지에서 ‘왕년’ 생각이 나서 어떻게 살겠냐고 꼬집는다.



그러거나 말거나, 강씨는 단임골 자생 명이(산마늘)와 곰취 나물을 하우스 재배해 이제는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게다가 스물아홉 먹은 아들 흥기가 아버지 곁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결혼 후에도 같이 살 생각이라니 마음이 더욱 든든하다. 자신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아들이 배워올 신기술을 접목한다면 어디에도 빠지지 않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제가 단임골에 내려온 게 1999년입니다. 그때부터 단임골만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여러 구상을 했습니다. 우선 농약을 퇴출시켰죠. 길가엔 마가목 가로수도 심고, 고로쇠수액 채취와 명이나 곰취 등 나물농사에, 무항생제 유정란도 생산합니다. 또 방마다 벽난로를 놓아서 참나무 장작을 때며 불을 보는 재미를 더했죠. 산책(金해설) 코스도 세 개 개발해왔고, 숙암교 쪽에선 루어나 플라이낚시가 제맛이죠.”
(유동열)



오지마을의 미래를 준비한다

이십오리 비포장 단임길 가장 안쪽 (끝에서 두 번째 집)에 지난해 ‘다향산방’이라는 관광농원을 오픈한 유동열·이옥경 씨 부부가, 최초로 공개하는 상차림이라며 곰취 정식을 내놓는다. 국준(국화잎)·명이 장아찌와 제대로 훈제된 삼겹살을 살짝 데친 곰취에 싸먹는데, 가미되지 않은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유 씨 부부는 다향산방을 통해 제대로 된 ‘팜 스테이’를 실현하고 싶어 한다. 비록 유명 관광지는 아니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청정 자연 속에서 숙식을 하며 농사와 농촌문화를 체험케 함으로써 건전하고 알뜰한 휴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 씨 부부는 훼손되지 않는 자연과 전통문화를 즐기며 체험과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놓고 있다.

유 씨의 손윗동서로 스스로를 단임골 경력 7개월째인 ‘오지마을 인턴’이라고 소개하는 남정대(71세) 씨와 그 부인은 처음 얼마간은 감옥에 있는 것 같이 갑갑해 견디기 힘들더니 이젠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오히려 고요함을 즐기고 있다고 얘기한다. 머지않아 진입도로가 포장될 계획이라고 들었지만 그이는 출입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계곡의 원형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 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았으면 싶단다.





해발 1,200미터에서 별 보며 걷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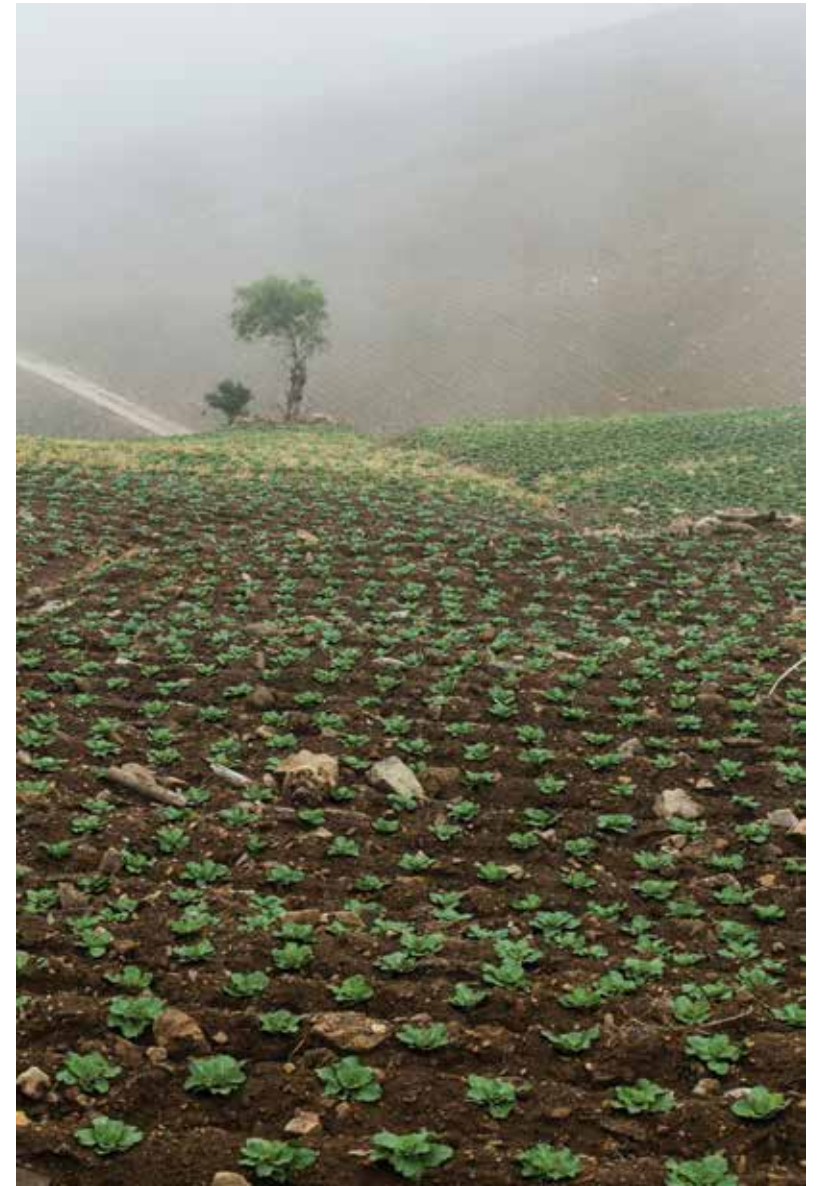
정선군 임계면에서 태백 시내 쪽으로 차를 몰다 보면 매봉산 풍력발전단지가 눈에 띈다. 해발 1,303미터 매봉산 정상에 자리한 풍력발전기와 그아래 132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고랭지 채소밭이 장관을 이룬다. 태백과 정선에는 매봉산 외에도 임계의 귀네미, 신동의 새비재 등 고랭지 채소밭이 곳곳에 조성되어 있다. 예전 화전민들을 소개시키며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고지대에 터를 만들기도 했고, 더러는 고랭지 채소가 인기를 끌며 최근에 조성된 곳도 있다.

태백시 창죽동 매봉산길 304번지(해발 1,200미터), 일명 ‘곤지바우집’(딸과 아들 이름) 주인장 이정만(48세) 씨는 얘기를 나눌수록 상대를 잡아끄는 사람이다. 고향이 태백이었던 이 씨는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가 30년 가까이 살다가 마흔이 넘어 이곳 매봉산 자락에 찾아들었다. 처음엔 농사지을 생각 없이 무작정 집만 사가지고 들어왔다가 동네 사람들 보기 미안해(농사도 안 짓고 놓고 먹는 것처럼 보여) 지금은 5천 평 남짓 여름배추를 짓고 있다.

그런데 여름 농사를 짓고 나면 할 일이 없다. 겨울이면 눈은 또 얼마나 오는지. 사정이 이러니 나이 든 노인네가 대부분인 이곳 가구들은 산아래 태백시로 이사를 가고 출퇴근을 하며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편한 생활에 맛을 들인 이들은 다시는 산에 올라와 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흔 가구가 넘던 마을에 이제 너댓 가구만 남았다. 그나마 사시사철 매봉산 자락을 지키고 있는 집은 이 씨네 뿐이다.

그런 생활이 외로워서였을까. 그림과 조각과 문학과 차와 음악까지..., 다방면에 두루 박식한 이씨는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절대 내치는 법이 없다. 방이 모자라면 마당에 텐트를 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별밤 산책에도 나선다. 상상해보라. 해발 1,200미터 고지대에서 바라보는 밤하늘 별빛이라니. 그렇게 걸으며 자기 자신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은 금방 무장해제 된다는 게 이씨의 전언이다.

“여름배추는 불가능한 농사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여름에 심어 먹을 게 없어서 옥수수나 콩을 심던 밭에 배추와 무를 심어봤는데, 이게 속이 짝찬 게 맛도 좋고 상품성이 있더라는 거죠. 저지대 같았으면 높은 기온 때문에 다 녹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확산됐는데, 이 지역이 워낙 기온이 낮은 고지대라 결로현상이 있고 수시로 안개가 끼고 구름이 몰려와 수분이 충분하더라 말이지요. 그러니 모종 심을 때 한번 물을 주면 그 다음엔 안 줘도 되는 거라. 일교차까지 크니 채소가 실하게 여물고. 대박이 난 거지.”
(이정만)





폐광 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정선과 태백은 요즘 폐광 마을들의 활성화에 큰 관심을 쏟고 여러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다. 2001년 폐광된 고한읍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에 예술을 입혀 지난 5월에 새롭게 탄생한 ‘삼탄아트마인’도 그런 노력 중 하나이다. 이곳은 폐광 이후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기와 문화적 정서를 일깨우는 지역문화 소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태어났다. 삼탄아트마인의 김진만 전무이사는 “폐광은 박제된 곳이 아닌 살아 있는 공간이며, 무한히 잠재된 기억을 깨내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갈 창조의 광산”이라고 역설한다. 운영사 측은 이곳 시설들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갤러리와 레지던스 등이 들어선 아트센터, 레일바이크뮤지엄, 야외공연장, 레스토랑, 원시미술박물관, 시크릿가든, 생태체험관, 동굴와이너리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창조의 메카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폐광의 검은 때를 벗고 새롭게, 다시 나아가려는 지역의 의지는 태백시 상장동이나 철암 삼방남부마을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지역은 탄광의 성쇠와 애환을 벽화로 그려 태백의 오늘을 있게 한 기억을 되살리는 한편 폐광촌이 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태백이 고향인 미술가 허강일 씨가 진행한 벽화 프로젝트는 실제로 탄광과 광부들의 실상을 생생하게 재현해냈다는 평가와 함께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콘텐츠로 역할하고 있었다.

특히 얼마 전부터 운영을 시작한 중부내륙순환열차나 백두대간협곡열차 등이 철암역에 관광객들을 쏟아내면서 철암동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철암 새마을협의회장 겸 방범대장을 맡고 있는 강만호(53세) 씨는 관광열차 등이 운행되면서 철암 지역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하며 이러한 수요를 끌어안기 위해 열차 시간에 맞춰 공연도 하고 둘레길도 조성하는 등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철암 중심시까지 정비도 역점 사업 중 하나이다. 철암천 변에 들어선 이른바 ‘까치밭’ 건물(도로 등으로 공간이 부족해 천변에 기둥을 세우고 면적을 넓힌) 11채를 철거하지 않고 내부를 리모델링해 박물관, 갤러리, 카페 등으로 활용한다는 이 사업은 열차를 타고 오는 외지인들에게 철암과 탄광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의 명물이 될 전망이다.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는 곳, 마을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의 모범을 보인다는 평을 듣는 철암도서관 김동찬(35세) 관장은 “마을은 어떻게든 간에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그곳엔 당연이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가 사람(나와 이웃)이고, 다음이 인정 아니겠냐.”고 반문한다. 물론 마을이라고 영원할 순 없으리라. 더 살 사람이 없으면 마을이 없어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은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게 기본이리라. 다행히 철암엔 아직까지 인정 넘치는 이웃들이 서로를 챙기고 보살피며 살아가고 있다. 조각을 잘 하시는 ‘목조각 할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선뜻 내주기도 하고, 철암초등학교 출신으로 마을 아이들의 영원한 선배님인 ‘호랑이 아저씨’는 스스로 붙인 별명과는 다르게 물고기 잡으러, 돌판에 삼겹살 구워 먹으러

아이들을 끌고 다니는 골목대장 역할을 맡아준다. 앞뒷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 나서서 연탄도 알아주고 아이들도 돌보는 인정이 있는 한 철암은, 어디 내봐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마을’을 꿈꿀 수 있을 터이다. 철암뿐이라.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촬영지로 더 유명한 방재2리 새비재 이동주(58세) 씨 부부는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멀리서 찾아온 객들에게 커피 한 잔을 내놓으며 함께 추억을 더듬고, 도시 사람들은 이 맛있는 새비재 무를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눈구멍’으로 먹는다고 불만을 토하던 이덕준(64세) 씨도 통명스런 말투와는 다르게 갈 길이 먼 일행의 남은 여정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인정을 베푼다. 더러 각박해지고, 몇 안 되는 이웃끼리 감정이 상해 상종을 안 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또 온몸으로 부딪쳐가며 쌓아왔던 그 많은 기억과 크고 작은 삶의 편린들을 폐광 속에 묻고 미련 없이 마을을 등진 이들도 있다. 하지만 남은 이들은 오늘도 여지없이 고랭지 비탈밭, 혹은 막장 속에 뽕뽕 숨겨져 있는 희망의 싹들을 심고 캐고 가꾸며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한다. 그곳이 외면할 수 없는 자신들 ‘삶터’이므로. ■

편집되지 않은 일상,

글: 최성우
파리 1대학에서
미술사, 디종대학에서
문화정책경영학을
공부했다. 복합문화공간
'보안여관'의 대표이자
일맥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화보: 김정민
스타일리스트, 퍼슨스스쿨
오브 디자인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다.
푸드와 리빙 등 스타일 관련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스타일링 그룹
(thestylinggroup) 대표이다.
광고, TV, 잡지, 식음료 매장
등 음식과 공간에 새로운
표정을 부여하는 모든 곳이
그녀의 일터이다.

사진: 박정훈

2012년 '한국관광의 별'에
빛나는 정선오일장 외에도
태백과 정선에는 다양한
장터가 있다.

5일과 10일이 들어가는
날이면 임계농협 앞
주차장은 태백과 강릉
사람들을 위한 임계장터로
변하고, 5일, 15일, 25일은
영동선을 타고 사람들이
모여들던, 기차길 옆
통리장이 서는 날이다.

임계장과 통리장



장터는 유목민들의 거주지 같이 순환한다. 질빵에 붓짐 걸어 메고, 지게에 등짐 지고 다니던 부보상(負祿商)들, 등짐장수나 붓짐장수라 불렸던 장돌뱅이 유목민들이 짧게는 5일에 한 번, 길게는 10일에 한 번씩 나타나 시장판을 갈아엎고 떠나면, 마을은 본래의 생활 리듬을 찾은 듯 일상을 이어가다 다시 장꾼들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장터는 장꾼들에게 삶의 전진기지고 주민들에게는 일시적 놀이터가 되며, 바깥 세상과 마을 안팎의 소식이 모이는 교류의 중심이다. 왜 류관순 여사가 아우네장터에서 만세를 불렀고 많은 죄인들이 장터에서 공개 처형되었겠는가. 그곳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의 틀에 가뉘 해석할 수만은 없는, 생활문화사의 현장인 까닭이다. 수많은 물건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며 사람과 상품, 공간이 결합하여 잠시도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유기체. 장터는 인류사회가 존속하는 한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임계에 장이 서던 날

정선 사람들이 강릉과 삼척에서 나는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백복령을 넘어 임계땅을 지나야 했다. 정선 아리랑에 “우리집의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 엮어매고 짚어매고 장치다리 곱배팔이 / 노가지나무 지게 위에 엽전 석냥 걸머지고 / 강릉 삼척에 소금 사러 가셨는데 / 백복령 굽이굽이 부디 잘 다녀오세요” 라는 가사에서 보듯 백복령 고갯길을 넘어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의 산물이 교환됐다. 임계는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였고 척박한 강원도 땅과 달리 정선 곡식의 절반을 생산하던 살 만한 동네였다. 면적도 정선군에서 가장 크다. 북쪽으로 가면 경포대가 있는 강릉이고, 남쪽으로 가면 태백, 서쪽으로는 정선, 동쪽으로는 동해시에 닿는다. 사방어느 길로 가든 살아보거나 놀아볼 만한 땅에 닿으니 임계사거리쯤에서는 길을 잃어도 좋을 듯하다. 그 임계사거리 근방에 장터가 서는 것 또한 당연하다.

장이 서는 날 임계시장 변영희장 박승영(60세) 씨를 만났다. 임계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강릉으로 공부하러 나갔던 그는 199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임계장에서 15년째 가게를 하고 있다. “오늘은 임계장 상인들이 통리로 장을 보러 가서 여기 장이 좀 한산하다. 예전에는 임계장이 컸는데 지금은 통리장이 크다. 그래도여기가 일제강점기인 1913년 2월경에 시작됐으니까 역사가 100년이다. 원래는 여기서 좀 떨어져 있는 데서 장이 컸는데 1975년쯤에 이리로 옮겨왔다. 그때만 해도 인구가 만 육천 명이나 됐고, 인근에서 다 농사를 지으니까 소도 많아서 우시장도 크게 컸다. 동해의 삼화 같은 데서 과일을 이고 지고 70~80리 되는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 장날이면 대폿집에서 막걸리 마시며 소 판 돈으로 노름판이 벌어졌다. 뭐, 색식집도 있었고. 장날이면 전국 ‘쓰리꾼(소매치기)’들이 임계장에 다 모인다 그랬다. (웃음)”



臨溪場



대화, 진부와 함께 70여 년간 강원도 최고의 장으로 꼽히던 임계장이 그 위상을 잃은 건 1970년대 중반 동해권 공업단지에 공업 용수를 대기 위해 임계댐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다. 수물 지역이 되면서 많은 이들이 강릉이나 서울로 떠났고 장도 주춤해졌다. 그러다 작년에 상인연합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올해 1월 3일에 정선군으로부터 ‘인정시장’ 칭호를 받으면서 임계장 상인들은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희망을 선언하고 분명한 비전을 내걸어야 하는 게 번영회장의 소명일터. 박승영 씨는 임계장이 활기찼던 시절, 옛 장터의 풍경을 재현하고 싶다고 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장사가 힘들다고 장터에 지붕을 만들자는 의견들이 많은데 임계장은 현대화하지 않고 장터 본래의 풍경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 정취와 느낌을 가져가고 싶다. 일단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품별로 자리 배치도 새로 하고, 선을 그어 각자 자리도 정리해줬다. 이제 누구라도 임계장에 장사를 하고 싶으면 상인연합회에 등록하고 빈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회비? 매달 5천 원씩 받는다. 전에는 목시적으로 다 자기 자리가 있어서 목이 좋은 곳은 상인들끼리 권리금을 주고받았는데 상인연합회가 생기면서 그런 게 싹 없어졌다. 앞으로 시장경제진흥원이나 중소기업청 같은데 국비도 신청하고 컨설팅도 받을 생각이다. 무엇보다 임계 출신들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옛날 그대로구나...’ 하는 느낌을 주고 싶다.”

임계장은 5월 10일경부터 5월 말까지 봄나물 장터가 된다. 곤드레, 참나물, 참도솔취, 미역취 등이 봄나물 장터의 단골 상품이다. 6월 말부터는 마늘장이 유명하다. 임계 반천마늘은 저장 기간이 보통 마늘보다 세 배쯤 길고 아린 맛을 내는 알리신이 풍부해 전국적으로 종자 마늘로 유명하다. 의복이나 생선, 과일은 외부 장꾼들의 품목으로 임계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다.

“특pecially 좋은 임계 특산품에 주력할 생각이다. 한우, 사과, 반천마늘, 더덕, 그리고 산채까지 다섯 가지 품목에 주력해서 신토불이 증도 만들고 임계장터만의 차별성을 부각할 것이다.”

장터의 주인은 장꾼들이다. 임계장의 주인들을 만나러 장터를 휘돌았다.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쓰다가 장날이면 크게 천막이 내걸리는 임계장 한 가운데에는 아침부터 마실 나온 인근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배추전이며 메밀전병에 막걸리 한 통을 놓고 이야기가 한창이다. 옷을 파는 천막 앞으로는 벌써 장기판이 벌여졌다. 한과를 만들어 파는 어르신은 임계장에서 가장 오래된 상인들 중 한 분이다. 그 뒤로 있는 영진면옥은 메밀국수, 장칼국수, 감자옹심이가 유명하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위생 검사를 통과했다는 ‘뽕초트럭 순대’ 사장님은 임계장에 나온 지 15년째다. 본인은 임계장에서, 부인은 동해 인근에서 순대를 판다. 점심 대신 집어 먹은 도토리묵은 목이 메일 정도로 밀도가 높다. 풀뿌리로 만들었다는 올미묵도 맛나다. 묵을 파는 아주머니는 북평장도 다닌다고 했다. 그 옆으로 도넛을 파는 젊은 부부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기름을 수시로 갈아도넛 색이 밝다. 장터 중간에서도 목이 가장 좋은 곳에서 더덕 껍질을 까고 계신 할머니는 그 자리가 말해주듯 임계장의 터줏대감이다.

“이건 산더덕이다. 반찬 해먹지 말고 우유 넣고 갈아서 생으로 먹어야 한다. 아저씨 같은 사람은 산을 온통 다녀도 한 뿌리도 못 캔다. 산더덕은 3만 원, 농사더덕은 2만 원.” 흥정도 타협도 없다. 여든이 넘는 강옥녀 할머니는 차로 5분 거리인 낙천에서 오신다. 산더덕을 직접 캐시냐고 물었더니 “아 내가 이 나이에 이걸 어떻게 캐. 젊은 놈들 시켰지.” 하며 지청구가 날아든다. 50년 전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보리로 ‘옛질금’을 고아서 엿을 팔았다. 그러다 길쌈을 해서 베도 팔았다. 길쌈한 베 한 필을 팔고 강냉이 한 말, 보리 너 되를 받아서 식구들을 ‘멕여’ 살렸다. 그래도 곡식이 모자라 나물로 식구들을 멕였다. 할머니님은 여전히 건강하고 꼳꼳하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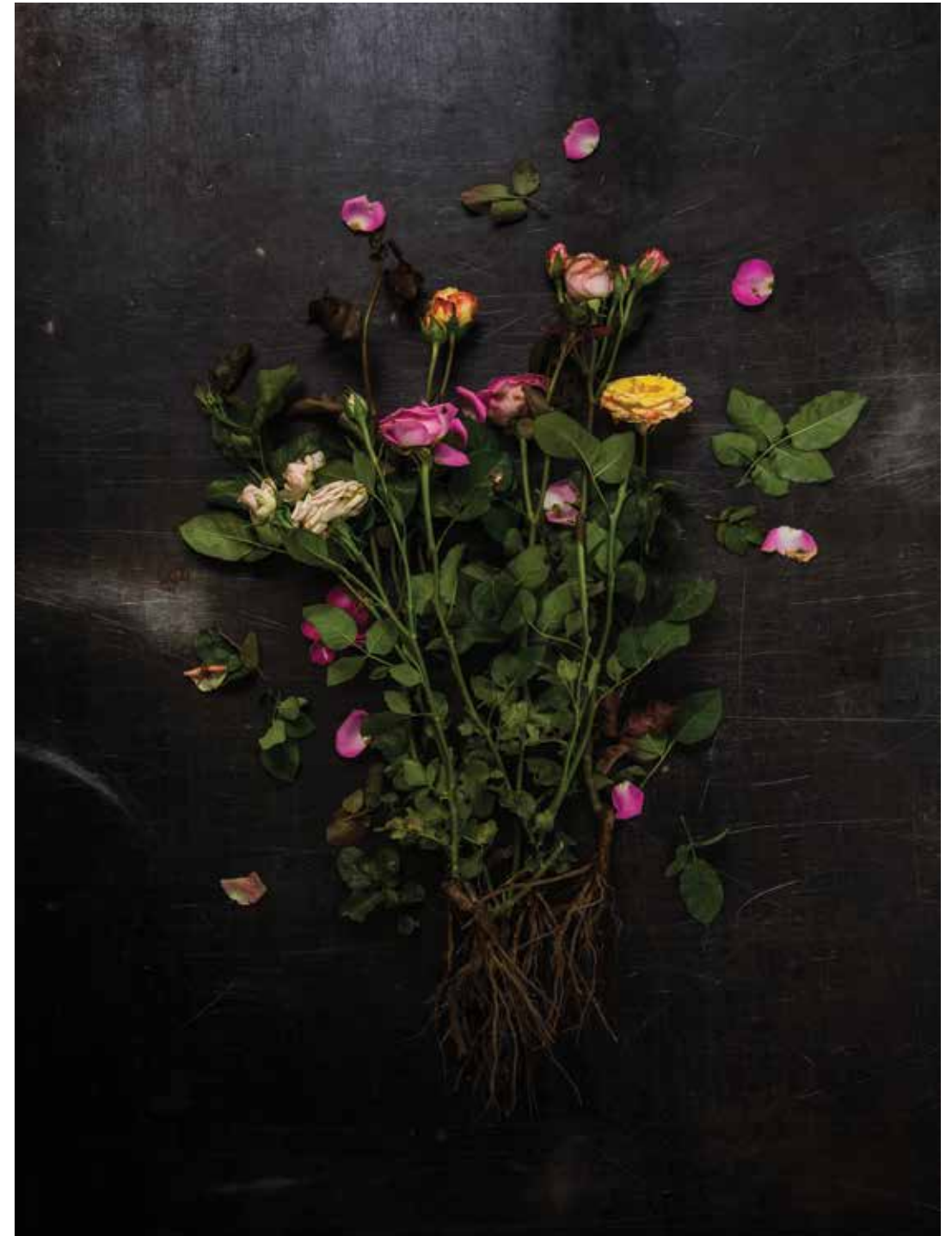
점심 무렵 장터에 아라리 소리가 퍼졌다. 인근 노인대학 어른들의 아라리 공연이다. 장꾼의 추임새가 없이 어떻게 장터에 신명이 있을까. 더덕을 팔던 강옥녀 할머니 맞은 편에서 산채를 파는 변옥녀 씨가 돈 세던 손을 흔들며 춤판으로 뛰쳐나간다.

“스물일곱에 장꾼이 되서 이제 40년 됐다. 여량에서만 6대째 살고 있다. 처음에는 생선 15년, 그다음에는 건어물 15년, 곰취, 곤드레, 취나물 판 지는 10년쯤 됐다.” 그녀는 임계장과 정선장, 그리고 진부장 세 군데서 장사를 하는데 정선에는 아르바이트를 두고 있다고 했다.



임계장 농기구와 씨앗

텃밭을 가꾸지 3년이 되었다. 텃밭 관리인은 성정이 딱딱하다. 첫해에는 씨 뿌리다야단 밭고랑 파다 핀잔 듣고 비가 많이 오던 날 “제 무우 팬찮나요?” 하며 전화했다가 웬 호들갑이냐고 또 한소리 들었다. 이제 장터에서 농기구에 관심을가지는 정도는 되었다. 농기구전아저씨 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앞대가리만 찾지, 손잡이는 알아서들 해.” 하시길래 웬지 사야 할 것 같아 집어 왔다. 배추 씨앗은 처음인데, 글썄, 씨앗이 파란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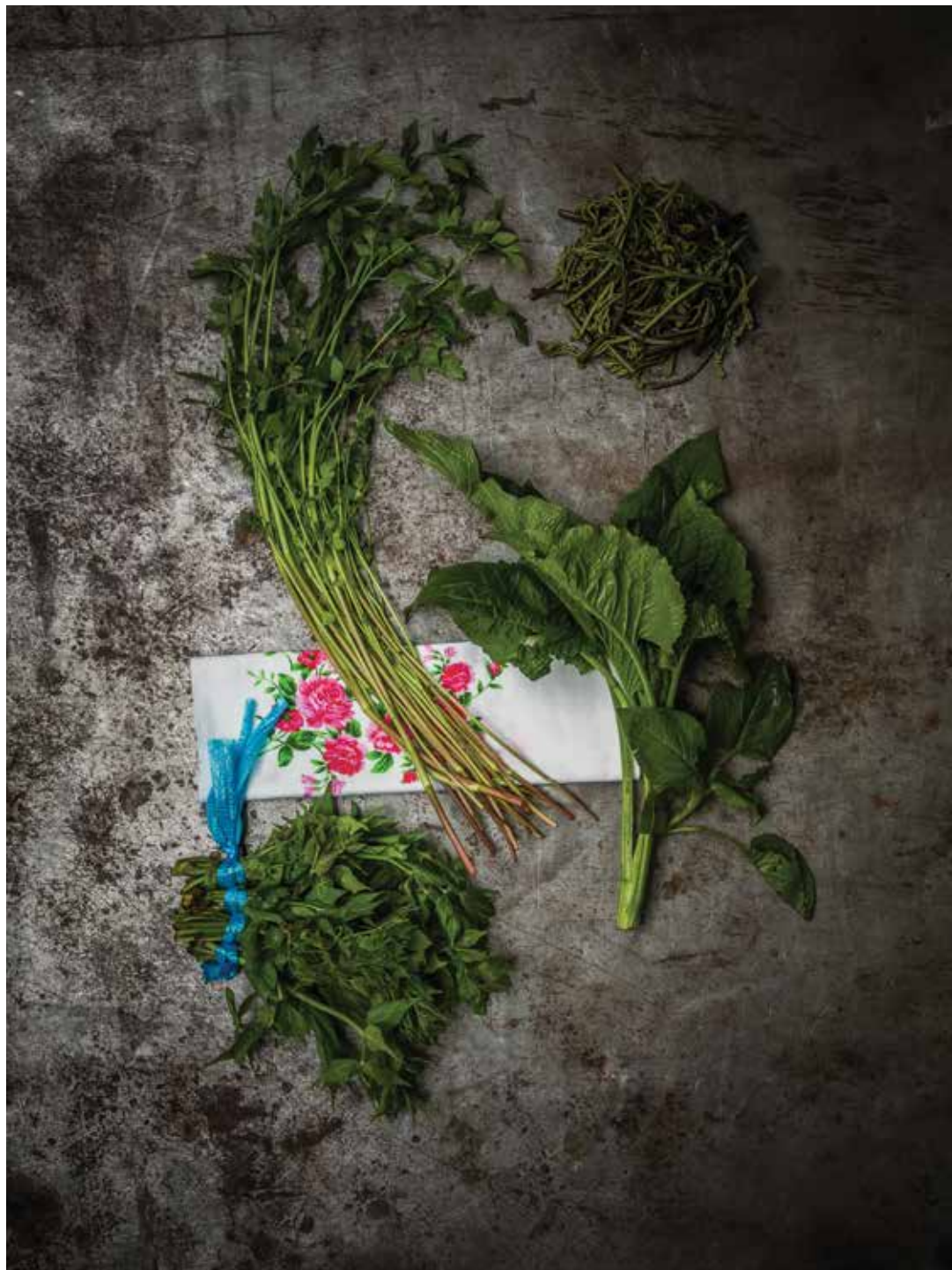
통리장 장미

“하양에서 기차타고 왔지. 이게 지금은 시들해 보여도 쥔레랑 접붙인 기라 무지하이 오래 가요. 송가 놓고 보름만 지나면 꽃이 자꾸 피고 또 피고 그래. 송굴 때 딱 요, 요 접붙인 데까지만 송구소. 더 송구면 숨이 막히기 죽어빠리. 딱 요, 요 까지만 송구소.” “네, 할머니!”하고 대답은 시원하게 했는데, 돌아서서 생각하니 당장 ‘송굴’ 데가 없다. 급한대로 화병에 꽂아놓고 보고 있자니 “딱 요 까지만!” 하시던 할머니 목소리가 쟁쟁거린다.



임계장 더덕+통리장 무쇠철판과 화로, 배추, 파, 감자

장터 입구, 무쇠 기물을 한참 구경했다. 아저씨는 “철판은 내가 숯이랑 기름이랑 해서 싹 길들인 거고, 화로도 필요하면 내가 오늘가서 싹 손질해 가지고 다음 장날에 갖다 주께요.” 하셨다. 파전 아주머니는 철판에 재료 놓는 솜씨가 예술이다. “어쩔 이렇게 예쁘게 부치세요?” 했더니 “내가 여서 전 부친 지가 십수 년이래요.” 하신다. “토실토실” 하는 목소리에 끌려 햇감자도 한 바구니 샀다. 메밀 파전과 구운 감자, 그리고 산더덕 주스. 완벽하다.



통리장 미나리, 고사리, 두릅, 곰치+임계장면 행주

돌미나리는 너무 깨끗한 모양새에 반해서 한 단, 두릅은 촉촉하게 엮어놓은 파란 끈에 반해서 한 단, 고사리는 아주머니 이야기 듣다가 아니 살 수 없어서 또 한 단. “고사리? 다 내가 저 산에서 뜯은 거래요. 해 뜰 때 올라가서 고사리가 안 보일 때까지 뜯어요. 아무나 못 해요. 힘들어서도 못 하고, 지루해서도 못 해요. 어? 내가 낚싯하다고? 살 찔 틈이 없지.”

1시간쯤 차를 몰아 통리장에 들어서자마자 장터의 끈질긴 후렴같이 소낙비가 쏟아졌다. 막 비벼 먹는 장꾼들의 때늦은 점심밥 위로 빗방울이 떨어진다. 건어물 아주머니는 찹쌀게 비닐로 멀치를 덮고, 생선 위에 설치던 파리 떼도 비를 피해 자리를 뜬다. 그래도 장터마다 울리는 뽕짝메들리는 갑작스런 빗소리에도 지지 않고 이어진다. 파리 떼가 물리거나 모기가 달려드는지 장꾼들이 모기향을 여기저기 피워놓는다. 굽뽕이, 토종지네를 펼쳐놓은 장꾼은 “홍화씨는 손발 저린데, 혈액순환, 골절, 관절염에 좋고, 남성 발기부전엔 올금, 여주란 놈은 먹는 인슐린이얍!!!” 하며 지나가는 손님을 잡고, 버섯 파는 아주머니는 생버섯을 어떻게 맛보라는 건지 “버섯 한 봉지 오천 원, 잡싸보고 가~.” 하신다. 예고 없이 내리는 비에도 장꾼들의 흥과 호객 소리는 줄지를 않는다.

비가 오니 오뉴월 초여름 장터의 색이 살아났다. 난전에 펼쳐놓은 햇양파, 돌미나리, 두릅, 고사리의 초록빛은 물기를 머금고 달아올라 촉촉해진다. 풀어헤친 검은 머리 같은 천 갈래 고무줄 위로 형형색색의 목욕 장갑, 두건, 빨강고 파란 파리채, 그리고 대한민국 아주머니들의 유니폼이 되어버린 듯한 현란한 꽃무늬 옷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때 오일장이던 통리장은 이제 5, 15, 25일에만 선다. 임계장이 정선 쌀의 절반을 생산했던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했다면, 통리장은 철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광산촌 영향권 내에 있었다. 통리는 태백의 동쪽 끝, 삼척과 경계에 있다. 사방이 높은 산에 싸여 있고 그 가운데 길게 골짜기가 나 있는 모양이 마치 여물통 같다 하여 통리(桶里)라고 불렸다. 1930년대만 해도 이곳에서 동해로 가려면 해발 720미터의 통리재를 걸어서 넘어야 했다. 조용하던 산촌마을은 일제강점기에 태백과 삼척에 탄광이 개발되면서 광산촌으로 변했다. 석탄을 나르느라 통리역~도계역 사이에는 1940년에 로프를 달아 오르내리는 강삭 철도가, 1963년에는 심한 경사길을 앞뒤로 왔다갔다 하며 오르내리는 스위치백 철도가 놓였다. 1983년부터는 한보탄광도 문을 열었다. 10년 전만 해도 장날이면 태백뿐 아니라 삼척 도계, 정선 사북과 고한, 그리고 경북 봉화의 물산과 사람들이 영동선 기차를 타고 통리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때가 절정이었다. 이후 석탄산업이 쇠락하고 2008년 한보탄광이 문을 닫고, 지난 해 6월에는 통리역~도계역 사이를 다니던 국내 유일의 스위치백 철도와 함께 석탄산업의 역사를 고스란히 겪어온 통리역마저 사라지면서 장터는 큰 위기를 맞고 있었다.

노포(老鋪)가 흔치 않은 통리장에서 2대째 하는 국밥집을 찾았다. 주인장은 경기도 파주 자유시장에서 국밥집을 하던 어머니를 모시고 1971년에 내려와 그 이듬해에 밥집을 열었다고 했다. “탄광은 보너스가 600퍼센트 나왔다. 그런 달이면 월 수입이 천만 원에 육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술 먹고 자빠져 있는 사람 호주머니를 뒤져도 돈다발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탄광 경기가 좋을 때 태백시에는 16만의 인구가 있었다. 그때는 24시간 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평소 때 사람이 없어서, 장이 설 때만 국밥집을 연다. 하루 벌어 열흘 먹는 거다. (웃음)” 국밥의 주재료는 토란, 고사리이고, 각종 야채도 재료도 강원도 것만 고집한다. 임계, 횡성의 한우를 쓰고, 부족하면 음성에서 고기를 받아온다. 이틀 동안 뼈로 육수를 우리고 육수가 줄면 보충한다. 가게 앞에 크게 걸어놓은 가마솥에서 국밥 250그릇이 나온다. 장날 하루 세 술 정도, 토요일이 낀 장날은 네 술 정도 판다.

통리장은 한바퀴 도는 데 꽤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볼거리도 많고 간접할 거리도 많았다. 동네가 많이 쇠락했다고도 하고 상인도 손님도 대개가 외지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통리장에는 장터 특유의 흥겨운 분위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열갈이배추와 실파를 놓고 메밀전을 부치는 방앗간 아주머니는 야한 농담도 서슴없고, 원래 대장간을 했는데 이제는 삼척에서 물건을 떼다 판다는 가마솥 장꾼은 10년 전엔 정말 장사가 잘됐다며 이야기가 길어진다. 경북 하양에서 장미묘목을 들고 온 할머니는 부산 사는 아들 모르게 온 거라며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셨다. 삼척에서 귀농 1년째를 맞이한다는 파릇파릇한 부부는 농사도 짓고, 고흥마늘도 파는 선택적 장돌뱅이였다. 30대 중반이지만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장사를 배우려고 통리뿐 아니라 북평, 삼척, 도계, 양양장터를 다닌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가족들은 자신들이 귀농을 한 것도 장터를 다니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진은 절대 찍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 한쪽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젊은 여인이 메밀전을 부치고 있었고, 장터 끄트머리에는 인도 상인도 보였다.

桶



里



場



프랑스의 독창적인 조경가 질 클레망(Gilles Clément)은 최초의 정원은 방랑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던 인간이 식량 생산을 위해 만든 채소밭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저서 《정원으로 가는 길》에서 “시골에서는 정원(jardin)이라는 단어가 다름 아닌 채소밭을 가리킨다. 그 나머지는 다 풍경이다. 이 풍경이 어떤 구성의 대상이 될 때 사람들은 그걸 공원(parc)이라고 부른다.”고 썼다. 삶과 직결되어 있던 채소밭이 권태를 이기기 위한 여가의 정원으로, 자연의 풍경을 바꾸며 공원이라는 인공의 장소이자 잉여의 장소로, 혹은 관광자원으로 변모하는 사이 자연의 풍경은 도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장터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장꾼들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외지 장꾼들도 많이 와야 장이 커지고 활성화된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었다. 기차역과 연계해 모객하는 것이 지역 재래시장의 존속이나 흥행 여부에 중요한 요인이 된 이유이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 지역 공동체가 살아야 장터도 산다. 장꾼과 상인들의 삶터인 장터가 지역민들의 일상에서 멀어진 채 관광객들의 번덕스러운 시선을 좇는 모습, ‘상품’을 팔아야 할 시장에 ‘정(情)’을 팝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등장하고 도시인들의 퇴행적 낭만성을 좇아 학습된 풍경을 연출하는 모습은 아슬아슬하다. 농촌 장날의 모습을 유지하며 조심스레 옛 영화를 되찾으려는 임계장, 폐광과 철로 폐쇄라는 위기 속에서도 영동선을 타고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던 옛 시절을 짐작케 했던 통리장의 여운이 오래 남는 것은 그곳이 아직은 삶의 터전을 관광에 다 내어주지 않은, 연출되지 않은 장터였기 때문이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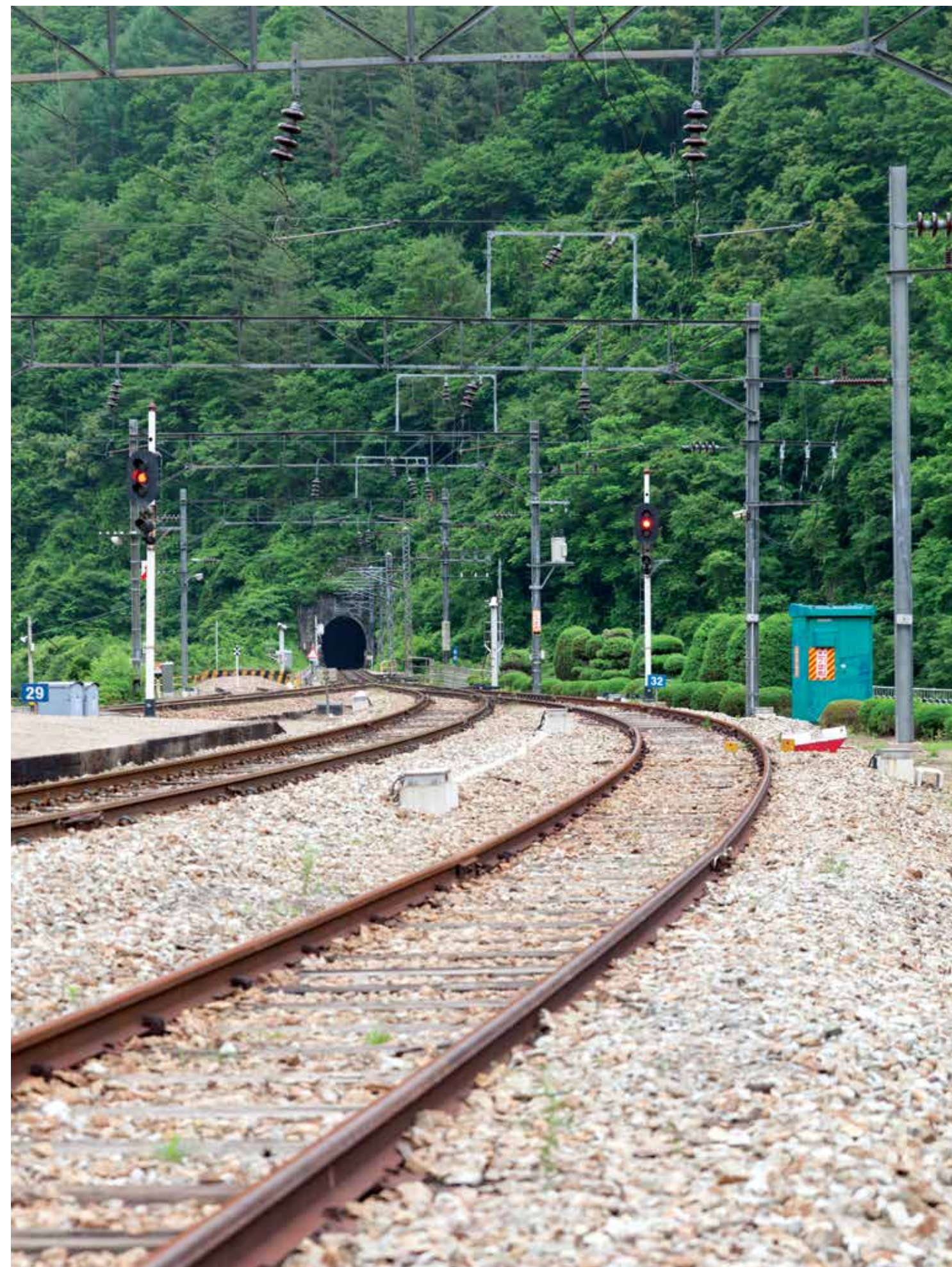
103.8 킬로미터 섬포같은 기차길,

무연탄 수송을 위한
산업철도로 태어나 한
시절 백두대간의 가파른
협곡을 오르내리던
태백선은 이제 그 절정을
지나 이제 관광열차로
새로운 드라마를
쓰고 있다. 태백선은
오르막인가 하면 어느새
내리막이고
오르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생의 법칙을
말없이 일러준다.

태백선에 오르다

글 : 조상면
문학평론가. 화성에서
태어났고 인하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르문학과 문화이론과
관련한 논문과 평론을 주로
발표했다. 평택대 대우 교수,
인하대 강의 교수 및 연구
교수를 역임했다.
《대중문학과 정전에 대한
반역》, 《한국문학 대중문학
문화콘텐츠》, 《경계를 넘고
간극을 메우며: 장르문학과
문화비평》, 《질주하는 역사,
철도》 등 다수의 저서와
평론이 있다.

사진 : 김경태
중앙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5년간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디자인에서 사진으로
관심과 비중을 점점
옮겨가다가 결국
본격적인 사진 공부를
위해 올 7월 스위스로
유학을 떠난다.



사람마다 인생의 스토리가 제각각이듯 철도도 노선에 따라 표정과 풍경이 다르다. 경인선이 출근길 직장인들의 발걸음처럼 분주하다면, 경부선은 천년의 세월을 버텨온 고택의 기둥처럼 듄직하다. 경춘선이 젊은이들의 들뜬 주말여행이라면, 장항선은 순박한 황소의 발걸음처럼 느리고 우직하다. 전라선이 주름진 어머니의 거친 손처럼 애뜻하다면, 수인선 협궤열차는 추억의 졸업앨범처럼 마음이 아련하다. 그리고 태백선, 태백선은 어떨까. 태백선은 웬지 모를 깊은 울림이 있다.

오르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삶의 규칙을 닮은 철로

태백선은 이 땅 아버지들의 검게 그을린 얼굴과 핏줄이 불끈불끈 솟아오른 굵은 팔뚝이 연상되는 남성적인 철도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하나로 두 어깨에 삶이라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수락한 아버지들과 백두대간의 가파른 협곡을 오르내리는 철도가 마치 우리네 인생살이의 은유 같기 때문이다. 오르막길인가 하면 어느새 내리막길이고, 오르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태백선의 기복과 굴곡이 과연 우리의 인생 행로 같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산중(山中)의 적막과 호젓함이 교차하는 태백선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표정으로 여행객을 맞는다. 선로 변의 개나리와 진달래가 잘 어울리는 차창 밖의 봄, 기차가 떠나면 다시 깊은 정적 속에 잠기는 간이역들의 여름, 철시(撤市)한 장터 같은 조동역과 사북역의 가을, 그런 정서적 허기를 달래주는 노점의 팔죽이 일품인 추전역의 겨울 등이 그렇다.

태백선의 압권은 역시 겨울이다. 한겨울 저녁 태백선을 타보면 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얗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 섰다.”는 일본 서정소설 《설국》의 저 유명한 첫 장면이 그저 ‘묘사’가 아니라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사실’이며 사실보다 더 사실적이라는 사실을. 여기가 바로 먼지의 세상에서 벗어난 백색의 축복이요, 시간이 멈춘 설국의 땅이 아닌가. 그러면 한겨울 정오의 태백선은 어떤가. 창밖에는 새해 새 달력에 실린 한국화 같은 하얀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그리고 멀리 산등성이 위 흰 눈이 소복이 쌓인 산자락에 웅기종기 모여 앉은 낡은 집들. 저 낡은 집 어딘가에 자식들을 모두 도회지로 분가시키고 소란스러운 탄광촌의 일상과 어두운 막장에서 홀려보낸 젊은 날의 고단함을 반추하며 고향집을 지키고 있을, 노년의 아버지들이 게실 듯하다. 바로 이 같은 강렬한 정서적 환기력이야말로 태백선의 본래 면목이다.

태백선에서 자꾸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철도 노선의 탄생 배경 때문이다. 느린 풍경화 같은 태백산 줄기의 전통촌락과 빠꾸기 소리만 낭랑했을 산간마을을 부산한 탄광지대로 바꾼 것도 다시 퇴락한 한촌으로 만든 것도 모두 석탄이다. 태백선은 무연탄 수송을 위해 태어난 산업 철도다. 고한, 사북, 태백으로 이어지는 태백선 둘레에는 유난히 광산들이 많이 운집해 있다. 함백산 줄기에는 정암광업소, 삼척탄광, 덕유탄광, 풍전탄광 등 유명했던 탄광과 광업소들이 즐비하다. 그런가하면 제천에서 시작된 태백선은 장락, 영월, 함백, 조동, 민둥산, 사북, 고한, 추진, 태백 등 모두 스물 두 개의 역을 연결하는 산악 철도이기도 하다. 1955년 제천-영월 노선이 가장 먼저 개통되었으며, 1957년 함백역까지 개통되면서 태백선은 한동안 함백선이라 불렸다. 그리고 1966년부터 잠시 고한선으로 불리다가 1973년 고한-태백 노선이 개통 되면서 비로소 태백선이란 이름을 얻는다.



Photo © KORAIL



Photo © 대한석탄공사



Photo © KORAIL



Photo © Park Jeong Hoon



산업철도의 절정을 지나 이제 관광철도로

태백(太白山)이라는 이름만 놓고 보면, 태백선은 ‘흰색’이나 ‘흰 눈’과 잘 어울릴 것 같다. 겨울 산행의 명소로 꼽히는 이런 곳에서 검은 석탄이 생산된다는 것은 아이러니요, 천지음양의 조화다. ‘태백’이란 이름의 기원이 된 태백산은 해발 1,566.7미터에 이르는 태산준령이다. 태백산은 ‘크게 밝다’라는 우리말 ‘한뼉뵈’을 음역(音譯)한 것이다. 태백산 정상에는 삼한시대부터 하늘에 제사를 모셔왔다는 천제단이 있다. 또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도 태백역 인근에 있다. 하루 오전 톤이 넘는 물이 솟아난다는 황지연못은 탐욕으로 쫓딱 망한 황부자의 집터가 연못으로 변한 것이라는 전설을 가진 신비의 연못이지만, 풍광이나 외양은 의외로도심속 동네 공원 같은 소박함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여행 중이거나 일정에 여유가 있는 휴가라면 태백역에서 삼십 분 정도의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석탄박물관이나 매봉산 고랭지 채소밭 혹은 풍력발전기들이 있는 바람의 언덕을 돌아보아도 좋을 것이다. 바람의 언덕이라는 말대로 이곳은 바람이 거세다. 그러나 거칠지 아니하고 격렬하나 위압적이지 않다. 매봉산 기슭의 풍차는 번뜩이는 재치와 어린이들의 환호성 소리에도 불구하고 난생처음 한복을 입은 외국인처럼 어딘가 생뚱맞아 보인다.

산악철도로서 태백선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명소는 신호장인 조동역(단선 철도에서 마주 오는 기차들이 서로 비켜갈 수 있도록 만든 시설로서 여객용 열차역이 아니다)과 함백역~조동역 사이를 연결하는 함백짜리굴(loop tunnel)¹, 그리고 시월의 역사축제와 정선선의 분기점으로 잘 알려진 민둥산역(옛 증산역)과 대한민국 철도역 가운데 해발고도가 가장 높다는 추전역일 것이다. 855미터 고지대라 귀가 조금 먹먹해지기도 하는 추전역은 본래 화전민들의 터전이었다. 이들이 화전을 일구다 떠난 빈터에 싸리나무가 많이 자라 ‘추전(柎田)’이란 이름을 붙였다 한다. 추전에서 화전을 일구던 화전민과 이 철로를 만든 노동자들은 이제 없지만, 탄광을 누비며 광부들과 애환을 함께 하던 광차(鑛車)가 눈꽃열차 관광을 위한 볼거리로 전시되어 그 시절을 반추한다.

탄광산업의 호황으로 사람들이 몰리던 태백선도 짧은 영화를 뒤로 하고 위기를 맞는다. 이렇게 태백선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자연과 인생의 오묘함을 철리로 말없이 일러준다. 산업철도로서의 태백선은 절정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목하 관광철도로서의 태백선은 경북선과 연계되어 중부내륙순환열차 O-train²과 백두대간협곡열차 V-train³이란 이름으로 인기를 끌며 인생역전, 아니 철도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

가족 여행으로 각광받고 있는 태백선의 지선, 정선선

기실 태백선은 서울을 교차점으로 남북의 축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전역을 X자로 잇는 한국철도사에 비추어보면 험준한 백두대간을 동서로 연결하는 이채로운 존재다. 동서를 횡단하는 산업용 철도라는 점도 그렇지만, 가족여행 코스로 각광받는 정선선을 지선으로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2일, 7일마다 서는 정선 오일장과 레일바이크, 또 아우라지 덕분에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정선선은 태백선의 동생 격으로 석탄수송을 위해 태어난 철도다. 민둥산역~아우라지역을 연결(38.7킬로미터) 하며 총 일곱 개역을 통과한다. 정선선의 완전 개통이 이뤄진 것은 1974년. 공사를 개시한지 꼭 12년 만이다. 정선 오일장과 함께 레일바이크는 현재 정선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다. 레일바이크⁴를 타고 구절리역에서 출발하여 싱그러운 경관을 감상하면서 아우라지역까지 갔다가 구절리역으로 되돌아오는 데는 영화 한 편을 감상하는 시간이 걸린다. 아우라지역에 가면 할 일이 하나 있다. 곤드레나물 비빔밥도 좋지만, 콧등치기 국수를 맛보는 일이다. 투박한 외양에 쫄깃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인 콧등치기 국수는 메밀로 만든 면발이 고무줄 같은 탄성이 있어서 후르륵하고 국수를 먹을 때마다 콧등을 친다 해서 붙은 재미난 이름이다. 뿐인가. 정선선은 굽이굽이 골짜기마다 사연도 많다. 단종의 전설과 유적지, 아우라지 처녀의 이야기, 한강의 줄기인 조양강과 주변 시골 풍경, 한반도 지형을 빼닮은 선암마을의 곡류 하천, 황기 찼빵 등 정선은 가족 여행지로 제격이다.

일기일회(一期一會)라고 했던가. 모든 순간은 오직 한 번뿐이다. 취재를 하며 이야기를 모으고 풍경을 채집하느라 놓쳐버린 태백선~정선선의 많은 순간들이 못내 아쉽다. “또 오면 되지”하고 스스로에게 위안의 말을 건네지만, 그것이 기약 없는 거짓말임을 안다.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 기꺼이 속아주는 그게 편하다는 것을 알 만큼 경험의 나이테가 많아졌기 때문이리라. 정선선이 짧은 가족여행을 위한 철도라 한다면, 태백선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사색하기에 좋은 섬포와 같은 철도이다. 얇은 잠결에 얼핏 기적소리가 들리는 듯하더니 이내 다시 깊은 정적 속으로 잤아든다. ■

1. 함백파리굴[loop tunnel]:
파리굴 혹은 루프 터널은 급경사를 오를 때 쓰는 철도 운행 방법으로, 급경사지를 고리처럼 둥근 모양으로 돌면서 완만하게 올라간다. 터널을 파되, 똑바로 파지 않고 빙글빙글 원을 그리면서 위쪽으로 파서 경사지를 통과하는데, 이것이 마치 뱀이 파리를 튼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파리굴’이라 부른다. 스위치백(Switchback)처럼 열차가 정지할 필요도 없고 경사도 완만해서 속도를 내기에 좋다. 스위치백은 ‘자세를 반대로 바꾸다’는 뜻으로 경사가 심한 산간 지역의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누고 선로를 ‘Z’자 형으로 설치해 열차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나아가는 방식이다. 속도를 내기 어렵고 후진 시 사고 위험이 많아 루프 터널로 대체하며 점차 그 이용이 줄고 있다. 국내에는 영동선 삼척 흥전역 나한정역 사이 동백산~도계 구간(17.8킬로미터)에 유일하게 스위치백 구간이 있었으나 2012년 철도 이설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사라졌다.

2. 중부내륙순환열차 O-train :
오지로 불리던 중부내륙 3도(강원, 충북, 경북)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유려한 자연풍광이 많이 남아 있다는 뜻. O-train은 이 지역을 하나로(One) 잇는 관광열차이다. 제천에서 출발해 하루 4회 태백선, 영동선, 중앙선을 포함해 중부내륙 257.2킬로미터를 순환한다. 정차역은 ‘제천·영월·민둥산·고한·추전·태백·철암·승부·분천·춘양·봉화·영주·풍기·단양’까지 열네 곳. 제천역에서 출발해 노선을 다 돌면 4시간 50분이 걸린다. 국내 철도역 가운데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철암역에서 10분간 머문다. 서울에서 제천까지는 2시간. 한편 O트레인 패스(성인 기준 1일권 5만 4,700원, 2일권 6만 6,100원)를 구입하면 O트레인뿐 아니라 V트레인과 무궁화·새마을호(태백·정선·충북·경북·중앙·영동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3. 백두대간협곡열차 V-train :
‘V’는 계곡을 뜻하는 ‘Valley’의 약자이며 동시에 협곡의 모양을 상징한다. 분천-양원-승부-철암 구간 27.7킬로미터를 하루 3회 왕복한다. 특히 경치가 아름다운 분천~석포 구간은 시속 30킬로미터로 천천히 달려 열차 안에서도 절경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다. 양원역과 승부역에서 잠시 멈춘다.

4. 레일바이크:
정선선이 다니던 철로 위를 달리는 네 바퀴 자전거. 구절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송천강 줄기를 따라 7.2킬로미터구간으로, 자전거는 2인승과 4인승 선택이 가능하며 하루 5회 운영한다. 경치를 여유 있게 즐기려면 시속 15킬로미터 정도로 달리는 게 좋다.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아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해야 한다. 매월 1일에 그 다음달 예약 시스템이 오픈된다. 즉 8월 예약은 7월 1일에 시작한다. www.railbike.co.kr

글 : 정연수
탄전문화연구소장.
태백에서 태어나 자랐다.
탄광촌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다. 학부 졸업 후 장성광업소 기계실에서 10년간 일하면서 탄광촌을 기록했고, 그 자료들로 1991년 탄전문화연구소를 열었다. 이후 연구와 대학 강의를 병행하며 탄광촌의 정체성을 찾고 탄광 문화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논문 〈탄광시의 현실인식과 미학적 특성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탄광촌 금기어·금기행위 연구〉로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한국탄광 사전집》과 《탄광촌 풍속 이야기》가 있다.

Reading the City 1

검은 산 아래 팔도공화국

한강이 태백시에서 발원하듯 한국 근대 산업의 동력은 남한 최대 탄광 도시인 태백시에서 발원했다. 1926년 장성동 ‘거무내미[黔川]’에서 석탄이 발견되면서 1936년 개광한 장성광업소는 태백 탄광의 만형이다.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마흔한 개의 탄광이 있던 태백시에는 지금도 두 개의 탄광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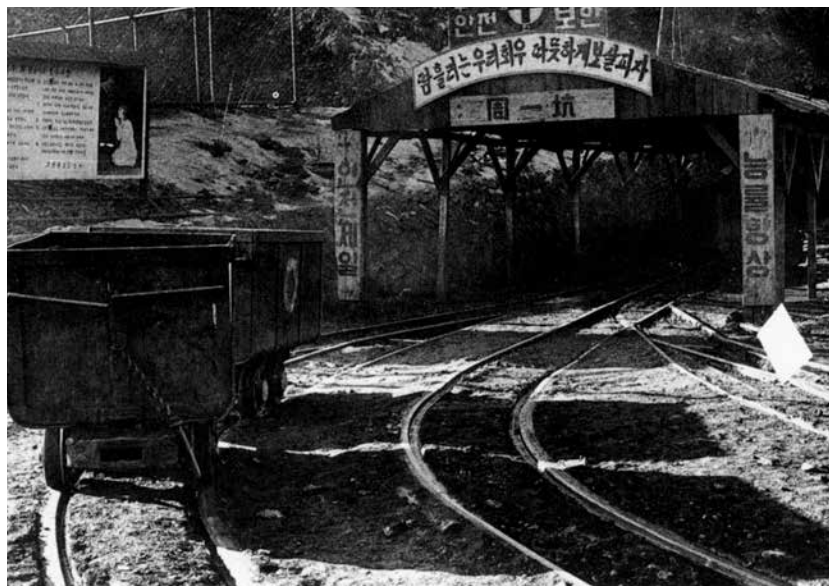
국내 최대 규모 탄광촌, 태백시

태백의 탄광 개발은 100여년 전 일제의 자원 수탈 야욕에서 시작했다. 1931년부터 1945년 사이에 일본은 만주침략·중일전쟁·러일전쟁·태평양전쟁 등을 치르면서 해군력 증강에 혈안이 되었고, 군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열효율 높은 조선의 무연탄(無煙炭)이 절실했다. 조선총독부는 “태백권(당시 삼척)은 가장 우수한 무연탄을 지녔으나 험준한 산악 지형 때문에 개발이 힘들다”고 했으나 일본 군부는 묵호항을 통해 일본으로 해상 수송이 편리한 곳에 있는 태백시 장성광업소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군부의 명령으로 1936년 남한 지역 최대 탄전인 삼척탄광(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이 개발됐다.

탄광이 개발되면서 전국 각지 사람들이 징용을 피해 장성으로 몰려들었다. 일제는 장성과 철암 집단 거주지에 ‘미아리소[見張所]’라는 감시 초소를 두고 도망치거나 결근한 노동자들을 잡아 매질했다. 조선총독부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징용령’을 내려 생산책임제를 시행했으며,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을 개정하여 부녀자까지 탄광에 끌어들었다.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 북한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되자 탄광 개발은 더 시급해졌다. 1950년 6월 발발한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해 11월 국영 기업인 대한석탄공사를 창립할 만큼 에너지원 확보는 시급한 과제였다. 1951년 7월 운영에 들어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복구 사업과 생산을 병행하면서 전쟁 기간 중에도 석탄을 생산했다.





보성광업소, 1987

사진 : 김재영
탄광 사진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태백으로 전학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탄광을 기록해온
보기 드문 토박이 작가이다.
『탄전이야기』, 『검은산
검은하늘』의 개인전 및
여러 단체전을 통해 탄광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사진을 선보였으며, 독일
보훔 광산박물관은 그의
탄광 사진 15점을 영구
보존하고 있다. 1992년
사진집 『검은산 검은하늘』
을 발표했고, 2007년 강원도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선정되었다.



우성탄광, 1987

태백시는 원래 삼척군에 속해 있던 장성읍과 황지읍이 합쳐지면서 1981년에 만들어진 도시다. 같은 해에 도계읍을 군 소재지로 하는 삼척군과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삼척시가 분리되었고, 그 전 해인 1980년에는 삼척군 북평읍이 묵호읍과 합쳐져 동해시로 승격됐다. 삼척군 하나에서 삼척시, 삼척군, 동해시, 태백시까지 4개 시·군이 탄생할 만큼 석탄 산업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파독 광부가 1975년부터 장성에서 탄광 기초 훈련을 받았으니, 태백시는 파독 광부 활동에도 기여했다.

시민의 98퍼센트가 외지인인 태백시는 ‘전국에서 1개 읍(면) 사람만 빼고 다 모여 들었다’고 하여 팔도공화국으로 불렸다. 광산 이주민들이 정착하고 2세들이 태어나면서 지금은 명절이면 태백을 뿌리 삼아 찾는 귀성객이 더 많지만, 1980년대 태백은 명절 때가 되면 너도나도 고향 찾아가느라 도시가 텅텅 비었다.

탄광촌은 광업소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독자 문화가 형성됐다. 소도동의 함태탄광은 1954년 음력 5월 5일 단옷날에 개광하면서 단오제가 성대하게 열렸다. 3~4일씩 광업소 공휴가 났으며, 운동장에서는 사나흘 내내 단오제가 열렸다. ‘함태단오’라고 불렸다. 함태탄광은 1990년대 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당시 노동운동의 단골 메뉴였던 도급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광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곳이기도 하다. 1993년 폐광되었으나 지금도 태백 시민은 매장량이 풍부한 함태탄광을 재개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민영 탄광의 메카, 정선군 사북과 고한의 불야성

정선군은 민영 탄광의 메카였다. 정선군에는 석탄공사 함백광업소 외에도 우리나라 최대 민영 탄광인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와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를 비롯해 묵산탄광, 자미원탄광, 동고탄광(나중에 세원탄광으로 변경), 경일탄광 등이 있었다.

1973년 동면 사북출장소가 사북읍으로 승격된 것은 온전히 동원 사북광업소가 있기에 가능했다. 4,500명이 근무하던 사북광업소는 2004년 정선군의 마지막 광업소로 폐광되기까지 사북읍의 중심이었다. 지장산 사택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광부 사택으로 불렸고 ‘대한민국 택시 최고 황금 노선은 사북 시내-지장산 사택이다’라는 유행어도 있었다. 광산 노임이 나오는 날은 사북 전체가 시장으로 변했다.

1985년 사북읍 인구는 23,162명, 고한읍 인구는 32,801명으로 정선군 전체 인구의 43.5퍼센트를 차지했다. 고한읍은 종업원 3천 명이 넘는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동고탄광 등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1988년 36개에 달하던 정선군 탄광이 석탄산업합리화 기간 동안 문을 닫으면서 사북과 고한은 폐광촌으로 전락했다. 주민들은 생존 대책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에 들어갔고, 폐광지역지원 특별법을 통해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를 유치한다.

2000년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오르고 모텔이 들어섰다. 폐광으로 문을 닫고 흥가로 변했던 주택과 상가는 전당포, 보석방, 자동차매매센터 등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카지노의 성공적 운영에 이어 스키장, 골프장, 오락시설 등의 가족형 휴양지까지 들어서면서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는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일부 주민은 강원랜드를 기반으로 큰돈을 벌었다. 폐광촌 고한 사북이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면서 카지노가 소재한 정선군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인 태백시마저도 카지노의 배후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고 카지노 유치의 혜택이 탄광촌의 주인이자 카지노 유치에 앞장섰던 실직 광부와 그 가족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빈부차가 커지면서 카지노를 향해 던지는 ‘막장만도 못한 젠장’이라는 비판과 한숨 소리도 있다.

막장정신으로 일군 석탄 생산

탄광촌과 채탄 막장은 경제적 곤궁에 처한 광부가 배수진을 친 생활 노동 현장이다. 고향을 등지고 산간 오지로 들어와 절망적 삶을 희망으로 이끄는 정신, 그것이 바로 광부의 막장정신이다. 아무리 탄을 캐내도 영원한 막장인 그곳에서 그래도 꿈을 꾸며 석탄을 캐냈다. 죽음이 상존하는 작업장이었지만, 막장정신이 있었기에 광부들은 캄캄한 굴속에서의 두려움을 이겨나갔다.

지하의 탄맥을 찾아 갱도를 뚫는 굴착 과정(굴진)은 굴진부가 맡았다. 석탄 증산이 시급하던 시절에는 4교대 굴진 작업을 했는데, 갱내 작업 현장에서 서로 맞교대를 한다고 하여 ‘막장 교대’라고 불렸다. 정부까지 나서서 누가 가장 빨리 뚫는지 ‘고속 굴진’ 기록 경쟁을 붙이곤 했다. 당시 천주교 장성성당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요일 저녁 특전 미사가 있었다. 석탄 증산이 시급하던 시절, 일요일에도 쉬지 못했던 광부들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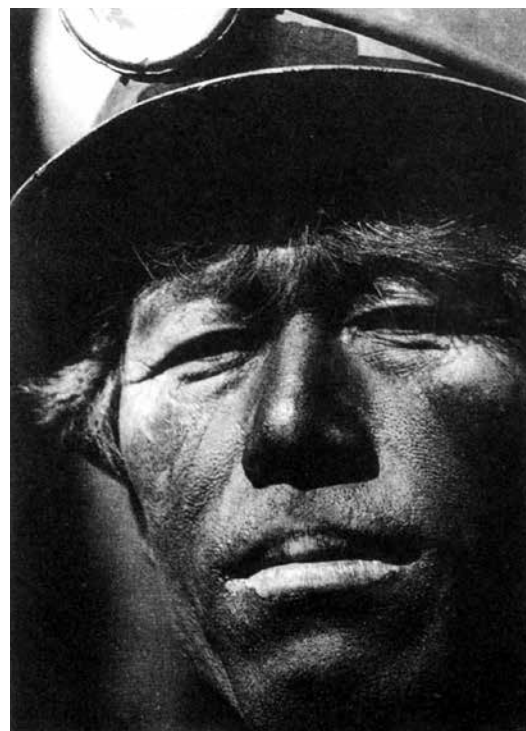
굴진 작업을 하다가 탄이 나오면 ‘노다지’라고 불렸다. 노다지를 발견하면 광업소에서는 갱구 앞에만 돼지머리와 떡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며 자축했다. 물론 새 갱구를 만들 때도 탄이 잘 나오기를 빌며 고사를 지냈다. 탄이 나오면 채탄부들이 투입돼 탄을 캐다.

후산부(미숙련공)의 목숨과 월 소득은 선산부(숙련공)에게 달려 있었다. 그래서 갱내에서는 ‘선산부가 일을 못하면 후산부를 잡는다’고 했다. 선산부는 작업에 필요한 톱과 도끼를 끈으로 묶어서 군인처럼 어깨에 메고 다녔다. 외지인들을 이렇게 출퇴근하는 광부들을 군인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굴진이나 채탄 작업 때는 주로 화약을 사용했고, 화약을 보관하던 골짜기는 화약골이라고 불렸다. 문곡 화약골, 화광동 화약골, 철암 화약골 등은 탄광촌에만 있는 지역명이다. 군사정권이 1980년 사북항쟁을 두려워했던 것도 광부들이 화약고를 먼저 접수했기 때문이다.

탄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나 석탄 저장소인 저탄장에는 늘 탄가루가 날렸다. 이 때문에 광산촌은 도시 전체가 새카맣다. 비가 오면 시가지는 ‘죽탄길’, 진창으로 변했다. 역두저탄장에서 흘러나온 탄가루가 빗물에 반죽이 되면서 장화없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다. 광부들은 ‘마누라는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했다.

굴진 과정에 나온 경석(일본식 탄광 용어로 ‘보다’)은 골짜기에 쏟아부었다. 탄광촌의 산 중턱에 군데군데 시커멓게 쌓여 있는 것이 경석장이다. 경석장에 저탄장까지 합세해 탄광촌은 마을길, 시냇물, 산까지 온통 새카맣다. 장성광업소가 있던 태백의 장성 지역만 탄광촌 중에서 유일하게 탄가루가 날리지 않았다. 기차역이 없다 보니 저탄장도 없어서, 장성에서 캐낸 탄은 모두 갱도를 통해 철암저탄장으로 옮겨졌다. 덕분에 광산 노동자 6천 명이 일하던 도시가 탄광촌 같지 않게 깨끗했다. 그 외 40여 개의 크고 작은 탄광이 있던 태백의 하천은 새카맣게 흘렀다. 아이들은 그런 하천에서도 물놀이를 했다. 중앙 목욕탕이 없던 시절 광부들은 막장에서 나온 검은 얼굴로 사택까지 걸어왔다. 석탄이 덕지덕지 묻은 작업복과 눈동자와 이만 하얗게 반짝이는 검은 광부를 만나는 것은 광산촌의 평범한 일상이었다.



한성광업소,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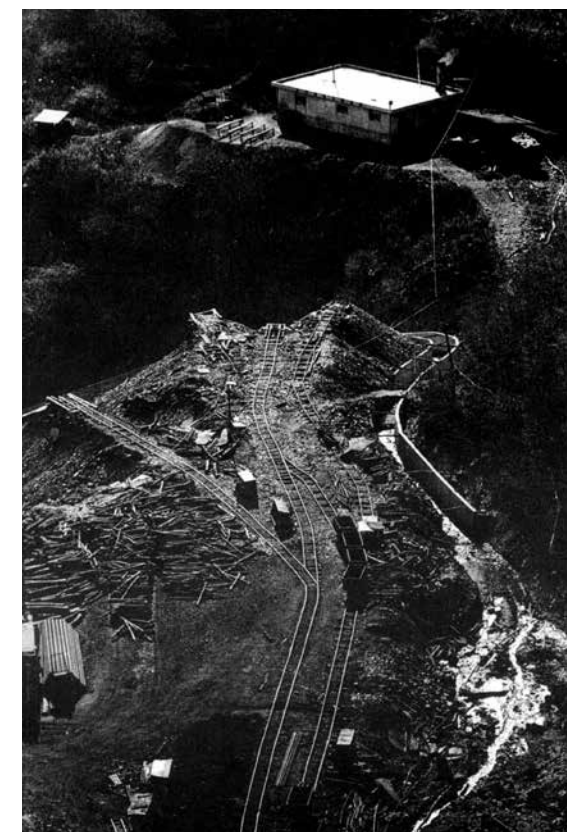
한성광업소, 1988



황지 저탄장, 1988



장성광업소, 1989



풍산탄광, 1989

광산의 일상

광부들은 채탄막장 근처 탄가루 풀풀 날리는 갱도 속에서 손도 씻지 못한 채 도시락밥을 먹었다.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 도급제 작업이므로 식사시간이 길지도 않았다. 40도에 가까운 지열과 높은 습도 때문에 장화 속에는 늘 땀이 고였다. 속옷을 벗어 땀을 짜는 광부도 있고, 옷통을 드러낸 채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석탄을 캐면 갯수룩막장은 깊어지고, 지하로 내려갈수록 지열과 습도는 높아져 작업 환경은 열악해졌다. 막장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물통, 곧 무너질 것 같은 갱도, 냄새도 빛도 없는 유독가스 때문에 늘 긴장감이 흘렀다. 광부들은 동발을 등에 메고 노보리(승갱도)를 기어서 채탄막장에 들어갔다. 언론에 종종 공개되는 것은 작업 환경이 좋은 ‘관광 노보리’였다. 작업이 끝나면 긴 갱도를 지나 갯구를 빠져나오는데, 겨울이면 지하의 더운 열과 바깥 찬바람의 기온차가 심해 광부들은 감기를 달고 살았다. 탄가루는 광부들의 직업병인 진폐증의 원인이 되었다. 광목으로 만든 목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작업하기도 했고, 나중에 방진 마스크가 보급되기도 했지만 광부들은 진폐증의 위험을 알면서도 방진 마스크를 쓸 수 없었다. 높은 지열과 습도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웠던 까닭이다. 2013년 기준, 전직 광부 2만 명 이상이 진폐증을 앓고 있다.(요양 환자 3,200명, 재가진폐환자 9,500명, 진폐 의증 3,300명, 정밀검진 대상 8,000명)

안전모는 낙반 사고나, 동발의 날카로운 부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생명과 직결되는 도구였지만, 1950년대까지만 해도 소규모 탄광에서는 안전모 없이 수건으로 머리를 감고 들어갔다. 안전모를 ‘똥바가지’라고 불렀는데, 용도를 다하고 나면 화장실 똥통(정화조) 처리에 쓰면서 생긴 별명이다. 장성광업소는 관리직은 흰색, 노무직은 노란색, 내빈은 파란색 안전모로 신분을 구분했다. 노동자와 관리자 사이에 위화감이 커지면서 1987년 장성광업소 노동운동 때는 ‘똥바가지 몰아내기’ 투쟁까지 전개됐다. 그 이후 석탄공사 산하 관리직의 안전모는 모두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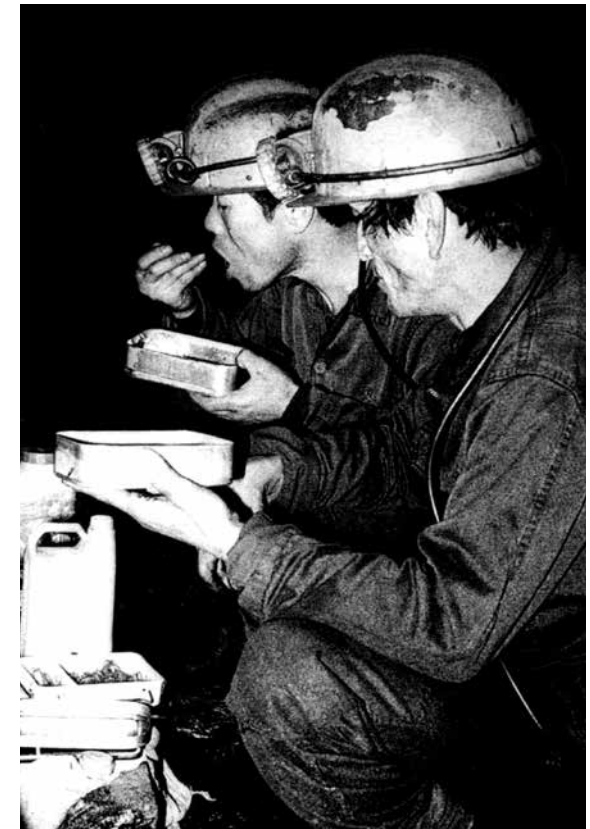
1980년대까지도 탄광 최고의 경영 목표는 석탄 증산이었다. 책임량을 다하지 못하면 관리자가 하급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뺨을 때리는 것이 다반사였다. 작업 지시 회의 때면 오리걸음이나 선착순 뛰기 같은 단체 기합이 흔했다.

여자 광부도 있었다. 부녀자들의 일거리가 전혀 없는 탄광촌에서 탄을 고르는 선탄부의 취직 경쟁률은 높았다. 탄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책으로 광부의 아내나 어머니, 딸의 취업을 우선 보장하면서 처녀 선탄부도 있었다. 선탄부들 역시 진폐증에 걸린 이들이 많다.

탄광은 갑방(오전 8시~오후 4시), 을방(오후 4시~밤 12시), 병방(밤 12시~오전 8시) 3교대로 돌아갔다. 고된 노동이 끝나면 광부들은 막걸리 한 사발로 탄가루를 씻어냈다. 외지 사람들은 탄광촌에는 대낮에도 술 취한 사람으로 득실댄다며 흉을 보았지만 이는 3교대 특성을 몰라서 했던 소리일 테다.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때는 두부나 계란 지급 공약이 나왔고, 식품 보너스를 더 많이 주겠다는 후보가 당선됐다. 이것이 인기를 끌면서 광부들에게 지급할 두부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광업소도 생겼다. 소도동 함태광업소는 폐광되던 1993년까지 출근 때마다 우유 한 잔과 달걀 한 개를 지급했다. 함태광업소는 명절날 육류 지급을 위해 양계장과 목장을 직접 운영했는데, 살아 있는 닭을 한 마리씩 나눠줬다. 닭을 나눠준 날 퇴근길은 꼬꼬댁거리며 발버둥치는 닭의 다리를 끈으로 묶어 집으로 들고가는 광부들로 진풍경을 연출했다.

1980년 사북항쟁 이후 정부에서는 광부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뒀다. 정부에서 광부의 건강식을 위해 탄광에다 살아 있는 돼지를 보급한 적이 있다. 화전동의 어룡광업소는 보급받은 돼지를 기르다 나중에 300두까지 늘어나자 목장까지 만들어서 관리하며 노동자들에게 배급했다.



장성광업소, 1989



보성광업소, 1987



풍산탄광, 1988



태영탄광, 1987



황지광업소, 1989

‘전축 판매량 전국 1위’를 낀 3교대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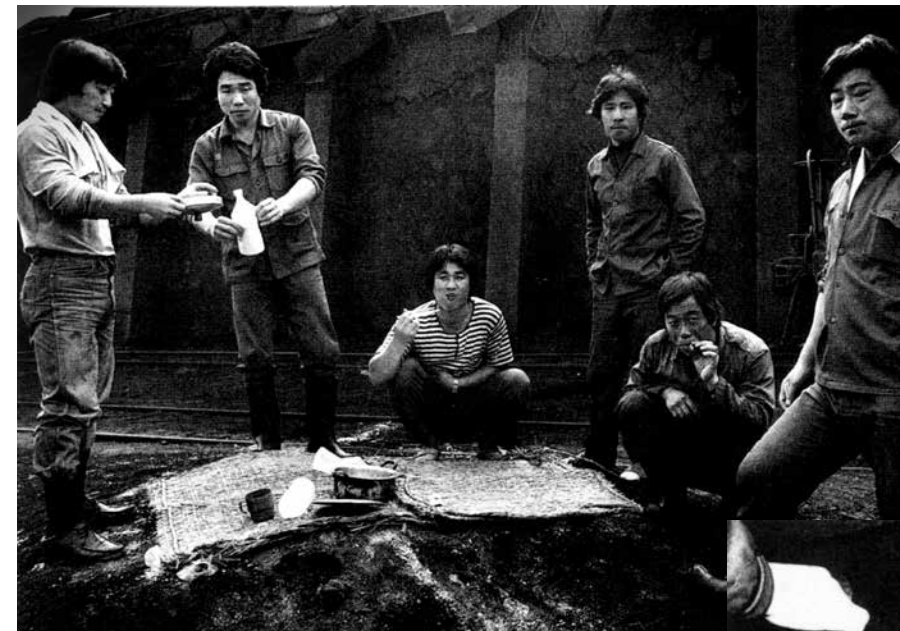
석탄증산이 최우선 과제였던 1960~1980년대의 광업소 공휴일은 한 달에 한두 번이 전부였다. 쉬는 날이면 주변 계곡은 돌구이(달궈진 돌 위에 고기 구워먹기)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금천 잣나무굴, 문곡폴장계곡, 동점 방태굴, 소도 당굴 등이 유명한 돌구이 장소였다. 또한 광업소 공휴일은 자연스럽게 켓날이 되었다. 공휴일만 되면 사택마을은 밤새 떠들썩했다.

탄광촌에서는 유독 계가 성행했다. 이는 고향을 떠나온 외지인으로 구성된 공동체, 열악한 노동 환경이 빚은 죽음에 대한 공포, 마땅한 유흥거리가 없는 탄광촌의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돈놀이계, 금반지계, 관광계 등이 탄광촌 문제로 등장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광부들의 공동체 문화가 반영된 친목계가 많았다. 작업장 광부들끼리 모임인 막장계나 방우리계, 아침에 출근하는 노동자끼리의 모임인 상갑방계나 조갑방계, 3교대 중 같은 근무 시간대 광부끼리의 모임인 가다계, 같은 사택에 사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인 사택계, 그 외에도 형제계, 남매계, 고향계 등을 통해 동료애를 다졌다.

친목계가 있는 날이면 유사(有司)를 맡은 집에서는 낮부터 인근 주민들에게 떡을 돌리거나, 점심때 초청하여 비빔밥이나 국수를 대접하며 유사 날임을 알렸다. 동네 이웃들을 다 불러놓고 떠들썩하게 유사 날을 알리는 것은 탄광촌의 인심이기도 하겠거니와 사택의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켓날 유사를 맡은 집에서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춤추고, 노래하고, 떠들며 놀았다. 그래서 미리 이웃들에게 ‘방해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떡을 돌리거나 점심을 제공하며 인사를 하는 것이다. 유사를 맡은 집의 옆집이나 앞뒷집에서는 밤새 커다란 전축소리와 시끄럽게 떠들며 노는 소리를 생생하게 다 들어야 했지만 누구 하나 짜증을 내거나 탓하는 사람 없이 모두 잘 참았다. 어른들 술잔치는 고사하고 아파트 위층에서 아이들이 조금만 뛰어놀아도 쫓아 올라가 항의하거나 신고하는 요즘 세대와는 달랐다.

켓날 유사 때는 마이크가 달린 전축이 최고의 인기였다. 전축을 힘차게 틀어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술을 마시며 즐기는 것이 켓날의 풍경이었다. 전축이 없는 집에서는 이웃집의 전축을 빌려왔다. 1970년대에는 승용차도 없던 시절이니 손수레로 전축을 실어 날랐다. 값비싼 전축이 손수레에 실려 옮겨지는 모습 또한 진풍경이었다.

사택에서 전축이 유행한 데는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3교대 근무자들의 놀이문화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탄광촌 사람들은 유독 노래와 춤을 즐겼다. 그러나 전축이 유행한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전축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한 처방이었다. 벽을 나무관자나 블록으로 세운 탄광촌 사택은 방음이 취약했다. 방음이 안 되는 사택 생활을 어색해하던 신혼부부들이 먼저 전축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낮에 쉬고 밤에 일하는 병방 근무자는 전축을 크게 틀어 놓고서야 아내와 사랑을 즐길 수 있었다. 낮에 텔레비전이 안 나오던 시절, 전축은 완벽한 방음 장치였다.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을 살 형편까지는 못 된다 해도 전축만큼은 너도나도 사들였다. 1970~1980년대 태백 탄광촌의 한 전축 대리점 판매량이 몇 달간 연속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당시 가전업계에서는 집집이 전축을 장만하는 것을 보고 탄광촌의 경기가 좋으면서 놀랐지만 거기에는 3교대 근무자들의 ‘낮 생활 보작용’이라는 사연이 있는 것이다.



황지, 1989



탄광촌 금기

석탄 증산이 시급하던 시절 광업소에는 ‘선 생산, 후 안전’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광부들은 ‘저승밥 싸서 다닌다’고 했다. 1986년 기준 통계로 보면 당시 전국 탄광노동자는 68,861명이었는데, 1978년부터 1987년까지 10년 사이 탄광 재해로 1,749명이 숨졌다. 태백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산 중턱에 그 광부를 위로하는 ‘산업전사 위령탑’이 있다.

작업 환경이 위험하다 보니 탄부들 사이에는 금기도 많았다. 죽을 사(死)와 발음이 같은 숫자 ‘4’는 쓰지 않았고, 아내들은 도시락을 쌀 때도 밥 네 주걱 푸는 것을 피했다. 남자가 출근할 때 여자가 그 앞을 가로질러 가는 것도 철저히 금기시됐다. 장성 지역의 여성들은 오랜 생활 금기가 몸에 익숙해져서, 지금도 남자 앞을 가로지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갱도에 들어갈 때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갱내에서는 휘파람을 불지 않았다. 갱내에서 쥐를 잡는 것도 금기였다. 쥐는 갱내에 유해 가스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스 탐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폭발성 가스의 위험이 상존하는 갱내에 라이터 같은 인화 물질이나 담배 반입은 당연히 금지였고 이는 감독들도 나서서 지키는 사항이었다. 입갱 전엔 소지품 검사가 이루어졌고 만약 숨기고 들어갔다 갱내에서 적발되면 해고나 징직 같은 중징계 처분이 있었다. 전국 최초의 금연 작업장은 아마도 탄광 막장일 것이다.

탄광에서는 경력자를 ‘묵은 돼지’, 갓 입사한 사람은 ‘햇돼지’라고 불렀다. 햇돼지가 막장에 배치를 받은 날은 인근 술집에서 ‘햇돼지 잡는다’는 신고식이 벌어졌다. 광부들이 햇돼지 타령을 하면 아내들은 ‘나는 3천만 원짜리 검은 돼지를 키운다’는 말을 내뱉곤 했다. 3천만 원은 남편이 탄광에서 사고로 죽고 나면 받는 재해 보상 금액이다. 남편을 언제 잃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자조하는 것이다. 탄부의 아내들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반드시 남편의 신발 한 켤레를 방 안쪽으로 향하도록 놓고 무사 퇴근을 빌었다.

광부의 꿈, 탄광촌 사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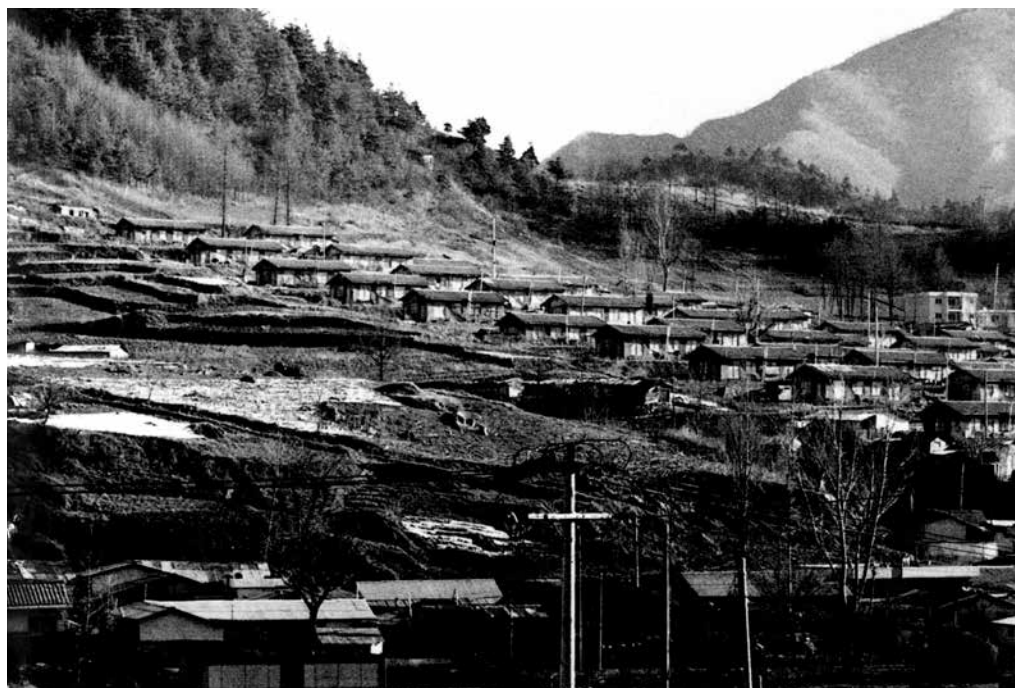
탄광 개발 규모가 커지고 외지에서 몰려드는 광부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탄광촌에는 미국 원조지원(AID차관)과 국고 보조를 받아 사택이 들어섰다. 인력난을 겪던 광업소가 구인광고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사택 공급, 아파트 배정 등이었다. 정선군에서 집단적으로 등장한 사택의 시작은 1966년 사북역전의 사택촌이다. 1978년에는 태백에서 장성광업소 화광아파트가 11평형 3층 규모로 세워지는데, 이는 탄광촌 최초의 아파트형 사택이었다. 화장실이 밖에 있으며, 샤워 시설이 없는 이 아파트는 지금도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0년대 들어 장성 계산동에 13평으로 넓어진 5층 아파트, 실내 화장실과 샤워 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아파트가 들어섰다.

장성은 도시 전체가 장성광업소(1980년대 종업원 6,000명)라는 단일 회사에 의해 형성된 지역이다. 장성광업소에서는 사택 단위 별로 스피커를 설치해 출퇴근 시간과 점심때에 음악과 라디오 뉴스를 내보냈다. 그 스피커를 통해 광업소나 정부의 공지 사항을 전하기도 했다. 갱내에 큰 사고가 나면 방송이 중단됐는데, 그럴 때마다 광부가족들은 애간장을 태웠다.

사택은 1개동에 여러 가구가 방음도 안 되는 벽을 사이에 놓고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이웃간에 비밀을 만들 수 없는 환경이니 다들 옆집에서 생기는 일을 훤히 알고 살았다. 새롭게 알게 된 소식은 이른바 ‘우물방송’을 통해 널리 퍼졌다. 개인 수도가 없던 시절, 정보도 소문도 사택 한쪽에 있는 공동 우물을 중심으로 퍼졌다. 탄광노동운동 때 광부의 아내들이 격렬하게 동참했던 것도 이 우물방송을 통해 다진 친분과 학습 효과였을 것이다.

대개의 주택은 남향이 좋지만 초기의 탄광촌 사택은 야간 작업자의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향으로 지은 곳이 많았다. 탄광촌이 첩첩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산간 계곡을 따라 형성되다 보니, 사택 역시 지형에 맞춰 들어섰다. 황지 지역 어룡광업소 사택은 기차처럼 한 줄로 줄지어졌다 하여 ‘고삐사택’이라 불렀고, 두 동씩 붙여 지은 곳은 접사택이라 했다. 그 외에도 6칸짜리 육간사택, 간부들이 사는 양반사택 등 사택에는 다양한 별칭이 붙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장성 계산동의 산비탈에 세워졌던 일본인 간부들의 사택은 해방 후에도 장성광업소 간부 사택으로 활용되면서 계속 양반사택으로 불렸다.

석탄산업합리화로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태백시 주택보급률은 1993년 114퍼센트, 1995년 124퍼센트까지 올라갔다. 2002년 들어 87퍼센트로 다시 급감했는데 이는 폐광 지역 정비 사업으로 사택을 철거했기 때문이다. 광부들을 위해 아파트를 짓던 중 산업정책 변화로 갑작스럽게 폐광이 되자 문곡동의 광원복지아파트는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우여곡절도 생겼다.



장성광업소(사택), 1988



한성광업소(사택), 1988



추진초등학교, 1988

광산촌에 빼곡했던 텔레비전 안테나

도시 사람들은 탄광촌 살림살이 사정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번 놀란다. 처음엔 탄광촌의 사택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좁은 집에서 살 수 있지?’ 하고 놀란다. 그다음에는 그런 사택마저도 입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을 알고 놀란다. 사택은 고사하고 일반주택도 모자라 여섯 식구가 방 한 칸 세를 얻어 살아가는 집이 많던 시절이다.

무료로 공급되는 사택에 입주하는 것은 모든 광부의 희망이자 꿈이었다. 사택이라도 얻어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에 탄광에 취업한 사람도 많았다. 사택은 장기 근속자에게 우선 배당되었으므로 1960년대는 10년도 더 일해야 했고, 1970년대 들어서도 입사한 지 5년은 지나야 사택을 얻었다.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탄광촌 사택을 보고 진짜 놀라는 것은 따로 있었다. 지붕마저 낮게 웅크린 허름한 사택안으로 들어가 보면 1970년대 당시 귀한 가전제품이 사방을 둘러가며 잔뜩 있기 때문이다. 방안에는 텔레비전뿐 아니라 서울 잘사는 집에서나 있을 법한 가전제품을 모조리 갖추고 있었다. 양계장 같고 돼지우리 같은 사택이지만 집집이 텔레비전, 전기밥솥, 전축 등 없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당시 사택 지붕마다 늘어선 텔레비전 안테나는 호황을 맞은 탄광촌 경제의 상징이기도 했다.

가전제품 구매욕이 유행처럼 번질 수 있었던 것은 탄광에서 현금 보너스가 지급되면서부터였다. 광부들 사이에서는 한때 ‘보너스 안 탄 셈치고 전축 한 대 사자!’, ‘보너스는 공돈인데, 가전제품부터 사고 보자!’는 말이 유행했다. 가난에 찌든 한을 남들보다 먼저 첨단제품을 사들임으로써 풀어보려던 심정도 자리했을 것이다. 탄광촌의 과소비 풍조가 만연하여 광업소가 나서서 광부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과소비 방지 교육을 시행했을 정도이다.

1960~1980년대의 한국 경제 실정에 비추어볼 때 탄광촌의 의식주는 풍요로웠다. 갯내 막장에서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광부들은 먹는 것은 잘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잘 먹고 잘 노는 일을 최고의 생활로 여기면서 놀이게가 성행했으며, 공휴가 나면 음주가무를 즐길 만큼 유흥이 발달하였다.

전국 기생들이 줄을 서던 전성기 광산촌

탄광촌이 호황이던 시절에는 ‘강아지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는 말이 유행했다. 인감증만 뒷주머니에 차면 시집 오겠다는 처녀가 줄을 섰다. 광업소 신분증인 ‘인감증(인감증명서)’은 식당, 술집, 옷가게, 식육점, 옷, 신발, 그릇점, 마트 등 모든 곳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되던 시절이다. 지금도 장성 석공마트에서는 ‘인감 사용’이라는 문구를 간판 위에 큼직하게 써놓고 있다.

고급 요정만 봐도 탄광촌의 호황기 때를 짐작할 수 있었다. 황지에는 경주의 요석궁, 영월 탄광촌의 수원관과 더불어 국내 3대 요정으로 손꼽히는 대구관이 있었다. 그 외에도 은호정, 유락정, 황춘옥관, 통일관 등 요정 수십 개의 요정이 돈 많은 도시임을 입증했다. ‘황지를 거쳐 가지 않으면 기생 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태백의 요정은 번창했고, 대구관에 오면 때돈을 번다는 소문에 전국 기생들이 줄을 섰다. 전성기 시절 대구관에는 100여 명의 기생이 있었다. 대구관에 얹힌 일화는 무수하게 많다. 어느 탄광 사장은 탄을 팔아수금한 돈을 마대자루에 담아 들고 다니다가는 술집에 와서 텃을 줄 때 손에 잡히는 만큼 주기도 하고, 또 어느 사장은 지폐를 선풍기에 대고 막 뿌렸다.

광부들은 대폿집이나 니나눗집을 즐겨 찾았다. 태백시에는(구)철암역 앞, 통리역 주변, 화전삼거리 주변, 장성의 화신촌 지역, 대밭촌(집창촌) 일대 등은 대표적인 술집 골목이었다. 네다섯 평밖에 안 되는 니나눗집이라도 젊은 작부 4~5명씩 두고 있었다.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고 나면 탄가루가 씻겨나간다고 믿었으므로 광부들은 퇴근 후에 마시는 술을 당연하게 받아들었다.

광부 스카우트 경쟁

1960~1970년대 탄광 취업은 5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취업 브로커도 판을 쳤다. 탄광은 노동 강도가 센 만큼 척추나 시력 등의 신체검사가 까다로워 지정병원에 연줄을 대기도 했다. 큰 탄광은 모광(母鑛)이라고 부르고, 그 산하에 하청업체(덕대탄광이나 조광으로 불림)를 두었다. 영세 규모의 탄광이나 하청 탄광 소속 노동자들은 모광에 비해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경력이 쌓이면 급여와 복지혜택이 좋은 대형 탄광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특히 명절이면 보너스를 탄 뒤 직장을 옮기는 것이 유행이었다. 이것은 나중에 노골적인 광부 스카우트 경쟁으로까지 번졌다. 민영탄광 연합인 대한탄광협회는 1978년 동력자원부 장관과 대한석탄공사 사장 앞으로 공식 문서를 발송했는데, 내용은 민영탄광 광부 스카우트를 중단하고, 고용한 광부를 즉각 원 소속 탄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었다.

탄광은 육체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을 원했다. 1962년에 조사한 광부의 연령별 구성 비율을 보면 39세 이하가 전체의 81퍼센트를 차지했으며, 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의 생산 노동자들만 보았을 땐 40세 이하가 전체의 87.1퍼센트에 달했다.

석탄 증산에 매달리면서 인력난은 고질적 문제로 작용했다. 정부는 굴진, 채탄뿐 아니라 기계와 전기 직종에도 탄광업체 5년 근무로 병역을 대체하는 특례제도를 시행했다. 광부와 탄광촌 주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는 했지만, 1991년에는 정부가 외국 광부 수입을 추진하고 나서기도 했다.

한편 IMF로 경제가 어려워질 무렵, 실업자들이 탄광으로 몰려들었다. 석탄산업은 이미 사양길로 접어들었지만 탄광촌에는 광부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2006년 2월 장성광업소에서 20여 명의 광부를 모집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자 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400여 명의 구직자가 신청을 했다.



장성광업소, 1989

돈을 벌기 위해 마지막 각오로 선택한 탄광이었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굴속에서 캐는 돈은 힘이 없다’, ‘탄광돈은 햇빛만 보면 녹는다’는 유행어는 광부들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한다. 결국 탄광촌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광부가 되었다.

통행금지 시절에도 연탄 배달차가 비상 차량처럼 달렸고 고속굴진, 선 생산 후 보안, 3교대 광부가 당연시 됐다. 그만큼 석탄 증산은 시급한 국가 과제였다. 정부는 탄광촌 자녀를 탄광 노동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탄광촌 공업계 고등학교에다 광산과를 만들었다. 태백시의 태백기계공고, 정선군의 함백공고, 영월군의 영월공고, 삼척시의 삼척공고와 도계실업고에서 광부를 육성했다. 이것도 부족하여 1980년에는 충북 제천에 한국광산공고까지 들어섰다. 고등학교와 탄광촌 곳곳에서는 ‘우리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 ‘우리는 산업전사 보람에 산다’라는 구호가 넘쳤고, 태백시에서는 지역 축제 명칭을 ‘광공제’라고 부르면서 광업 종사자들의 자부심을 부추겼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영국 사우스 웨일스 지역에서는 1930년대에 이미 광산이 위치한 계곡을 중심으로 평균 장서 3,000권을 소장한 도서관이 200여 개나 있었다. 도서관이 탄광마을의 정신적 중심이었다. 탄광촌에서는 술집도 열람실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정책들과 견주어보면 태백, 고한, 사북의 탄광촌은 노동 착취의 공간이었다.

1989년 정부가 대체산업 유치 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탄광촌은 공황에 빠졌다. 1988년 전국 340개 탄광이 문을 닫았다. 실직 광부와 그 가족들은 안산이나 부천 같은 공단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탄광촌 주민들은 ‘국가 산업 발전에 의한 폐기처분’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1987년 인구 12만 명의 태백시는 석탄산업합리화 기간에 40여 개의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인구가 7만 명 넘게 줄어 도시 존립 자체를 위협받았다. 태백시는 지금도 (군부대가 모이면서 특별법으로 승격한 충남 계룡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꼬마 시(市)이다.

1994년 정선군 고한과 사북 주민들은 지역 회생의 일환으로 ‘핵폐기장을 유치하겠다’는 결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석탄감산정책 반대, 대체산업 추진 등을 내세운 대규모 시위를 통해 1995년 3월 3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유치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1995년 12월 12일 태백시에서는 광부, 진폐 환자, 실직 광부, 주민이 나서서 ‘태백시민 생존권 찾기 쉼기대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철로 위에 드러누워 기차를 막았고, 여의도로 몰려가 정부를 규탄했다. 1997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첫 유세 장소가 태백시였다는 것은 그런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 1998년 동해시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무렵 동해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 시위를 벌였지만 태백시에서는 화력발전소 건립 탄원서를 냈다. 정치인들은 화력발전소 건립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2001년 태백시장 선거 때는 교도소 유치가 공약으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유치 서명운동까지 전개됐다.

근대 산업 유산으로 소중히 다루어야 할 100년 탄광촌 문화

태백시 철암역 앞 상가들이 모두 문을 닫은 스산한 흔적과 철암역 뒤편의 대형 역두 저탄장은 탄광에서 폐광으로 향하는 탄광촌의 모습을 한눈에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3년 현재 한국에는 100년 탄광개발사에서 마지막 탄광이 될 5개 탄광이 남아 있다. 강원도 태백시의 장성광업소와 태백광업소, 삼척시 도계읍의 도계광업소와 경동상덕광업소, 전남 화순군의 화성광업소.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지자체는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탄광의 흔적을 벗고’라는 말을 내세웠다. 폐광지 복구라는 명목으로 광업소, 갱구, 폐석장, 광부 사택 등의 광산촌 흔적을 지우는 데 급급했다. 탄광촌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흔적을 석탄박물관에 가두고 싶어 하는 심정은 탄광촌이 지닌 열등한 자화상이기도 하다.

탄광촌은 1930년대에 시작해 1990년대에 폐광촌으로 몰락하기까지 석탄 산업이라는 단일 산업으로 도시를 형성하면서 탄광촌 고유의 문화를 만들었다. 이것은 농촌, 어촌 풍속과 더불어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할 근대 문화유산이자 산업유산이다.

다행히 현재 ‘철암역두 선탄시설’과 ‘장성 이중교(二重橋)’는 근대산업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지금도 석탄을 수송하는 추전역은 한국에서 해발 고도가 제일 높은 역으로 해마다 눈꽃열차가 찾아온다. 국내 유일의 탄광 축제인 사북석탄문화제가 18회째 이어지고 있고, 사북석탄유물전시관, ‘삼탄아트마인(Samtan Art Mine)’, 철암과 상장동의 탄광 주제 벽화가 탄광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탄광 문화를 가꾸는 일은 폐광의 아픔을 승화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

30년 전, 정선에서 자란 아이들

1980년대 초, 사북초등학교 5, 6학년과 정선 봉정분교 6학년 아이들의 일기와 산문

1970년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썼던 조세희는 1980년대에 들어 역시 같은 생각에 사로 잡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을 찾았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글을 써서 «침묵의 뿌리»(열화당, 1985)를 펴냈다. 책에는 당시 사북에서 어렵게 구한 ‘어린이글모음집’ 내용 일부도 수록되어 있다. 아이들의 글을 읽고 또 읽었다는 조세희는 ‘나는 이 문집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책으로 보관하고 있다.’ 고 썼다.

우리 아버지는 탄광에 다니신다.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면 동생이
“아빠 화장했네” 하고 말하면 온 가족이 웃는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그래 이녀석아, 화장했다”하고 말씀하신다. 언제나 하는 이야기지만 언제나
웃는다. 그런데 여름방학 때인가, 서울로 전학간 친구가 놀러와서 하는 말이
“야, 여기 아빠들은 새까맣네!”하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야, 너희 아버지가 여기 있을 때는 안 새까맣니!”하고 소리쳤다. (후략)
5학년 김승남

문집의 주인공들은 1980년대 초, 부모를 따라 농촌에서, 어촌에서, 혹은 공단 지역에서 광산마을로 온 사북초등학교 5, 6학년과 정선 봉정분교 6학년 아이들이다. 아이들의 글을 모아 문집을 엮은 이는 1997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임길택 선생님. 그는 1976년부터 강원도 탄광마을과 산골마을에서 14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줄 알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자기 시간을 아끼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그 누구나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의 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아이들을 격려하며 글을 쓰도록 이끌었다.

«침묵의 뿌리» 이후 30여 년간 등사판글모음집으로 남아 있던 아이들의 일기와 글이 지난해 «몽실언니도 지금은 잘거야»(보리, 2012)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판됐다. 강원도 탄광마을과 산골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은 힘들게 일하는 부모님 모습에 마음 아파하며 일찍 철이 들었다. 학교가 끝나면 당연한듯 집안일을 거들고 때로 그 일이 힘들어 툄툴거리다가도 곧 씩씩해진다. 겨울이면 썰매를 타고 봄에는 잡자리를 잡고, 남의 밭에 들어가 서리를 하는가 하면, 밤이면 경운기에 누워 별을 구경했다. 어느 날에는 냉이와 달래를 캐 장터에 내다 팔고 또 어느 날은 팔려가는 송아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금새 코끝을 찡하게 한다. 보리출판사의 허락을 구해 그 일부를 소개한다. 아이들은 이제 40대 중반의 어른이 되었을 테다.



함태 고목, 1988



태영탄광, 1986

1981. 1. 25

日

나는 중학교에 안 간다.
중학교에 보내 달라고
하면 아무 말을 안 한다.
아버지도 가슴이
아픈 것 같다.

육학년 우명희

1984. 5. 23

水

저녁 어둑해질 때까지
고추에 물을 주었다.
어둠이 점점 깊어지자
일하기는 더욱 싫어지고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섰다. 큰아버지는
집계손가락을 내저어
안 보일 때까지 한다고
하셨다. 기막힐 정도였다.
나는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은 좋아서 뒤도
보지 않았다.

육학년 김숙희

1984. 8. 23

木

점심때에 동생들이
없어서 동생들의 일기를
뒤져 보았더니 학범이는
일기를 개학하는 때까지 써
왔다. 나는 아버지께 일러
주었더니 학범이는 욕을
진탕 먹었다.

육학년 이미경

1982. 4. 29

木

집에 다 왔을 때
어느 차가 지나갔다.
얼굴이 새까만 아저씨가
트럭을 몰고 가는
것이였다. 트럭에는
탄이 가득 있어서 먼지가
많이 나왔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떴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면서
‘저런 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야.’ 하고
생각했다.

오학년 임덕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탄광에
다니시다가 굴이 무너져
3일 동안 굴 안에 계시다가
나와서 폐병에 걸리게
되었다. 어머니께서도
아버지를 걱정하셨다.
내가 1학년 때 우리
아버지는 병이 더
무거워지셨다. 2학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3학년 10월 9일에
아버지는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로부터 우리
어머니가 일을 다니셨다.

오학년 제정모

청소부 우리 아버지

동네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
직업을 말해 주지 않는다.
다른 아버지들은
탄광에 다니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병원 청소부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 직업이
창피하다.

오학년 김복순

달래 팔기

학교가 끝나면 순녀하고
나하고는 며칠을 고생해서
달래를 파가지고서
임계장에 갔다.
임계에 가니까 장사꾼들은
우리가 애써 캔 것을
1500원에 팔라고 했다.
우리는 팔지 않고 시장
복판에 가서 한 단씩
팔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짭다고 200원씩은
안 산다 그래서 우리는
150원씩 파니까 사람들이
많이 샀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 2850원을 받았다.

육학년 이미경

송아지

송아지가 팔려 가는 저녁
나는 한없이 울었다.
송아지는 가기 싫다고 그
좁은 마당을 이리로 저리로
비키면서 매매 울었다.
아버지도 가슴이 아픈지 큰
소 고삐를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계셨다. 큰오빠
학비와 그동안 진 빚이
많아 소 값 없는 때 소를
팔아야만 했다. 아버지는
소를 끌고 송아지를
때리며 소 차 있는 쪽으로
끌고 가셨다. 부르릉
차가 떠나자 한참 후에야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선
마루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셨다. 방에서 숙제하던
동생과 난 베개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육학년 김숙희

1982. 8. 21

土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언니가 언제 일어났는지
숙제를 하고 있었다.
나는 “벌써 일어났네.”
하고 밖으로 나와 토끼풀을
꺼내 주고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았다. 그런데
영화 나오는 것을 보니 꼭
뭐가 ‘연소자 관람 불가’
국민학생 관람 불가’라고
거진 이렇게 써어 있었다.
정말 어처구니없었다.
우리가 안 보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써
놓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만 써 놓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할까?
‘1살에서 4학년까지
관람 불가’

오학년 김미자

1982. 6. 23

水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식육점에 손님들이 오셨다.
회식을 하는 손님이라서
사람이 많았다. 아저씨들은
‘땡가랑땡가랑’ 상을
두들기며 박자와 음정과
가사가 하나도 맞지
않는 노래를 하였다.
너무 시끄러웠다. 어떤
때에는 아저씨들이
싸우기도 한다. 그때는
귀를 틀어막아야 한다.
숙제도 제대로 못 한다.

오학년 서향옥

1984. 8. 6

月

경운기 안에 자리를
깔고 동생들과 누웠다.
밤하늘엔 벌써 달과 별들이
떠 있었다. 별을 한번
만져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화책에서 본
별들처럼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나는 1등별,
2등별 하고 가려 보았다.

육학년 최은옥

1982. 9. 14

火

집에 왔다. 외양간에
있는 소똥을 쳤다.
매일 치기 때문에 싫증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아이들이 오징어
(놀이 이름) 하는 생각이
났다. 그래서 ‘소는
왜 자기 방에다 똥을 싸나.’
하고 생각했다.

오학년 송순호

1981. 1. 11

日

아이들과 재미있게
썰매를 탔다. 어제는
안 타고 그저께도 타고
그그저께도 탔다.
노는 것은 한계가
없나 보다. 놀면 또
놀고 싶고 또 놀면 또
놀고 싶다. 공부가
이랬으면 좋겠다.
공부하면 또 하고 싶고
또 하면 또 하고 싶고
자꾸자꾸 그랬으면
좋겠다.

육학년 최진숙

1982. 9. 7

火

무용이 다 끝나고
집에 와 보니
아버지께서 세수를
하고 계셨다. 아버지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면
굴속에 들어가서서
우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탄을
캐내고, 월급은
조금밖에 없다는 것이
나타나있다.

오학년 박영희

1982. 9. 15

水

아침에 일 가시는
아버지를 보면 ‘제발
오늘도 무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뿐 아니라,
‘일 가실 때도 밝은
마음으로 굴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는
내 마음, 아버지는
알아주실까?

오학년 박영희

1982. 5. 16

日

저녁때 내 동생이 숙제를
한다고 하였다. 나는
내 동생을 가르쳐줬다.
그런데 얼마나 돌머리인지
나눗셈도 잘 몰랐다.
“그렇게도 알으켜 줬는데,
으이고 돌머리야.” 하면서
꿀밤을 때렸다. 나는
‘수사 반장’도 못 봤다.

오학년 이재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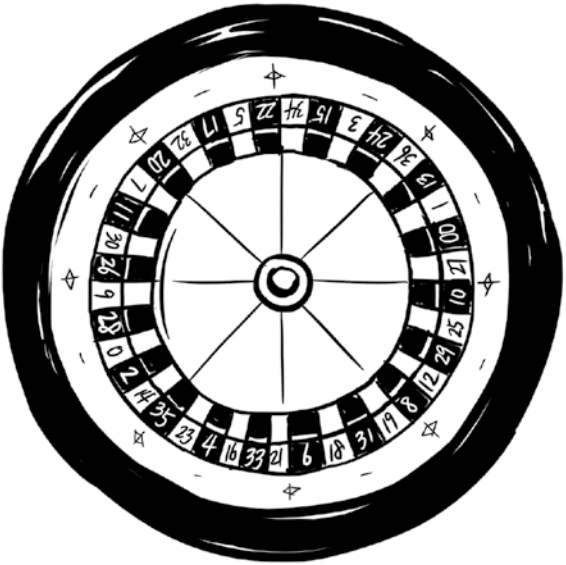
‘카지노 흥’의 취재 수첩

‘강원랜드 특구’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백운산 일대와 고한읍 지역에 들어선 강원랜드는 지난 15년여 간 카지노와 특급 호텔, 컨벤션 센터, 스키장, 골프장, 콘도 등으로 폐광촌에 ‘신천지’를 만들어 놓았다. 고한읍 사북읍은 물론 인근 남면 지역까지 10층이 넘는 숙박 시설과 상가 시설이 들어섰다. 고한읍과 사북읍은 강원도에서도 가장 변방에 위치해 있다. 1960년대 초 관광 개발과 함께 갑작스레 도시로 성장했고 석탄산업의 쇠퇴로 을씨년스러운 땅으로 전락했던 사북과 고한은 이제 야간에도 환하게 불을 밝힌 ‘카지노 도시’의 틀을 갖추고 있다.

글 : 홍춘봉
〈뉴시스〉강원지역본부 취재
부장. 카지노 전문 기자가
되고자 닉 네임도, 이메일
아이디도 ‘카지노 흥’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주요
카지노를 두루 섭렵했다.
그의 취재 수첩은 카지노
개장 이전, 강원랜드의
출범 때부터 지속적으로
취재하며 기록한 생생한
‘비화’로 빼곡하다.
카지노 취재 중 만난 수백
명의 각별한 사연들은
별도의 단행본으로 준비
중이다. 저서로《관광촌
공화국》이 있다.

일러스트: 김태우
국민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영국왕립예술대학원(RCA)
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 현재 한국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0	00	
1 to 18	1st 12	1	2	3
		4	5	6
EVEN		7	8	9
		10	11	12
◆	2nd 12	13	14	15
◇		16	17	18
		19	20	21
		22	23	24
000	3rd 12	25	26	27
		28	29	30
19-36		31	32	33
		34	35	36
		2 to 1	2 to 1	2 to 1





새벽 6시, 카지노 풍경

2013년 강원랜드 카지노는 게임 테이블 200대와 슬롯머신 1,360대를 갖추고 하루 평균 8천여 명, 주말에는 1만 명이 넘는 손님들을 맞고 있다. 카지노 영업장은 슬롯머신이 실시간 ‘분출’하는 현란한 기계 소리로 고객에게 게임 도전을 ‘유혹’한다. 또 바카라와 블랙잭, 포커 등 테이블 위에서 펼쳐지는 게임장에선 카드를 받을 때마다 사람들의 ‘탄성’이나 ‘환호’ 혹은 ‘한숨’과 ‘탄식’이 터져나온다. 유럽에서 고급 사교장으로 시작됐다는 카지노. 그 현란한 기계음과 게임하는 이들의 갖은 탄성은 영업장에 들어서는 이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게임에 빠져들게 하는 묘한 힘이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보유한 강원랜드에는 딜러 1천 5백 명을 포함해 안전 요원, 환전원, 호텔과 콘도 직원 1천여 명, 그 외 사무직 등 3천 명이 일하고 있다. 거기에 주차 관리와 시설 관리 등 협력업체 직원 2천여 명을 포함하면 카지노를 움직이는 이들은 5천 명이 넘는다. 직접 고용된 인원의 40퍼센트 이상, 또 협력업체 직원들의 90퍼센트 이상이 지역 주민들이다.

새벽이면 강원랜드 앞에는 전날 쌓인 음식 찌꺼기와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용역 차량부터 고급 식자재를 납품하는 냉동 탑차까지 줄지어 검수를 기다리고 있다. 오전 6시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직원전용 셔틀버스 수십 대는 고한, 사북, 남면은 물론 태백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싣고 강원랜드 호텔과 콘도, 하이원 호텔까지 밤늦도록 분주히 움직인다. 또한 이 시간이면 밤새도록 카지노에서 게임을 즐긴 고객들이 자가용으로, 혹은 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며 게임을 ‘복기’한다.

“아, 글썄 내추럴 나인이 나와서 이번에는 이긴다 했는데 뱅커에서도 똑같이 내추럴 나인이 나오는 거야. 세상에, 정말 운도 더럽게 없지.”

일주 2천명 가량의 고객들이 카지노가 휴장하는 오전 6시에 밀물처럼 빠져나가면 강원랜드 일대에는 몇 시간 동안 적막이 감돈다. 그러나 오전 9시부터 다시 카지노 입장을 위해 출근하는 이들이 등장하면서 게임 이야기는 계속된다.

“어제는 겨우 일당 벌고 말았지 뭐야. 아휴, 플레이 쿨이 10회 이상 내려오는데 베팅 자리가 없어 돈 딸 질호의 기회를 놓치니 얼마나 열이 받는지.”

딜러 1기 정미진 씨

딜러 1기생 정미진 씨(가명, 34세)는 2000년 6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딜러의 화려함을 기대하며 들뜬 마음으로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사했다. 그러나 처음 3개월간의 합숙은 간단치 않은 딜러 생활을 예고했다. 합숙은 마치 군인 훈련 과정처럼 잠시도 쉴 틈 없이 이론 교육, 실습, 연습, 평가로 숨가쁘게 이어졌다. 강원관광대학 카지노 계열에 다니며 기본은 익혔다고 생각했지만 카드를 마술사처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손기술 등 실전을 위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숙련해야 할 것들이 수두룩했다. 교관들은 “지식과 기술을 완벽하게 익혀라, 고객을 대할 때는 늘 회사 대표라는 생각을 가져라, 게임 테이블에서는 항상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응대하라”는 말을 수없이 주시시켰다. 또 “고객은 기쁨을 얻기 위해 카지노를 방문한다. 고객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조했다.

미진 씨 부모님의 고향은 영월이다. 딸 셋인 집안의 장녀인 그녀는 아버지가 광원이었고 폐광촌에 살고 있는 덕에 가산점을 받아 딜러 1기생에 합격했다.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강원랜드에 입사한 만큼 가족들을 봐서라도 멋진 딜러가 되어야 했다.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과 함께 딜러가 되어 카지노의 성장을 모두 지켜본 미진 씨는 이제 과장 직함을 가진 최고참 딜러다.

“초창기에는 VIP 고객이 거액의 돈을 잃고도 틱을 몇 천만 원씩 던져주고 가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고,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거나 인상을 쓰며 험한 말을 하는 등 매너 나쁜 고객들 때문에 당혹스럽기도 했다. 10여 년 무수하게 많은 고객을 접하고 나니 이젠 첫 눈에 ‘아, 이 고객은 어떤 사람이구나.’ 하고 꿰뚫게 된다.”

미진 씨 남편은 강원랜드를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있다. 시아버지도 광원 출신이고 시댁도 탄광촌 태백이다. 카지노가 커갈수록 나고 자란 자신의 고향도 함께 발전하는 것, 더불어 게임장이 ‘매너 좋은’ 고객들로 가득 차는 것이 미진 씨의 바람이다.





카지노 앵벌이

사람들은 돈을 따기 위해, 호기심으로, 혹은 강원도로 휴가를 왔다가 강원랜드 카지노를 찾는다. 대부분은 적당한 수준에서 게임을 즐기지만, 개중에는 카지노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을 맴도는 일명 카지노 ‘앵벌이’로 전락하는 이들도 있다. 카지노 개장과 동시에 생겨나기 시작한 앵벌이는 지난 2010년 상반기까지 2천 5백~3천 명에 달했다. 그리고 이들은 지역 경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앵벌이들은 고한이나 사북에 두 사람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민박집(월 30만 원 수준), 여관, 서민 아파트 등지에 살며 카지노에 출퇴근하다시피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여건이 더 나쁜 이들은 카지노 주변 사우나나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한다.

앵벌이들의 주 수입원은 ARS 예약으로 고객들이 선호하는 카지노 좌석을 미리 잡은 뒤 자리를 팔아 수십만 원의 일당을 버는 것이다. 또 카지노 1회 베팅액이 최고 3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 필요한 돈 많은 고객과 하루 계약을 맺고 대리 베팅을 도와주기도 한다. 운이 좋은 날은 50만 원 이상도 번다. 카지노 초창기에는 슬롯머신에서 ‘대박’을 잡은 고객 뒤에 있다가 “대박을 축하합니다” 하며 박수를 쳐주고 팁을 받기도 했고, 돈 있는 고객의 담배, 음료수 심부름 등 허드렛일을 하며 일당을 벌기도 했다. 그러나 도박 중독 문제가 커지면서 카지노 월간 출입 일수가 20일에서 15일로 감소하고 다시 10일로 줄어든다. 2010년 중반부터 앵벌이들은 대부분 강원랜드를 떠나갔다. 그들이 사라지면서 사북·고한 지역 민박집이나 숙박 업소 경기도 사그라들었다.

갬블러를 꿈꾸는 그녀

박정자(가명, 50세) 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외동딸과 함께 노래방을 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그러다가 2006년 2월, 친구 따라 놀이 삼아 온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알게 된 후 3개월 만에 노래방 보증금, 아파트 전세금을 다 날리고 딸과 함께 고한으로 이주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바카라와 블랙잭 게임을 공부하며 게임을 하거나 대리 베팅이나 좌석 매매를 한다. 또 카지노에서 알게 된 여성들을 카지노 남자 고객에게 연결해주는 ‘마담뚜’ 일로 부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게임을 하다가 안면 있는 남자 갬블러가 찾아와 “정자 씨! 오늘 괜찮은 동생 하나 연결해줘.” 하면 그녀는 카지노장을 돌며 친한 여성을 찾아 연결해주고, 남자 갬블러에게 팁을 챙기는 식이다. 여기, 박씨의 푸념.

“어찌다가 카지노에 빠져 앵벌이가 되었는데, 가끔 내가 미쳤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지금은 블랙잭 게임으로 일당을 벌어 생활하고 있는데, 나도 오기가 있어서 떠나지는 못한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갈 곳도 없다. 이제는 카지노에서 돈 버는 겜블러로 살아갈 생각이고 이곳이 나의 직장이라고 생각한다.”

마카오를 벤치마킹한 전당포 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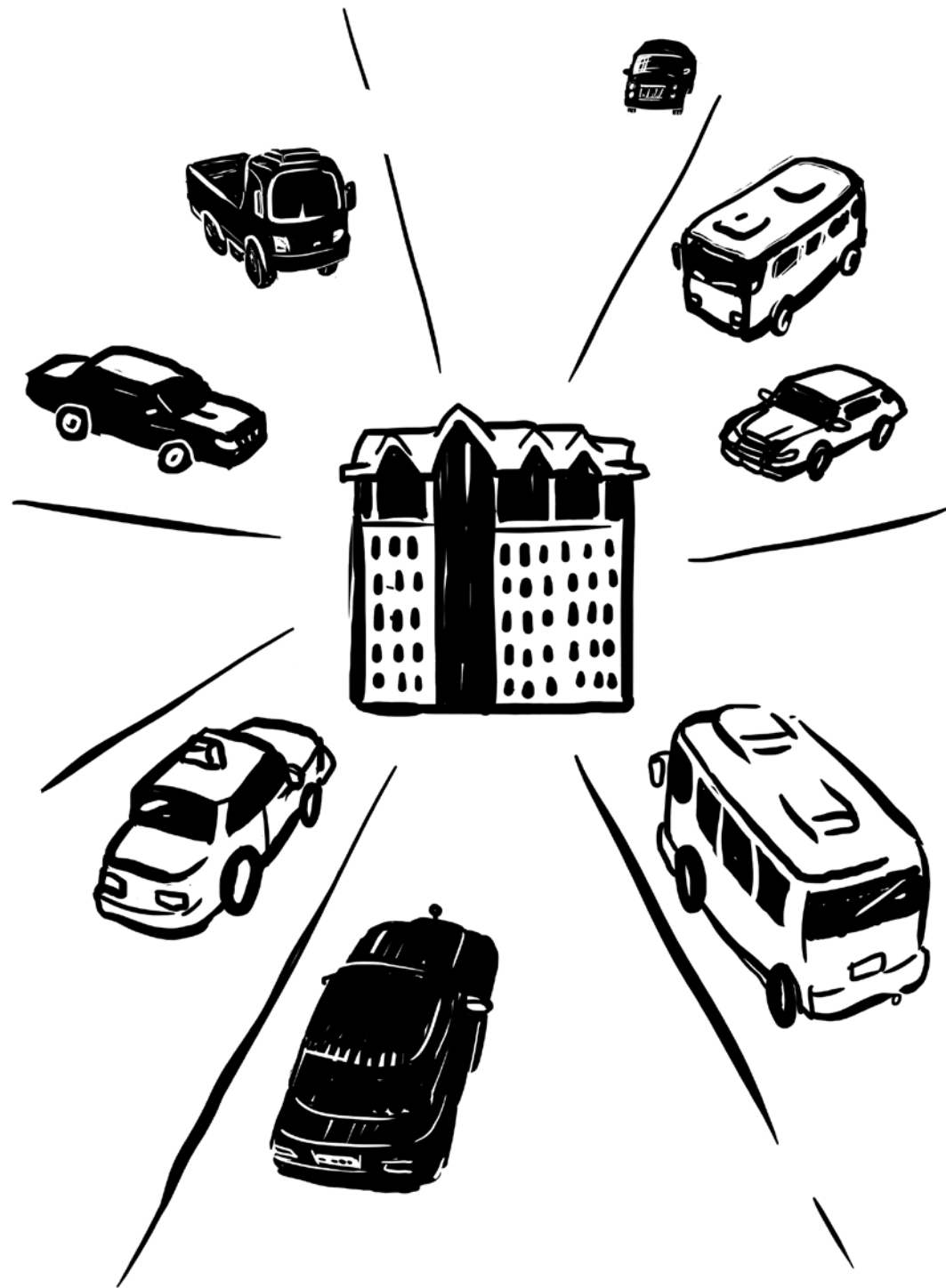
‘악어와 악어새’라는 표현은 카지노와 전당포에 적절하다. 2000년 10월 28일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 이후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전당포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주변에 사채업자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뒤따른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본전’ 찾기에 혈안이 되고 밀전을 준비하기 위해 사채를 빌린다. 강원랜드에 고객이 몰리면서 전당포 등 사채업이 번창한다는 소문이 나자 서울과 호남의 주먹들도 돈을 싸들고 강원랜드로 찾아와 전당포를 차렸다.

최명호(56세) 씨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하기 직전 마카오에 찾아가 카지노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 ‘벤치마킹’했다. 그리고 돈을 빌려 자본금 3억 원으로 전당포를 차린 다음 순금, 다이아몬드, 명품 시계의 진품과 짝퉁 감별법 등을 배우고 카드깡 요령을 익혔다. 하루 저녁에 1할의 이자를 받는 카지노 사채업은 고객의 신용도와 재력을 보고 적정한 돈을 빌려줬다가 제 날짜에 정확히 수금해야 성공하는 사업이다. 최씨의 경험담.

“하루는 젊은 여성이 돈을 빌려 달라고 미인계로 유혹하더라. 연예인 뽀짝하게 예쁜 여성이 유혹하는데 5백만 원을 빌려주고 말았다. 대구에 빌딩도 있고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해서 다 합쳐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행방불명이 됐다. 대구 집으로 찾아갔는데, 빌딩은 못 찾고 반지하 전세방에서 뗏거리도 없는 노모와 자식만 보고 발길을 돌렸다.”

명호 씨는 밤중에 카드로金を 사고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금깡’을 통해 꽤 수입을 올렸다. 딱 3년 전당포로 돈을 번 뒤 그는 사채업에서 손을 뗐다. 전당포를 차린 이들 상당수는 ‘앞으로 담고 뒤로 밀지는 장사’를 했고 개중에는 야반도주를 하는 이들도 있다. 사채업자들끼리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고객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고객이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고 자취를 감추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일부는 고객을 만들고 안면을 익힌다고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하루에 수백만 원씩 야금야금 날리는 바람에 알거지가 되기도 했다.





강원랜드 개장 후 생겨난 직업들

카지노가 개장하면서 생겨난 등장한 직업에는 카지노 앵벌이나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전문 잼블러, 전당포 등의 사채업자 말고도, 동서울터미널과 강원랜드를 오가는 총알 택시(단독 20만 원, 합승시 8만 원), 대리 인생(대리 베팅, 대리운전 등) 등이 있다.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해 강원랜드를 오가며 자칭 전문 잼블러로 활동하고 있는 고객은 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한다. 직장에 출근하듯 버스를 이용해 카지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서울, 의정부, 일산, 인천, 부천, 안산, 수원, 성남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청주, 천안 등 전국을 망라한다. 밤새 게임을 하고 버스를 타면 목적지까지 혼수상태로 잠에 떨어지는 ‘자칭 잼블러’들은 게임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스코어지’(바카라 게임 결과표)를 보며 시스템을 연구하기도 한다. 이들 덕분에 태백에 본사를 둔 영암운수와 화성여객 등은 카지노 고객이 많은 전국 대도시 지역을 운행하며 전국 최고의 황금노선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카지노 개장 이후 자가용 차량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자, 정선군은 포상금 예산을 마련해 놓고 이들을 단속하고 있다. 바로 파파라치가 등장했고, 이들은 지난 해 모두 658건의 위반 사례를 신고하고 정선군은 포상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했다. 고성능 카메라로 무장한 강원랜드 파파라치는 현재 모두 15명이다.

지역 주민

고한에서 소고기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김진숙(가명, 53세) 씨는 강원랜드로 인해 대박을 잡은 지역 주민이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진숙 씨는 강원랜드가 주식을 공모할 때 ‘통 크게’ 억대의 돈을 투자해 초창기에 수익 원을 벌었다. 카지노 개장과 동시 ‘대박’을 잡은 진숙 씨는 이후 승승장구했다. 서글서글하고 사업 수완이 좋은 그녀는 강원랜드 임직원들에게 좋은 고기를 제공하며 고한 사북에서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식당을 만들었고, 골프장 부킹, 주말과 성수기 콘도 예약 등으로 수도권 고객까지 식당 단골로 만들었다. 이제 강원랜드 주변에서 알아주는 유명 인사요 남부럽지 않은 재력가이며 골프 실력도 뛰어나지만 평소에는 식육점에서 갈비 손질을 하느라 분주하다.

“강원랜드 때문에 쓰러져가던 고한과 사북이 기사회생한 건 사실이다. 주민들도 강원랜드가 잘 되기 위해 협조하고 강원랜드도 지역 고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만들고 지키고 있는 강원랜드가 손가락질 받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길 바랄 뿐이다.”

핵폐기장 유치라는 도박으로 떠난 카지노

1995년 정선군 폐광 지역 주민들은 ‘핵폐기장 유치’라는 목숨을 건 ‘도박’으로 도박장 유치에 성공했다. 2월 말부터 시작된 고한, 사북, 남면 주민들의 ‘폐광 지역 생존권 찾기 쟁기대회’는 상가 철시, 초중고생 등교 거부, 상여 행진 등 ‘제2의 사북사태’로 치달았다. 정부로서는 1980년 4월 신군부를 긴장시켰던 사북항쟁의 악몽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북항쟁 이후 전국 대학과 주요 공장에서 대규모 집회와 노사분규가 들불처럼 일어났고, 5월에는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기억은 정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사북’을 단순한 탄광촌이 아닌 ‘민심이반의 1번지’로 각인시켰다. 이 때문에 1995년 2월 말부터 시작된 폐광 지역의 시위 역시 정권 심판을 위한 민심이반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팽배했다. 광원 출신으로 시의원 등을 거쳐 강원도의회 부의장을 지낸 성희직 씨의 회고.

“강원랜드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1980년 4월과 1995년 3월을 빼놓을 수 없다. 1980년 사북항쟁과 1995년 생존권 투쟁은 강원랜드를 낳기 위한 산모의 진통과 같은 것이었다. 특히 1995년의 싸움은 새로운 형태의 주민운동이었다. 핵폐기장 유치도 불사한다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단결된 힘이 폐광촌에 카지노라는 구세주를 만들었다.”

송재범 강원랜드 사외이사는 1995년 투쟁에 앞장서고 이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강원랜드의 성공적 개장 및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1995년 3월에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정부로부터 내국인 출입 카지노라는 특별법 제정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다. 그해 연말 주민 대표들과 국회의사당에 입장해 본회의장 방청석 가장 앞에 앉았다.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본회의장으로 뛰어내릴 작정이었다. 다행스럽게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그다음 정권에서는 문광부 장관이 금강산 사업에 카지노를 허가해준다는 말이 나왔다.



강원랜드 카지노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판단했다. 장관실로 찾아가 몇 시간 동안 폐광 지역을 위해 금강산 카지노 허가를 반대한다는 논리로 저지했다. 당시 상황은 머리에 쥐가 날 정도다. 그 후엔 또 전국관광호텔에 슬롯머신을 허가한다고 해서 싸웠고, 그 다음에는 제주도 카지노 내국인 허용 반대를 위해 싸웠다. 무수한 싸움은 이제 역사가 됐다.”

에필로그

강원랜드 설립 15년, 카지노 개장 13년. 태백, 정선, 삼척, 영월 등 강원남부 4개 시군 지역에서 강원랜드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연 매출 1조 3000억 원이 넘는 대박을 터뜨린 강원랜드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통해 활짝 웃고 있다. 폐광촌 주민들의 힘으로 유치된 만큼 폐광 지역과 진폐환자, 장애인, 영세민 등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강원랜드복지재단을 만들어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카지노 개장 이후 지난 2012년까지 관광기금 등 중앙 재정에 2조 7813억 원, 폐광 기금 등 지방 재정에 1조 1173억 원 등 총 3조 8986억 원을 기여한 것은 강원랜드의 숨길 수 없는 실적이다. 폐광특별법 제정 때 실무를 맡았던 원기준 목사는 강원랜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4개 시군 지역에 강원랜드 역할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강원랜드 이미지는 안타깝게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평소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고, 도박중독 예방·치유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 비리가 터지면 일순간에 강원랜드 전체가 범죄의 온상이나 비리 집단으로 매도된다. 그럴 때 직원과 주민들은 허탈해진다. 강원랜드 임직원들이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 한다. 주민들도 강원랜드가 지역의 보물단지, 전국적인 레저 휴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거들어야 한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주민들도 강원랜드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당초 기대했던 강원랜드가 될 것이다.” ■





보니파시오 Bonifacio



스카라 디 산타 레지나 Scala di Santa Regina







눈을 감고 이름을 부른 다음 상상한다

글: 정성일 (영화평론가·감독)

음미하듯이 읽으실 것. 앙리 마티스에게 코르시카는 세잔에게 엑상-프로방스와도 같은 장소였다. 그는 타히티로 떠난 폴 고갱처럼 멀리 갈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마티스는 색채를 해방하고 싶었다. 아직 능숙하지 않았던 인상주의 화풍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마티스는 런던에서 J. M. W. 터너의 그림을 본 다음 우연히 코르시카를 방문했다. 1898년 봄의 이야기이다. 그는 코르시카가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여름까지 코르시카의 주도 아작시오에 머물렀다. 거기서 풍경화를 그렸고, 몇몇 정물화 스케치를 했다. 이 모든 것들은 작은 캔버스에 담겼다. 매일 매일 지중해의 빛이 마티스에게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다. 마티스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어떻게 내 감각 앞에 던져진 빛을 조정할 것인가라는 난처한 질문 앞에 선 나에게 코르시카의 빛과 풍경은 대답이 되었다.” 하지만 세잔과 달리 마티스는 코르시카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저 풍경이 자기를 잡아먹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어쩌면 이 풍경에 가을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했을 지도 모른다. 저물어가는 빛. 어두운 구름. 시들기 시작할 꽃과 나뭇잎들. 그는 금방 떠났다. 그런 다음 1904년 마티스는 코르시카에서 받은 영감을 빌려 〈사치, 고요, 그리고 쾌락〉을 발표했다. 샤를 보들레르에게서 빌려온 제목. 어쩌면 당신은 코르시카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이 그림을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나는 코르시카라는 섬 이름을 들 때마다 이 에피소드를 떠올린다. 어쩌면 당신은 모파상이 쓴 소설 《여자의 일생》에서 잔느가 신희여행을 떠난 지명이 코르시카라는 걸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약간 망연자실해졌다. 코르시카에 관한 영화 글을 청탁받았을 때 어떤 영화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이 지명에서 나폴레옹과 마티스만을 떠올리고 있었다. 어쩌면 이럴 수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치, 고요, 그리고 쾌락(Luxe, calme et volupté)〉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11.8 × 98cm, 1904년, 캔버스에 유화, 오르세미술관 소장.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일까. 이럴 때 제일 빠른 방법은 코르시카 관광청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지역마다 영상위원회가 잘 되어 있어서 영화 촬영에 적극 협조할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 자기 지역을 소개하기 위해서 거의 필모그래피 수준의 영화 목록을 ‘아카이브’하기 때문이다. 조바심을 내면서 뒤져보았다. 하지만 목록을 본 다음에 이번에는 어리둥절해졌다. 이제까지 나폴레옹의 고향 코르시카에서 찍은 영화가 고작 24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중에서 내가 본 영화는 여섯 편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영화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영화들이었다.) 서울에 있는 프랑스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웃으면서 대답했다. “영화로 찍기에는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아무 데나 찍어도 관광엽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잠시 멈춘 다음 코르시카라는 지명의 프랑스식 화법을 생각해보았다. 이를테면 우리들은 목포라는 지명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구태여 그 단어들을 여기서 열거할 필요가 있을까.) 당신이 거기에 가보았건 아니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혹은 안동이라는 지명을 들었을 때 맨 먼저 무슨 단어가 따라오는가. 그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오랜 역사와 고유한 풍경이 어울려 만들어낸 지명의 이미지이다. 나는 프랑스 영화들 속에서 코르시카를 건드리는 영화들의 제목을 떠올려보았다.

가장 먼저 떠오른 영화는 자크 오디아르의 〈예언자〉였다. 열아홉 살의 말리크는 이미 전과자이다. 미성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6년 형을 언도받고 소년원 대신 감옥에 간다. 소년 말리크는 범죄 세계에서 자라났고 달리 살 방법도 알지 못한다. 그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글도 읽을 줄 모른다. 그래서 사인을 하라고 했을 때 검사에게 우울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전 이름을 쓸 줄 모르는데요.” 감옥 안은 두 개의 권력이 다투고 있는데 하나는 코르시카계 마피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아랍계 이민자들이다. 거의 절대 권력처럼 군림하는 코르시카계 마피아 보스 루치아노는 감옥 안에서 거만하고 우아한 삶을 누리면서 심지어 자기 말에 거역하는 죄수들을 살해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다.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던 말리크에게 루치아노의 손길이 뻗친다. 검찰 증언을 위해 잠시 수감된 배신자를 살해할 것. 제안을 받아들이면 감옥에서 ‘후원자’를 얻을 것이지만 그 대신 아랍계 친구들과 등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말리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루치아노의 시종처럼 그의 일을 처리한다. 때로는 그의 손이 되고 발이 되기도 한다. 루치아노는 그런 말리크를 더 잘 부려먹기 위해서 쓰고 읽기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이제 감옥은 말리크에게 학교가 된다. 하지만 루치아노가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다. 똑똑해지는 만큼 말리크는 교활해지기 시작한다. 신임을 얻은 말리크는 감옥에서 허락한 외출을 나갈 때마다 루치아노의 임무를 들고 나가지만 이때부터 그 돈의 일부를 몰래 빼돌려서 자기 사업을 시작한다. 물고 물리는 관계가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할리우드 갱스터 영화에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서 이민 온 미국인들이 수없는 혈육상잔의 총격전 끝에 만들어낸 마피아라는 조직의 역사를 수없이 보았다. 〈예언자〉는 프랑스에는 코르시카 출신들이 만들어낸 마피아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이 쓰는 말. “프랑스에는 두 나라 국민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과 코르시카 사람.”

말리크는 루치아노를 대신해서 그의 성명서를 들고 코르시카에 가서 마피아 보스들의 모임에 참석한다. 그때 말리크는 코르시카의 아름다운 풍경에 거의 압도당한다. 시종일관 어두운 조명의 감옥이 방 저 방을 떠돌면서 진행하거나 혹은 바깥에 외출을 하더라도 대부분 구름 낀 날 촬영된 이 영화에서 코르시카 장면은 이상할 정도로 눈부시게 화창하다. 하지만 말리크는 재빨리 감옥으로 돌아가서 그의 사업을 계속한다. 그는 여기가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챈다. 말하자면 프랑스의 시칠리아. 아직도 독립을 외치고 있는 섬. 더없이 아름답지만 결코 삼색기 아래 굴복하지 않는 땅. 말리크는 내내 여기서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느낀다. 프랑스 안의 또 다른 나라.

나는 여기에 세드릭 칸의 〈권태〉를 덧붙이고 싶다. 이 영화에는 코르시카의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코르시카라는 지명의 프랑스적인 뉘앙스를 느끼기에 더 없이 적절할 예가 될 것이다. 이혼한 지 6개월이 되는 마르탱은 정확하게 6개월째 어떤 여자와도 잠자리를 가져보지 못했다. 철학과 강사이지만 헤겔도, 사르트르도, 그를 외로움에서 구하지 못한다. 그런 어느 날 술집에서 노인의 술값을 내주고 대신 그림을 받는다. 이상하게 그 그림에 끌린 마르탱은 그림 뒤의 주소를 보고 그를 다시 만나러 간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인에게서 그 노인이 전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호기심에 그의 방에 들어간 마르탱은 온 방안을 가득 매운 누드화를 보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노인의 누드모델이자 성적인 연인이었던 열일곱 살 소녀 세실리아를 알게 된다. 처음에는 성적인 그리움으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마르탱은 자신이 건잡을 수 없이 이 소녀에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낀다. 그는 하루 종일 세실리아만을 생각하고, 그 집착은 점점 의심으로 번져나가고, 그녀가 찾아오지 않는 날은 밤새 기다리기까지 한다. 게다가 소녀가 자신과 잠자리를 가지면서도, 망설이지 않고 또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하자 이제 마르탱은 질투에 어쩔 줄 모른다.

이 영화의 감정적인 절정. 세실리아는 남자친구와 이주일 동안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마르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다. 마르탱은 어디로 갈 거냐고 묻는다. 세실리아는 코르시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마르탱 곁을 떠난다. 마르탱은 텅 빈 자리에서 공허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한다. 왜 자살을 결심하는 것일까. 단지 질투심 때문예? 대답은 코르시카라는 지명에서 온다. 코르시카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는 신희여행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과 섹스를 나누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게 돈을 주고 이제 우리는 서로 남이 되는 거죠, 라는 긴 대사를 하는 대신 그저 단 한마디, 코르시카로 여행을 떠나요, 라고 말할 때, 그 절망감은 남은 내가 버려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 용법으로 코르시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당신이 사랑을 약속한 사람과 함께 진정한 외국이라고 불러 마땅한 땅에 가서 고백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나라 안에서조차 외국이라고 불리는 영토. 마티스가 얻은, 기분 좋은 지중해의 빛과 바람이 준 창조적 영감. 하지만 당신은 당장 코르시카로 떠날 수 없다고 내게 항의를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코르시카 사진을 그 사람 앞에 펼쳐놓고 서로의 두 손을 꼬옥 쥔 다음 맹세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셀린느가 말하지 않았던가. 여행을 떠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눈을 감고 이름을 부른 다음 상상을 하는 것이다. 코르시카, 당신과 함께 고백을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H**

풍요롭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땅,

코르시카

글: 권기봉
작가, 걷기와 사색 그리고
‘다르게 보기’를 즐긴다.
YTN 라디오, 권기봉의
걸으며 생각하며,와
EBS <요리비전(秘傳)>을
진행하고 있으며,
<메트로>에 ‘권기봉의
도시산책’을 정기
연재하고 있다. 쓴 책으로
«다시, 서울을 걷다»와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가는 역사를
만나다»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 명소 스토리텔링’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사진: 박정훈

지중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위치한 섬 코르시카(Corsica)는
기원 전 이미 ‘키아노스(Cyrnos)’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리스어로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다. 1768년 프랑스
땅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일 드 보떼
(l’Île de Beauté)’, 즉 ‘아름다운 섬’이라
불린다. 충청 남도보다 약간 큰 면적
안에 20개가 넘는 2,000미터급
봉우리와 2백여 개의 코발트빛 해변이
함께 있고 지천에 허브 ‘마귀’가 널려
있어 초봄에서 늦가을까지 향기가
가득 하니 그렇게 불릴 법하다. 그러나
험준한 산악과 해변은 달리 말하면
농사에는 부적합한 땅이란 뜻.
거기서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밤’과
그 밤을 좋아하는 ‘돼지’를 주식으로
하는 음식 문화가 탄생했고, 잦은 외침을
받는 동안 ‘코르시카 폴리포니’와
같은 고유의 음악이, 에너지틱한
사람들이 길러졌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고향. 프랑스어로는 ‘콕스
(Corse)’, 하지만 섬 사람들의 언어를
따라 ‘코르시카’라 부르고 싶은 땅.
<보보담>은 그곳에서 코르시카인들의
문화를 들려주는 사람들을 만났다.



코르시카
Corsica

가는 방법:
한국에서 코르시카로 가는
직항편은 없다. 프랑스 파리에서
에어프랑스나 에어코르시카 등이
운영하는 국내선으로 갈아타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CDG)에 내렸다면 서틀
버스를 타고 오를리(Orly)
공항으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한 뒤, 목적지에 따라
코르시카 아작시오(Ajaccio)
공항이나 바스티아(Bastia)공항,
피가리(Figari) 공항 및
칼비(Calvi) 공항을 선택하면 된다.
유럽 각국에서 출발할 때는
항공편이나 프랑스 니스,
마르세유, 툴롱, 그리고
이탈리아 리보르노 등에서
코르시카의 각 항구를 잇는
페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





되살아난 전통의 불꽃, 코르시카 칼

자비에 비앙카렐리 (Xavier Biancarelli)

www.coutelleriebiancarelli-fiammanima.fr

코르시카가 프랑스 땅이 된 것은 18세기 후반. 그 이전 14세기부터는 제노바(이탈리아)의 땅이었다. 코르시카인들의 저항에 견디다 못한 제노바가 프랑스에 팔아버린 것이다. 한편 8~10세기에는 이슬람 세력이 이곳을 지배했다. 끝없는 외세의 지배는 코르시카 씨족 사회의 결속을 공고하게 만들었다. 특히 친족이 적에게 살해되거나 가문의 여인이 화를 입으면 코르시카인들은 그 상대를 찾아낸 다음, 복수를 하기 위해 그때부터 ‘칼’을 만들기 시작했다. 코르시카의 뿌리 깊은 상호 복수의 문화 ‘방데타(Vendetta)’의 시작이다.

유럽에서 3천 년 전부터 내려온 단조(鍛造) 법으로 코르시카 칼을 만들고 있다는 젊은 장인을 찾아 포르토-벤키오(Porto-Vecchio)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앳된 얼굴의 자비에 비앙카렐리(Xavier-Biancarelli) 씨는 집 마당 한 칸에 대장간을 만들어 두고 있었다. 그에게 일본 야쿠시마를 소개했던 ‘보보담’ 봄 호를 보여 주자 “제 선생님의 선생님이 야쿠시마 출신”이라는 뜻밖의 말이 돌아왔다. 단단한 철을 녹여 모양을 만드는 게 신기했다는 그는 열여섯 살 때부터 취미 삼아 대장간을 드나들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는 여러 선생들을 찾아다니며 본격적으로 칼 만드는 법을 익혔다. 그에게, 코르시카 칼이 왜 유명한지 물었다.

“코르시카 칼이 유명해진 건 방데타 문화 때문이에요. ‘복수의 칼’이라는 뜻의

스틸레(Stilet)는 전적으로 방데타에 쓰기 위해 만들었던 칼이에요. 양날이 얇고 예리해서 찔러도 곧 살이 닫히기 때문에 피가 흐르지 않아요. 부유한 가문에서는 복수의 대상이 생기면 손잡이를 금이나 은 등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딱 한 번, 한 사람을 죽이는 데만 사용한 후 다시 칼집에 넣어 후손들에게 남겼어요. 가문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의미로요.”

관광지 상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접이식 주머니 칼은 300년 전 칼 모양을 재현한 것으로 코르시카어로 ‘아쿨테다 피투다(A Cultedda Pittuda; 배 모양칼)’라 부른다.

“복수의 칼은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쓰던 코르시카 칼은 무기라기보다는 도구에 가까웠어요. 접이식 칼을 보면 보통 칼등에 홈이 파져 있는데, 그건 나무 줄기를 다듬어 바구니를 만들 때 사용하던 거예요. 홈 사이로 줄기를 넣어 꺾질을 쭉 빼는 식이죠. 칼날은 산에서 유용했고, 손가락으로도 썼어요. 그래서 오래전 칼은 칼끝이 둥글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칼날도, 칼도 점점 날카로워진 거예요.”

자비에 씨는 “사실 전통 코르시카 칼은 1백 년 전에 거의 사라졌다”고 했다. 남아 있는 것도 거의 없었고, 칼 장인도 따로 없었다. “제 선생님들도 원래는 칼 만들던 분들이 아니셨어요. 제철법을 가르쳐주신 분은 원래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던 분이고, 손잡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신 분은 가구



만들던 분이셨어요. 그분들이 문헌을 뒤져 사라진 칼들을 하나씩 재현하면서 코르시카 칼이 되살아난 거예요. 요즘 코르시카 칼의 역사와 전통이 알려진 건 그분들 공이 크죠. 핵심 기술인 접철 단조법은 프랑스로 건너온 일본 칼 장인이 제 선생님께 전수해주신 거고요.”

무릇 명검은 칼날이 강한 동시에 탄성도 좋아야 한다. 즉 예리하면서도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탄소 함량이 높은 강철은 강하지만 쉽게 부러지고, 탄소 함량이 낮은 연철은 유연하지만 날이 쉽게 무뎈진다. 그 해법이 강철과 연철을 붙이는 접철(摺鐵) 방식이다.

“접철 방식으로 만든 대표적인 명검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검과 일본도예요. 칼 표면에 물결 무늬가 생기는 게 특징인데, 시리아에서 시작해 십자군 원정 후에 유럽에 왔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강철과 니켈을 교대로 붙여서 아홉 개 층으로 만든 다음 그 덩어리를 불에 달궂서 길게 늘이고 다시 반으로 접어요. 그러면 열여덟 층이 되겠죠? 그걸 다시 달궂서 늘인 뒤 반으로 접어요. 그런식으로 500개 이상의 층이 생길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철과 연철의 장점이 골고루 섞이죠.” 이제 유럽에서는 자신을 포함해 여덟 명만이 이런 방법으로 칼을 제작한다고 했다. 접철 방식뿐만이 아니다. 자비에 씨는 단조에 쓰는 강철도, 그 강철을 만들 때 쓰는 솥도 직접 만든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날 만든 거라며 가마에서 나온 강철 한 덩어리를 내밀었다.



“철광석을 잘게 부쇄 10킬로그램 정도의 가루를 만든 다음에 자석을 이용해 불순물과 분리해요. 그리고 가마에 제가 만든 솥을 한층 깔고, 그 위에 철광석 가루를 한층 깔고, 다시 솥을 깔고 철광석을 깔고 하는 식으로 2미터 높이의 가마를 끝까지 채우죠. 그리고 가마 입구를 막고 12시간 동안 불을 지피요.” 여기서 압권은 재료가 늘 일정한 높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무려 12시간 동안 2분에 한 번씩 굴뚝을 들여다보며 재료를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3킬로그램짜리 강철 한 덩어리를 얻는다. 그 덩어리로 작은 칼은 스무 자루, 사무라이 칼은 한 자루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강철은 공장에서 만든 것보다 품질이 6~7배는 좋아요. 그 재미로 하는 거죠. 칼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담금질을 반복해요. 담금질을 많이 할수록 강한 칼이 되죠. 그런데 철이 약하면 그 과정에서 칼날이 휘어요. 이런 방법으로 만든 철이어야 명검을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강한 칼날이라도 쓰임을 얻으려면 칼자루가 있어야 한다. 코르시카 칼은 원래 이곳 솥염소나 무플론(Mouflon, 야생 산양) 뿔로 손잡이를 만든다 했다. 뿔을 150도의 올리브 오일에 4~7분간 ‘튀겨서’ 유연하게 만든 다음 압력을 가해 평평한 손잡이를 만드는 식이다. 그의 대장간 한 칸에는 감자튀김을 만들 때나 쓰는 가정용 튀김기가 놓여 있다.

“그런데 뿔로 만든 손잡이는 아무리 좋은 뿔을 써서 잘 만들어도 수명이 길어야 20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 갈라져버리거든요. 게다가 요즘 유럽에선 가축이 죽으면 몸통은 통째 불태우고 뿔은 DNA 검사를 위해 기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코르시카 염소 뿔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다들



수입한 뿔로 손잡이를 만들죠.” 자비에 씨는 수입한 뿔 대신 주로 나무로 손잡이를 만든다. 내구성 면에서도 그렇고, 수입한 염소 뿔보다는 코르시카에서 자란 나무가 코르시카 칼에 더 어울리는 것 같다고 했다.

“나무는 겨울철에, 달이 기우는 시기에 맞춰 벌목을 해요. 반달에서 초승달이 되는 1주일 정도가 나무가 쉬는 시간이에요. 나무가 성장을 멈추고 수분을 다 내려놓는 그 기간에 잘라야 벌레도 없고 뒤틀리거나 갈라지지 않는 걸 고운 나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 “꼭 뿔로 된 손잡이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든 코르시카 염소뿔을 구해서 사용하죠. 평소에 산을 다니다가 죽은 염소를 발견하면 뿔을 베어오기도 하고, 친구가 염소 농장을 하고 있어서 키우던 염소가 죽으면 기관에 연락하기 전에 먼저 알려주기도 해요. 코르시카에서 칼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이곳 염소뿔을 쓰는 건 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불법이죠. (웃음)”



솥을 만들고, 철을 만들고, 접철을 거쳐 칼날이 완성될 때까지 보름, 이후 손잡이며 후반 작업을 하는 데 다시 1~3주가 걸린다. “제 칼은 상점에서 팔지 않아요. 손님들이 이곳에 와서 제작 과정을 들은 다음 원하는 칼을 주문하죠. 손잡이 재질, 철 종류, 칼날 모양까지, 모두 한 사람을 위해 만드는 단 하나의 칼이에요. 가격은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을 말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의 ‘칼 강의’에 빠져 있는 사이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비가 내렸다가 다시 그쳤다. 인터뷰가 끝난 자정 무렵, 우리는 이 젊은 장인이자 예술가의 열정에 취해 있었다. 자비에 씨의 대장간 이름은 코르시카어로 ‘Fiamm’anima’, ‘영혼의 불꽃’이라는 뜻이다. ■



염소 농장의 아침 풍경

로랑스 파올리 & 피에르 프랑수아 파올리 (Laurence Paoli & Pierre François Paoli)

유럽의 다른 지역과 달리 코르시카에서는 양 떼보다 염소 떼를 더 자주 만난다. 절벽에 가까운 코르시카의 거친 산악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건 오로지 염소뿐이다. 도로변을 따라 느릿느릿 걷거나 잽싸게 절벽을 오르는 염소 떼는 코르시카 산간 내륙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들 염소의 젖으로 코르시카의 유명한 전통 식품 ‘브로쥬(Brocciu; 염소젖으로 만든 치즈)’를 만든다.

염소젖 짜는 모습이 궁금해 이른 아침 농장을 찾았다. 산 아래로 우리를 마중 나온 로랑스 파올리(Laurence Paoli) 씨는 타고 온 차는 두고 자신의 스즈키 사륜구동 차로 옮겨 타라 했다. “길이 험해서 일반 승용차로는 못 올라가요.” 울퉁불퉁 가파른 산비탈을 10분쯤 오르자 멀리 수백마리의 염소 떼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남편 피에르 프랑수아 파올리(Pierre François Paoli) 씨가 운영하고 있는 염소 목장이다.

“250마리 정도를 길러요. 코르시카에서 염소를 치는 사람이 3백 명 정도 되는데 모두 저만큼의 염소를 기르죠. 그 이상은 한 가족이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5월부터 9월까지의는 그냥 산에 풀어놔요. 그러면 풀도 뜯어먹고 허브관목 잎도 따 먹으면서 자라죠. 알아서 번식도 하고요. 잘 훈련 받은 쿠르시누(Cursinu; 코르시카 개)들이 염소를 몰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정도예요. 자연이 키우는 거죠.”



말이 그렇지 염소를 키우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피에르 씨는 아침 6시면 일어나 한 마리당 약 1리터씩 매일 60~80리터의 젖을 짜고, 서둘러 인근의 치즈 작업장으로 가져간다. 젖을 짜고 두 시간 이상이 지나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뒤엔 염소들을 산으로 내보내고 축사를 청소한다. 아무리 자연이 길러준다 해도 그 사이사이에는 사람의 정성 스런 손이 필요하다. 로랑스가 끼어 들었다. “코르시카에서도 요즘에는 젖을 짜 때 기계를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남편은 지금도 손으로 짜는 걸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힘은 더 들지만 그래야 염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대요. 친구처럼

느껴지는지 250마리 모두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니까요. (웃음)”

피에르 씨는 “코르시카의 6월은 사랑의 계절”이라며 염소들이 번식을 하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젖을 짜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새끼들이 태어나면 한동안은 아침마다 한 마리씩 안고 일일이 어미 염소를 찾아 젖을 물리며 보살핀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염소 250마리 모두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게 이해가 됐다. 그리고 보니 염소들의 뿔도 자라난 그대로였다. 축사에 가둬 키우는 경우에는 염소들이 서로 치고 박고 하면 서로 상처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잘라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코르시카 염소들은 다른 지역 염소들과는 생활 환경이 달라요. 축사는 임신 기간 중이나 낳씨가 안 좋을 때 피신하는 정도, 그리고 젖을 짜는 장소 정도로 쓰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야생에서 보내죠. 지금도 젖을 다 짜고 문만 열어 주면 다시 산으로 알아서들 뛰쳐 나갈



거예요. 야생에서 스스로 크는 염소들이니까 당연히 뿔이 필요할 수밖에요.”

피에르 씨는 아버지에게 일을 배운 뒤 올해로 10년째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마르세유가 고향인 로랑스 씨는 직업이 약사이다. 코르시카의 친구네로 휴가를 왔다가 남편을 만났다. 관광업 외에는 특별한 산업 기반이 없는 이섬에서 염소와 자연은 이들 젊은 부부가 코르시카를 떠나지 않고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원천이다. 파올리 씨 부부와 250마리의 염소들, 그리고 네 마리의 쿠르시누와 작별 인사를 하고 언덕을 내려오며 주변 풍광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다. 염소 목장 앞으로는 푸른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고, 뒤로는 들꽃이며 향기 그윽한 관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코르시카 염소의 생활 환경이 웬만한 한국 사람의 그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좋은 풍경을 보며 야생에 널린 허브를 먹으며 자라는 코르시카 염소와 그 젖으로 만드는 치즈라니 당연히 특별할 수밖에! **H**



정통 코르시카 치즈란 이런 맛

피에르 토마 알레그리니(Pierre Thomas Allegrini)



피에르 토마 알레그리니(Pierre Thomas Allegrini)의 치즈 작업장은 파오미아(Paomia) 외곽의 산 정상에 있다. 작업장 앞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흥겨운 휘파람에 멋진 노랫소리가 섞여 나왔다. 음악을 틀어놓은 거려니 했는데 노래의 주인공은 뜻밖에도 피에르 씨였다. “일할 때는 늘 노래를 불러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 즐겁게 해야죠.”

염소젖 치즈를 만들기 시작한 건 피에르 씨 아버지 때부터였다. 벌써 40년 전의 일이다. 당시만 해도 코르시카에서는 먹고살 만한 방도가 딱히 없어 군에 입대하는 게 흔한 일이었다.

“코르시카가 참 매력적인 여행지처럼 보일 테지만 사실 그 속엔 어두운 이야기도 많죠. 지금이야 이런 거칠고 남성적인 산악 풍경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만, 그건 달리 말하면 농사일이 쉽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무얼 키워내기가 정말 힘든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연히 남자들은 군대 외에는 삶을 이어갈 어떤 방법도 찾기 힘들었던 거고요.”

하지만 그의 부친은 코르시카에 남았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륙,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떠나던 1950~60년대, 그는 잊혀져가는 코르시카 문화를 되살리기로 했고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염소젖 치즈를 만드는 일이었다. “유럽 다른 지역에서 염소젖 치즈를 만들기는 하지만 코르시카에서 만드는 것과는 맛이나 썩는 맛이 하늘과 땅, 물과 기름처럼

차원이 달라요. 비결은 이 섬에 널린 허브와 마키 잎을 먹고 자란 염소에 있죠. 아버지는 그 점에 착안했고, 힘들기는 했지만 사라져가는 제법을 다시 살려내는 데 성공해 세계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곳 파오미아 외에도 코르시카 각 지역에서 염소젖 치즈를 만들고 있고, 코르시카를 대표하는 먹을 거리 중 하나로 꼽히죠.”

그가 만드는 치즈는 파오미아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니우린쿠(Niulinu)’와 코르시카 특유의 ‘브로쥬(Brocciu)’다. 모두 코르시카 염소젖으로 만드는 치즈다.

섬 밖으로 내보낼 양이 없을 정도로 소량만 생산돼 코르시카에 와야만 그 맛을 볼 수 있다. “짜낸 지 2시간을 넘지 않은 신선한 염소젖에 고정제를 넣어 굳힌 다음 모양틀에 넣어 바람이 잘 통하는 15~20도의 그늘에서 하루 동안 묵혀요. 그러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부피가 작아지고 사나흘 정도 지나면 곰팡이가 생기면서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곰팡이를 그냥 두면 안 돼요. 나무 주걱으로 제거하기도 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해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주기도 하죠. 그 작업을 3개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같이 합니다.



치즈 한 덩어리 만드는 데 100번 이상 손이 가는 거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누렇고 찢득하고 쿼퀴한 향이 나는, 그러나 시원하고 상큼한 맛의 니우린쿠다. 그리고 니우린쿠를 만들면서 나오는 진액을 40도에서 가열한 뒤 발효한 것이 브로쥬다. 브로쥬는 니우린쿠와는 달리 흰색에 무미, 무취인 치즈로, 라비올리나 스파게티 등에 넣어 먹기도 하고 돼지고기를 훈제하거나 염장해서 만든 전통 음식 ‘샤쿠테리(Charcuterie)’와도 함께 먹는다. 사각사각하는 식감이 일품이다.

“글쎄요, 전통과 문화를 계승한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상들이 대대로 만들어오고 먹어온 염소젖 치즈를 같은 환경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 만드는 게 아버지의 뜻이자 저희 부부가 할 일 이죠. 점점 전주민보다는 관광객이 많은 섬이 되어가지만 코르시카 사람들의 문화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



민낯의 코르시카를 만나는 방법, 승마

피에르 투상 가포리(Pierre Toussaint Gaffory)

www.ranchsagone.com

여덟 살짜리 영국산 말 에밀은 거친 자갈 밭도 가파른 산길도 거침없이 내달렸다. 깊은 계곡도 가시덤불로 가득한 관목숲도, 그리고 진창이나 길이라고 할 수도 없는 너털지대도 거뜬하게 통과했다. 에밀이 코르시카에 온 건 3년 전. 이제는 코르시카 말이 다 되어 있었다.

“원래 코르시카에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세기 동안 침략과 전쟁이 거듭 되면서 말이 늘어났죠.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각축을 벌이던 18세기쯤 영국 군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크기의 아르헨티나나 미국 말을 선호해요. 코르시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크기보다 튼튼한 관절과 근육이 중요하거든요.”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처럼 코르시카

에서도 말은 지주나 고위 군인들이 애용 하던 탈것이었다. 하지만 너른 들판보다는 험한 산악지대가 많은 코르시카에서 말은 금세 요긴한 이동 수단이 되었다. 지금도 도로가 놓이지 않은 가파른 산악에서는 이동이나 물품 운송을 위해 말을 이용한다. 코르시카 지역자연공원(PNRC) 내의 14개 대피소에 물품을 운송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말들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관광용으로 쓰인다. 사곤(Sagon) 근처에서 ‘르 랑슈(Le Ranch)’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에르 투상 가포리(Pierre Tusant Gaffory) 씨는 트레킹 위주였던 코르시카 관광업에 처음으로 말을 도입한 이들 중 한 명이다. 코르시카에서 관광용 승마란 제주도에서 말을 타듯 잠시 타서 사진만 찍고 내려거나 직경 50미터의 원을 그리며 도는 게 아니다.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거나 해변을 거닐고 산악을 오르는 여행의 어엿한 한 방식이다.

“코르시카에는 자동차로 갈 수 없는 마을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잠깐 여행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돌아가죠. 아작시오(Ajaccio)나 바스티아(Bastia) 같은 큰 도시나 포르토 베키오(Porto-Vecchio) 같은 바닷가에서 쇼핑이나 선탄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말을 이용하면 산속 마을까지 들어가 진짜 코르시카를 만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코르시카의 진짜 매력은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의 말마따나 자동차만으로는 힘든, 그렇다고 걸어서 돌아보기에는 벅찬 코르시카의 속살은 에밀이 아니었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말은 단순한 탈것 그 이상의 존재였다. 에밀의 등에 올라 함께 호흡하며 물살 센 계곡을 건너고 수풀을 헤치고 비탈진 언덕을 걷고 뛰며 돌아보니 동물과의 교감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의 길을 아는 에밀은 웬만한 가이드보다 믿음직스러웠다. 비수기를 기준으로 하면 코르시카에서 5인승 승용차를 빌리는 데 기름값을 제외하고 하루 5~10만 원이 든다. 말은 1시간에 약 3만 원, 하루 기준 약 15만 원. 잘 훈련된 말에 전문 안내자까지 동행하기 때문에 난생 처음 말을 타는 이들도 금세 적응한다. 기차 노선은 칼비나 바스티아와 아작시오를 잇는 단선 단 하나뿐이고 도로는 좁고 구불구불하며 그나마 놓이지 않은 곳도 많은 코르시카. 코르시카에서 말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탈것’이다. **B**



바닷가 버려진 나무로 할 수 있는 근사한 일

안토니 제로니미 & 파올라 드 펠리체(Anthony Geronimi & Paola de Felice)



www.legnamare.com

안토니 제로니미(Anthony Geronimi)와 파올라 드 펠리체(Paola de Felice) 부부를 처음 만난 건 지난 2010년 1월 코르시카 서부의 한 한적한 해변에서였다. 당시 그들은 모래사장에 빠진 내 렌트카를 자신들이 타고 있던 자동차로 꺼내주었다. 그들 부부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나는 몇 시간이고 그 찬 겨울 바닷가에서 떨고 있었을 테다. 하지만 걱정도 안도도 잠시, 당시 내 관심사는 그들이 몰고 있던 픽업 트럭, 그 뒤에 실린 나무로 옮겨갔었다.

“해변을 뒤지고 있었어요. 혹시 파도에 떠밀려온 나무들이 없나 하고요. 그런 나무를 찾아 1년 중 4분의 1은 이렇게 픽업 트럭을 몰고 다녀요. 가구 만들 재료를 얻기 위해서요.”

그들은 살아 있는 나무는 베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오로지 바닷가에서 주운 나무로만 가구를 만든다고 했다. 그래서 작업실 이름도 ‘바다 나무’를 뜻하는 코르시카어 ‘레그나 마레(Legna Mare)’로 정했다고. 문제의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3년 만에 그들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작품도 직접 볼 수 있었다.

“목재는 함께 찾으러 다니지만 일반적으로 디자인 아이디어는 제가 내고 남편이 그 구상을 실제 작품으로 옮기는 일을 해요. 지난 번에 해변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남편은 폴리포니 그룹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둘 다 가구를 만드는 데만 전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들 부부가 작품을 양산하는 데 집중하는 건 아니다. 작은 의자나 탁자, 전등갓과 같은 소품들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일반 가정이나 기업의 의뢰를 받아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에 맞게 매번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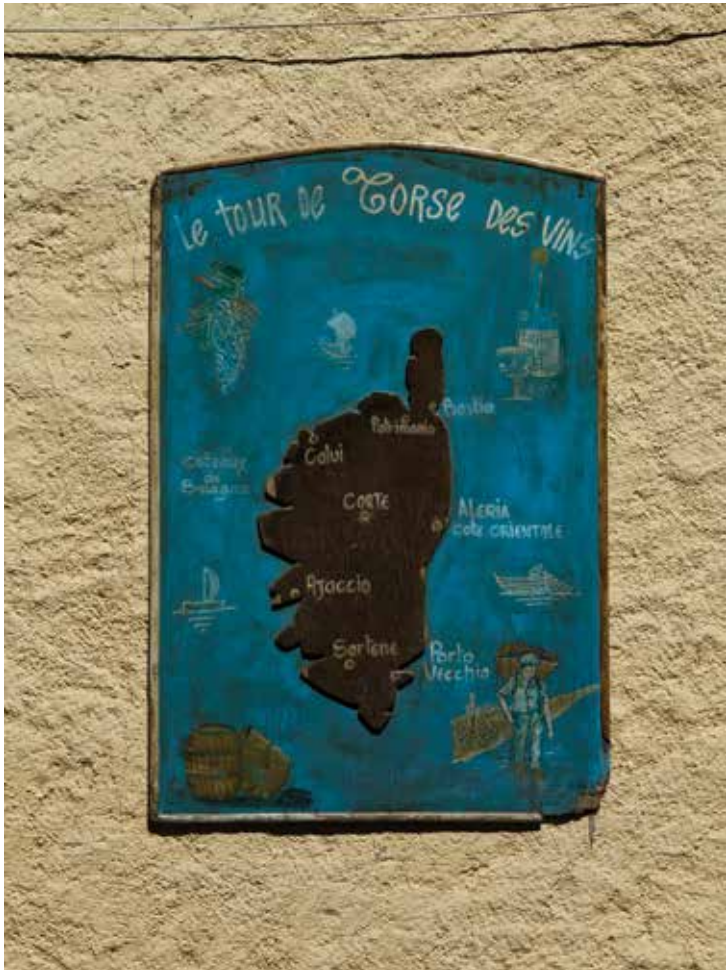
“저희는 사람들에게 파도에 떠밀려온 나무, 한마디로 버려지거나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 면을 고려하면 한두 개의 소품보다는 이 레그나 마레들로 한 공간을 온전히 채울 때 비로소 작업의 의미나 저희가 공유하고 싶은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일상 공간에서 매일 쓰는 가구들이 레그나

마레일 때 사용자들도 한번 더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될테니까요.” 의뢰가 들어오면 먼저 공간을 보고 디자인 콘셉트를 잡은 다음 실제 작업은 가구가 실제 들어갈 현장으로 나무를 모두 싸들고 가 직접 머물며 한다고 했다. 입소문이 나면서 요즘은 의뢰가 많아 일손이 딸리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고용하거나 대량 생산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 일의 의미에 공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모를까... 많이 만드는 것 보다는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빨리 만드는 것보다는 콘셉트가 살아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고요. 물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면 좋겠죠. 굳이

마다하진 않아요(웃음). 우리는 돈 보다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더 중요해요. 지난 해 태어난 우리 딸 아바를 생각해서도 지금이 길이 옳은 것 같아요.”

취미 삼아 시작한 일이 이 만큼 흘러 왔다는 파올라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새삼 느낀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닷가에 밀려온 나무만이 아니라 숲에 죽어 있는 나무로도 작업을 시도해볼 참이다. 아직까지는 ‘바다의 나무’로 작업하는 이들이 자신들 밖에 없지만, 죽은 나무에 새로운 운명을 부여하는 이 신나고 창조적인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게 되길 바라면서. ■







식재료에 담긴 코르시카의 역사

가브리엘 오리(Gabriel Ori)



코르시카에서 ‘빵 나무’라고 불리기도 하는 밤나무는 이 섬 사람들에게 아주 각별한 것이다. 유럽인들의 주식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밀을 재배할 만한 농경지가 없는 코르시카에서, 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탄수화물과 무기질을 보충해주는 더 없이 귀중한 작물이었다. 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보다 밤나무가 가진 목재로서의 가치가 더 높을 때엔 적잖은 나무들이 베어지고 질병으로도 고사했지만, 지금도 약 4만 헥타아르에 달하는 삼림지대는 온전히 밤나무로 채워져 있다.

“지난해 돌아가신 할머니 말씀이,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밤은 둘도 없는 식량 자원이었대요. 전쟁 전에는 그나마 대륙에서 밀을 들여올 수 있었지만 독일과 이탈리아가 해상 수송로를 봉쇄 하면서부터는 온전히 밤에 의지해 전쟁을 견뎌낸 거죠.”

그로부터 60여 년. 코르시카의 역사적 수도 코르테(Corte)에서 ‘라넥스(l’Annexe)’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가브리엘 오리(Gabriel Ori)에게 밤은 더 이상 눈물의 음식이 아니다. “제 할머니 세대가 굶주려가며 드시던 밤으로 이제는 케익을 만들어 먹어요. 아이스크림도 만들고요. 코르시카의 대표 맥주 피에트라(Pietra)에도 밤이 들어가요. 저희 레스토랑에 온 손님들에게는 꼭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려고 해요. 코르시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가게 이름도 ‘다음’ 혹은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라넥스로 지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라넥스에서는 특별한 코르시카 전통 음식들을 내놓는다. 시금치와 허브, 마늘, 양파 등을 밤가루 반죽에 넣어 튀긴 음식 ‘타르트 오 에르베(Tarte aux Herbes)’와 코르시카의 깊은 산악에서 사냥한 멧돼지로 만든 테린(고기나 생선을 잘게 썰고 단단히 다져 차게 식힌 뒤 얇게 썰어낸 음식 유형), 멧돼지 고기를 넣은 스파게티, 야생에 풀어놓고 기른 돼지의 간과 코르시카 콩으로 만든 요리 등등.

“유럽에서도 멧돼지 요리는 특별한 음식으로 통하는데, 그 멧돼지 요리가 잘 발달돼 있는 곳이 바로 코르시카예요. 다만 사냥허가가 떨어지는 철에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값도 비싼 편이고 먹을 수 있는 식당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 코르시카에서는 돼지도 야생에 풀어놓고 키우기 때문에 대륙의 것들과는 맛이 달라요. 아, 유럽인이라고 해도 코르시카 밖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돼지가 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르시카에는 밤나무 밭에 놓아 기른 돼지로 만든 요리가 많죠. 개네들은 숲 속에 살면서 밤이나 도토리도 먹고 각종 허브들을 먹고 자라서 고기의 맛이나 향이 일반 돼지들과는 많이 달라요.”

실제로 코르시카 도로를 달리다 보면 길을 막고 선 돼지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현재 4만 5천여 마리의 돼지들이 이렇게 키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스테이크나 스투, 구이로도 소비되지만 상당수는 샤쿠테리(Charcuterie)로 가공된다. “보기에는 다 비슷한 샤쿠테리 같지만 다들 조금씩 차이가 있죠. 먼저 우 살라무(U Salamu)라는 게 있어요. 프리스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다만



야생에서 기른 돼지 고기를 쓴다는 점이 다르죠. 향이 특별해요. 그리고 피가텔루(Figatellu)라는 게 있어요. 이진 고기나 간으로 만드는 좀더 특별한 샤쿠테리인데, 겨울에는 만들자마자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여름에는 좀더 건조하면서도 강렬한 맛의 피가텔루가 만들어져요. 판제타(Panzetta)와 볼레타(Vulleta)도 빼놓을 수 없는데 돼지 비계가 많은 부분의 고기를 염장하거나 말려서 만드는 샤쿠테리예요.”

코르테에서 나고 자라 이제는 코르시카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특유의 음식을 제공하는 가브리엘 씨. 그에게 음식은 낯선 이들에게 코르시카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흥미롭게 전할 수 있는 매개체 중 하나였다. ■





올리브 숲에서 태어난 음악

코르시카 폴리포니 그룹 ‘메리디아누(MERIDIANU)’

www.meridianu.com

코르시카 폴리포니 그룹 ‘메리디아누(MERIDIANU)’의 공연이 있던 날 밤,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진흙벽돌의 피그나(Pigna) 오디토리엄은 공연 시작 30분 전에 이미 관객들로 만원이었다. 가깝게는 프랑스에서 멀게는 독일과 네덜란드 등지에서 온 관객들이었다. 저녁 9시에 시작하는 공연, 게다가 모든 가사가 코르시카어라 정확히 알아듣는 관객은 많아 보이지 않았지만 반응은 예사롭지 않았다.

이들을 처음 만난 건 공연장에서 멀지 않은 그들의 작업실에서였다. 멤버 중 한 명인 장 앙투안 오르티코니(Jean Antoine Orticoni)의 할아버지가 쓰던 치즈 창고를 연습실로 꾸몄다고 했다.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벽이 두꺼워 ‘울림’을 중시하는 폴리포니 연습실로 제격이었다.

“폴리포니는 코르시카 사람들에게 단순한 일상을 넘어 영혼과도 같은 존재예요. 결혼식이나 세례식 때처럼 기쁜 순간에도

부르고아이들에게 동화를 이야기해줄 때도 폴리포니 형태로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장례식과 같은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폴리포니를 부르죠.”

반응 외에 ‘반의 반응’이 있어 풍부한 음역을 자랑하는 코르시카 폴리포니는 제일 높은음을 내는 ‘테르자(terza)’, 중간음을 내며 주선율을 담당하는 ‘세콘다(segonda)’, 그리고 가장 낮은음으로 그룹의 특징을 구분 짓는 ‘바수(bassu)’까지, 최소 세 명의 남자가 있어야 한다.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주변국들의 지배를 받아왔고 또 끊임없이 독립 투쟁을 해 온 이 섬의 역사는 장중하며 깊은 슬픔이 베어나는, 더불어 강한 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남성 중창을 발전시켰다. 보통 한두 명의 바수를 추가해 네다섯 명으로 한 팀을 이루는데, 멤버가 아무리 많아져도 테르자와 세콘다는 각각 1명, 나머지는 모두 세콘다를 보조하는 바수를 맡는다. 코르시카 폴리포니의 특징 중 하나인 묵직한 중저음의 비결이다.

“사실 폴리포니는 오랫동안 한물간 촌뜨기들의 노래 정도로 인식됐어요. 자신들과 다른 문화는 일단 하대하고 보는 프랑스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난 1970년대 중후반 들어 코르시카인들 사이에서 스스로의 문화를 다시 보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의 음식, 우리들의 노래, 우리들의 공예를 본토인들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들, 그러니까 코르시카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많은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1세대 폴리포니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칸타 우 포폴루 코수(Canta U People Corsu)’나 ‘이 무브리니(I Muvrini)’ 등이 활동을 시작한 게 그 즈음이다. 처음에는 코르시카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듯했지만 이내 파리를 시작으로 유럽, 북미 등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그룹 ‘아필레타(A Filetta)’는 2010년 내한 공연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조차 제3세계 음악, 이른바 ‘월드뮤직’으로 분류되는 폴리포니 그룹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메리디아누의 경우 그룹을 결성을 한 것은 2003년이지만 프로 활동으로 전환한 것은 불과 2년 전이다. 그 전에는 생계를 위해 다들 다른 직업을 가져야 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점 점원으로 일했어요. 다른 1세대 그룹들도 그랬지만 우리 역시도 폴리포니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활동을 하다 보니 1년에 콘서트에 초청받거나 하는 게 120회가 넘더라고요. 폴리포니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폴리포니와 일을 병행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그때 세콘다를 맞고 있던 현악기 제작자 마티우 그라지아니(Matthieu Graziani, 바이올린과 테르자), 바수를 책임지는 두 남자 로랑 디파페(Laurent Depaepe, 테르자와 기타)와 제레미 로이(Jérémy Lohier, 아코디언)도 프로로 전향했다. 이들은 아직 유럽 밖으로 나가본 적은 없지만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초청을 받을 정도가 됐고 코르시카에서는 정기적으로 콘서트를 열고 있다.

이 그룹은 기존의 코르시카 폴리포니를 넘어 동시대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은 창작곡을 만드는 데에도 열성적이다. 세월이 흐르면 그 또한 전통이 될 것이며, 동시에 코르시카 폴리포니가 더 두텁고 풍부해질 것이라 믿는 까닭이다. 노래를 통해 프랑스는 물론 지구 동서에 코르시카의 문화를 전하고 싶다는 사람들. 그래서 그룹 이름도 코르시카어로 ‘지구의 경도(經度)’를 뜻하는 ‘메리디아누’로 지었다. **■**





달콤 씹싸름한 코르시카 대표주, 캡 코스

제랄드 다미아니(Jerald Damiani)

www.pastis-dami.com

“숲속에서 오래된 다미아니 술병을 발견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 병이 정말 기나긴 여행을 해온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흘러 이 병이 다시 코르시카의 가족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쁩니다.”

코르시카 북동부 푸리아니(Furiani)에 있는 다미아니(Damiani) 양조장을 찾았을 때 제랄드 다미아니(Jerald Damiani) 씨는 편지 한 장을 먼저

꺼내 들었다. 코르시카에서 7천 4백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남미 북동부에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Guyane Française)에서 초창기 다미아니 술병을 발견한 이가 보내온 편지였다.

코르시카를 대표하는 술을 들라면 단연 ‘캡 코스(Cap Corse)’다. 코르시카 북쪽 끝에 위치한 ‘코르시카 꽃’을 뜻하기도 하는 이 술은 코르시카에서만 생산되는

알코올 도수 15도 내외의 식전주다. 코르시카에는 모두 네 개의 캡 코스 양조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1901년 시몬 다미아니(Simon Damiani)가 설립한 이후 4대째 운영되고 있는 다미아니 양조장은 특유의 씹싸름하면서도 달콤한 향을 가진 캡 코스로 명성이 높다. 캡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코르시카에서 나는 포도의 즙을 짜서 발효시키고, 즙을 짜고 남은 포도 껍질로는 알코올 도수 40도 정도의

증류주를 만든다. 그 다음 포도즙에 증류주를 넣어 발효를 중지시킨 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코르시카 허브를 넣고 최소 3개월간 숙성시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 바로 키키나(Quinquina)이다.

“저희 캡 코스는 레드와인을 베이스로 키키나를 넣어 만듭니다. 독특한 향미가 있는 키키나는 구미를 당기는 효과가 있어서 식전주 원료로 맞춥하죠. 캡 코스를 만드는 양조장은 다른 곳도 있어요. 하지만 키키나 성분을 넣은 건 저희 밖에 없죠. 같은 캡 코스라고 해도 들어가는 허브도 조금씩 다르고 제법에 차이가 있어요.”

키키나라는 말은 익숙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 젖을 때는 데이용한 ‘키니네(kinine)’를 들어본 이들은 적지 않을 것이다. 키니네를 젖꼭지에 바르면 특유의 쓴맛 때문에 아기가 젖을 덜 물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그 키니네가 바로 키키나이다.

하지만 다미아니 캡 코스의 인기가 높은 건 키키나의 독특한 향미 때문만은 아니다. 키키나는 남미가 원산지이나 나중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 유럽 각국의 식민지에서도 재배된 키키나 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주로 말라리아特效약으로 쓰였다. 다미아니 캡 코스가 한 세기



이상 인기를 끌어온 비결도 바로 키키나의 이러한 효능 덕분이다. 키키나가 말라리아 치료는 물론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그 옛날 양조장 근처의 바스티아 항구를 오가던 뱃사람들의 이목을 끈 다미아니 캡 코스. 자신들이 만든 술병이 기아나에서 발견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냐고 말하는 제랄드 씨는 여전히 그 시절 선조들의 제법을 지켜가고 있다. 지금은 아들에게 일을 물려주고 있는 단계라고 하면서도 제랄드 씨는 새로운 술을 개발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셰드라’라고 부르는, 작은 레몬처럼 생긴 과일로 만드는 마퀴(Maquis; 관목) 리큐르와 아니스를 주원료로 하는 파스티스(Pastis) 등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명장에게서 풍기는 특유의 자부심이 은연 중에 묻어났다. **H**



아직시오 Ajaccio



스카라디 산타 레지나 Scala di Santa Regina



13일 간의 GR 20 트레킹 종주기

GR 20 가는 법

GR 20 트레일은 지중해에서 시작해 백두산에 버금하는 해발고도 2,706미터의 몬테 친토(Monte Cinto) 등 2,000미터급의 산들을 넘고 넘어 크고 작은 너덜과 암반, 숲, 호수와 늪 지대를 지나 다시 지중해로 빠진다. 북부 칼렌자나(Calenzana)에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남쪽 콩카(Conca)에서 출발해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걸든 그 강도와 매력에 모두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GR 20 트레킹을 콩카에서 시작한다면 코르시카 남부의 피가리(Figari) 공항을, 칼렌자나에서 시작한다면 칼비(Calvi) 공항을 이용하는 게 편하다. 각각의 출발점으로 가는 버스나 택시는 공항에서 문의하면 된다.

코르시카의 남북을 종단하는 총 길이 180여 킬로미터의 트레일 GR 20. 유럽에서 가장 터프한,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트레일로 꼽히는 이 길은 하루에 5~10시간을 걸으면 보통 종주까지 13~16일이 걸린다. 한국 올레길 같은 프랑스의 걷기 코스는 ‘랑도네(Randonnée)’, GR은 ‘Grand Randonnée’의 약자로 ‘위대한 트레일’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당초 트레킹 시작 지점으로 생각한 곳은 칼렌자나(Calenzana)였다. 그런데 최근 유럽, 특히 코르시카는 전에 없던 이상저온 현상을 보이면서 고산에는 6월 초인데도 눈과 얼음이 녹지 않아 때때로 트레킹이 불가능했다. 날씨 때문에 종주가 불확실한 상황. 결국 GR 20 사무국의 조언대로 현지에서 코스를 바꿔 그나마 눈과 얼음이 덜한 남쪽 콩카(Conca)에서부터 걷기로 했다. 걷는 사이 북쪽의 눈과 얼음이 녹기를 기대하면서. 다행히 콩카 GR20 안내소장 폴라치(Jean Follaci) 씨의 한마디에 갑작스런 루트 변경으로 인한 당혹감은 투지로 변했다. “당신이 한국에서 온 첫 번째 GR20 종주 도전자예요!”

글·사진: 권기봉





Day 01 : 6 hours
이 파리리 대피소
Day 02 : 7 hours
아시나우 대피소

쉽사리 잠에서 깨지 못하다 눈을 뜬 건 오전 8시가 넘어서였다. 같은 도미토리 룸에서 잠을 잔 패트릭 블루앙(Patric Blouin)은 이미 출발하고 없었다. 프랑스 앙제(Angers)에서 왔다는 56세의 그는 삶의 무력감에서 탈피하고자 홀로 이곳에 왔다고 했다. 크루아상 한 개와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출발한 시각은 오전 9시 30분. 그런데 급경사를 한 시간 가까이 오르다 정상 부근에서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는 패트릭을 발견했다. 자갈과 흙이 섞여 있는 길을 급하게 오르려다 미끄러져 이마를 다친 것이다. 마침 가지고 있던 상처약을 빌려주었다. 무력감을 해소하고자 이곳을 걷기로 한 그에게 트레킹 출발부터 또다른 무력감이 찾아오는 건 아닐지. 옆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장관이지만, 첫 목적지인 이 파리리 대피소까지의 6시간여 산길은



너무도 길고 험하게 느껴진다. 첫날이라 그렇겠지 생각하며, 대피소에 도착해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다. 둘째 날. 좀 일찍 출발하려고 나서는 찰나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코랄리 구쏘(Coralie Goussot). 2011년 GR 20 가운데 한 코스를 걸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만난 산악 가이드였다. 휴가를 받아 이곳 파리히 대피소 지기인 친구를 도와주러 왔다고 했다. 예전 코랄리가 산악을 가리키며 했던 말이 다시 머리를 스쳤다. “코르시카의 자연이 바로 제 일터예요.” 그녀의 호방한 웃음은 여전했다. 카메라 배터리를 어디서 어떻게 충전해야 하는지 등등 가이드북에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을 알려주었다. 아날로그 세상에 여러 디지털 기기를 갖고 온 내가 한심해 보였다고도 해야겠다. 문제는 그녀에게 여러 조언을 들었음에도 바벨라 고개(Col de Bavella) 고개를 넘자마자 길을 잃고 말았다는 점이다. GR 20 코스는 나무 등걸이나 바위 등에 표시된 사인을 따라 걸으면 된다. 그런데 잠시만 생각을 하거나 안개나 비가 내리면 사인을 놓치기 일쑤다. 오늘이 그랬다. 20분을 헤맨 끝에

찾아낸 길은 GR 20 노멀 코스 사이를 잇는 알파인 루트. 힘들지만 더 멋진 풍광을 즐기려는 이들을 위해 고안된 변형 코스다. 뜻하지 않게 들어선 50~60도 절벽을 기어오르면서 ‘내가 왜 GR 20을 걷기로 한 걸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풍광은 빼어났지만 오늘 대피소까지 가는 길 또한 멀고 험했다.



Day 03 : 9 hours
아시나우 대피소
우시올루 대피소

오늘은 처음으로 해발고도 2,000미터가 넘는 산을 넘어야 하는 날. 특히 몬테 인쿠디네(Monte Incudine, 해발 2,134미터) 정상을 넘는 건 꽤 힘든 일이었다. 30센티미터가 넘게 쌓인 눈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었다. 앞서 출발한 이들이 발자국을 내놓기는 했지만 눈 속에서 GR 20 사인은 잘 보이지 않았다. 주변 지형을 25,000분의 1 지도와 일일이 대조하며 걷느라 한 발자국 떼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북부 산악에 눈이 많은 건 알았지만 남부에도 해발 2,000미터 내외의 지역은 거의 예외 없이 눈이 쌓여 있었다. 길에서 만난 프레디 마샬(Predy Martial) 씨 부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걸었다. 그들은 피레네 산맥 인근의 비아리츠(Biarritz) 출신으로 설산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어렵게 몬테 인쿠디네를 넘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마치 중세 유럽을 다룬 영화에나 나올 법한 몽환적인 초원과 각종 허브 관목, 그리고 낭만적인 너도밤나무 숲. 해발 2,000미터와 1,400미터의 상황이 그렇게 달랐다.



Day 04 : 9 hours
우시올루 대피소
프라티 대피소
지트 데탐 '베르데 고개'

오늘의 도반은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 출신으로 파리에서 온 질베르트 알라릭(Gilbert Alaric)과 그의 조카 파트리스 드쿠소(Patrice Ducouso). “군 생활 하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코트디부아르 등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지만 코르시카는 유럽에 있으면서도 유럽 같지가 않았습니다. 뭐랄까, 충격과도 같은 산악과 자연이었다고 할까요?” 코트디부아르뿐만 아니라 코르시카에서도 복무했던 현역 군인 질베르트는 GR 20만 네 번째다. 그는 앞서 세 번의 종주는 모두 북부에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눈과 얼음 때문에 남쪽에서 시작했다고 했다. 걷기를 좋아하는 조카에게 코르시카의 거칠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고 싶어서 다시 코르시카를 찾았다. 그가 전해준 이야기 하나. 처음에 속도를 내던 패트릭 블루앙 씨는 걷기 시작한 지 하루 반 만에 바벨라 고개에서 종주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산세가 험해 몸이 버티내지 못했고, 날씨도 평년과 달리 환파가 심한 탓이었다. 걷는 내내 멀리 액자 속 그림 같은 지중해가 내려다보이지만 거긴 산 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세상이다.





Day 05 : 7 hours
지트 데탐 ‘베르데 고개’
지트 데탐 ‘비자보나’

GR 20의 매력이 단순히 산악 트레일을 걷는 데만 있는 건 아니다. 고산에서 만나는 노랑부리까마귀나 수염수리, 무플론 등은 코르시카의 살아 있는 자연을 날것 그대로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검은 몸에 노란색 무늬가 인상적인 코르시칸도롱뇽과 날씨만 좋으면 바위 위에서 몸을 덥히는 티레니안벽도마뱀은 발에 걸릴 정도로 많았다. 티레니안벽도마뱀들은 가만히 있으면 보호색 때문에 눈에 띄지 않을 텐데, 사람만 지나가면 줄행랑을 쳐서 오히려 그 존재를 드러냈다. 천적 앞에서도 저럴까 팬스레 걱정도 됐다. 그러나 한가롭게 도마뱀이나 걱정할 처지는 아니었다. 안개인지 구름인지 모를 것에 휩싸인 길을 5시간쯤 걷고 있자니 중지 손톱만한 우박이 섞인 비가 내렸다. 고산에서 맞는 우박은 차가운 얼음 바늘에 찔리는 것처럼 온몸에 통증을 가져왔다. 어찌어찌 용케 도착한 지트 데탐 비자보나에서는 트레킹 후 처음으로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할 수 있었다. GR 20 루트 중 유일하게 기차가 닿는 비자보나는 나뭇마을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계곡의 찬물을 끌어다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대피소들과 달리 사정이 좋았다.비자보나는 보름 정도 길게 시간을 낼수 없는 이들이 일주일 정도 기간으로 GR 20 트레일의 남과 북 중 한 코스만 골라 걸을 때 찾는 출발지이다. 그래선지 여느 대피소나 지트 데탐보다 사람들이 북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정에 동참하는 이들보다 떠나는 이들이 많았다. GR 20의 강도와 예상 밖의 날씨에 놀란



나머지 더 이상의 걷기를 포기하고 별이 좋은 지중해 해변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려는 이들이다. 이 파리리 대피소 이후 줄곧 비슷한 속도로 걸어오며 대피소에서의 생활 방식이나 프랑스 젊은이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주던 파리 외곽 퐁텐블로(Fontainebleau) 출신의 젊은 커플과도 이곳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다.



Day 06 : 6 hours 40 min
지트 데탐 ‘비자보나’
론다 대피소

며칠 누적된 피로 때문인지 늦게 일어나 오후 1시가 넘어서야 길을 나섰다. 해발 800미터 후반대의 비자보나에서 2,389미터의 몬테 도로(Monte d’Oro) 정상까지는 네 시간 동안 줄곧 오르막만 계속됐다. 오르막이 길면 내리막도 길어야 하건만. 그나마 출발할 때부터 정상까지 이어졌던 수려한 영국계곡 (Cascade des Anglais)이 위안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산행에 피로해진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저녁 식사 시간이다. 대피소에서

요리를 만들어 팔았지만 일주일 가까이 같은 길을 걸어온 이들은 이미 너나 없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빵이 있는 이는 빵을, 잼이 있는 이는 잼을, 그리고 스프가 있는 이는 스프를 준비했다. 이도 저도 없으면 와인이나 대피소 지기가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미르트(myrte; 음매화 과실주)라도 한 병 사서 풀었다. 프랑스에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등 국적도 다양해서 매일 밤마다 생각지도 못한 즉석 퓨전 요리들이 등장했다. 해가 떠있는 동안에는 걷느라, 달과 별이 떠 있는 동안은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산에서의 시간은 빨리 흘렀다.



Day 07 : 10 hours

론다 대피소

페트라 피아나 대피소

만가누 대피소

오늘은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해봤자 해발 800미터 정도’라는 프랑스 동부 릴(Lille)에서 온 다니엘과 에머릭 모자를 만났다. 거의 20년 만에 함께 산행을 나섰다고 했다. “어머니와 함께 산에 간 건 십대 때뿐이었어요. 그 이후엔 친구들과 노느라 바빴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엔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함께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시간이 흐르면 어머니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고 여유를 냈어요. 그런데 저보단 어머니가 더 잘 걸으시네요. (웃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180여 킬로미터의 길을 함께 걷는 모자의 모습은 사랑 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애잔했다.

오늘은 10미터 정도를 주르륵 미끄러져 내리는 아찔한 순간과 더불어 여러 번 눈과 얼음길에 빠지고 일어났다. 카피텔로 호수(Lac de Capitello)와 멜로 호수(Lac de Melo) 풍경에 넋 놓고 걸다가 생긴 일이다. 첫날 코랄리가 해줬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 “안전을 위해선 발밑을 봐야 하지만 GR 20을 걷는 내내 그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그말을 내내 잊지 않았더라도 미끄러지지 않았으리라 장담할 순 없다. 해발 2,000미터 가까운 곳에 위치한 두 호수, 백두산 천지의 웅장함에 비견되는 장관 앞에서는 도리 없이 시선을 빼앗긴다.



Day 08 : 6 hour

만가누 대피소

지트 데탐 ‘버지오 고개’

오늘은 목동들이 소와 말을 풀어놓은 피아누 디 캄포틸(Pianu di Campotile) 평원과 니노 호수(Lac de Nino)를 지나 지트 데탐이 있는 버지오 고개(Col de Vergio)까지만 걸기로 했다. 카메라 배터리 등 디지털 기기를 충전해야 했다. 어제와 달리 길은 비교적 평탄했다. GR 20은 보통 대피소에서 대피소까지 걷는 게 기본이지만 지형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걷는 코스를 조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 곳곳에 맑은 계곡이 있어 어디서나 식수를 얻을 수 있다. 소나 염소, 말, 돼지

등을 방목하지 않는 계곡이라면 그 물을 그대로 마셔도 별 탈이 없다. 굳이 음식을 끓여지고 올라갈 필요도 없다. 지자체나 민간인이 운영하는 지트 데탐을 비롯해 코르시카자연공원(PNRC; Parc Naturel Régional de Corse)에서 운영하는 대피소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직접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다. 비용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꼭 필요한 것은 GR 20을 걸겠다는 의지와 그것을 뒷받침해줄 체력, 그리고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을 향해 열린 마음이다. 버지오 고개 바로 아래 위치한 지트 데탐에서 트레킹 후 두 번째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수 있었다. 그날 밤, 길 위의 친구들은 오랜만에 조촐한 저녁 파티를 벌였다.





Day 09 : 7 h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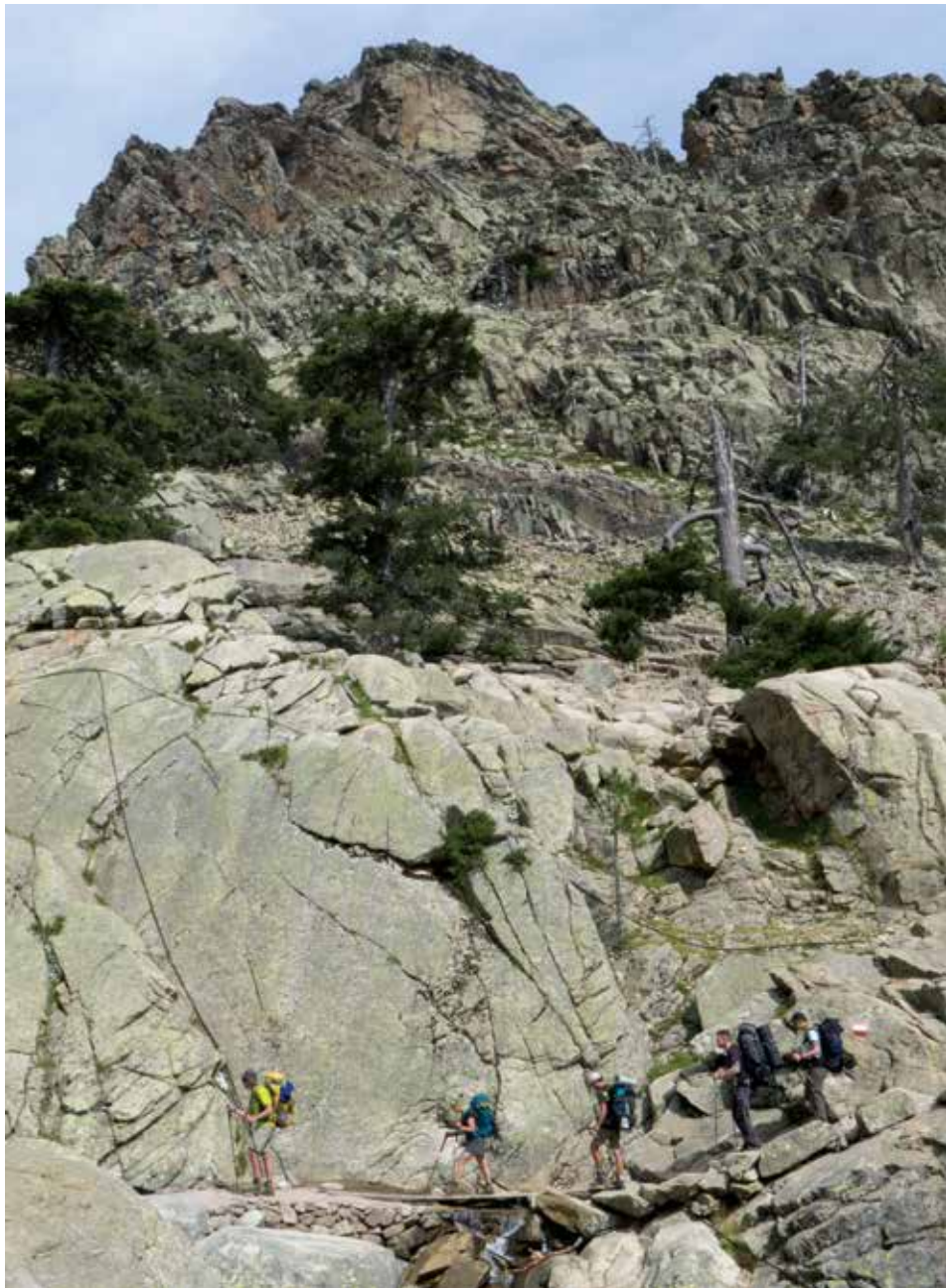
지트 데탑 ‘버지오 고개’

쵸투루아이 모리 대피소

티게투 대피소

걸는 길의 해발고도가 워낙 높다 보니 웬만한 곳에서는 코르시카의 동쪽이나 서쪽 지중해가 모두 내려다 보인다. 오늘 걸은 버지오 고개에서 다음 대피소 구간에서는 서쪽의 레칼랑크 지역이 한 눈에 들어왔다. 붉은 화강암이 인상적인 레칼랑크와 청명한 남색의 지중해가 대비되면서 지상에서는 보기 힘든 장관을 펼쳐냈다. 산아래 있을 때는 저런 눈썹인 산에 누가 올라갈까 싶었는데, 지금 내가 그 산을 걷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한다는 케이스 커쉬너(Caith Kushner)를 만난 건 쵸투루아이 모리 대피소를 지나 티게투 대피소를 향하던 길에서였다. 70도에 가까운 수직 절벽을 살금살금 내려가고 있었는데 아래쪽에서 그 절벽을 스틱 한 개만 짚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다. GR 20에서 스틱을 한 개만 쓰는 이를 만나는 건 좀처럼 어려운 일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아, 내가 미쳤지 왜 그 길을 갔는지! 이 다음에 나오는 티게투 대피소랑 그다음 아스쿠스타그누 대피소 사이는 정말 ‘셋’이었어요. 빨리 걷고 돌아갈 마음에 새벽처럼 일어나 걷다 보니 눈만 썩인 게 아니라 그아래에 얼음까지 깔려 있던 정보를 못 들었던 거죠. 미끄러지면서 스틱 한 개를 놓쳤는데 다시 주우러 내려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 다른 사람들과 정보라도 좀 나눌 걸 그랬어요.” 그런데 티게투 대피소에 도착하고 보니 아까 케이스가 말한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해 통행 자체가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몇 시간 전에 한 트레커가 미끄러지면서 크게 다쳐 헬기로 구조된 것이다. 사흘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눈과 얼음이 조금씩

녹고 있는 게 더 위험한 상황을 불러오는 듯했다.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발과 스틱이 푹푹 빠지다 보니 경사가 심한 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것이다. 나를 포함해 티게투 대피소에 도착한 모든 트레커들은 더 이상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하산을 결정했다. 일행들은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칼라지마 마을로 걸어 내려온 뒤 다시 두 시간여를 더 걸어 알베르타체에 도착했다. 알베르타체까지 와야



그나마 지나다니는 차량이 있어 일말의 소식이라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 보니 이미 날은 어둑해지고 바뀐 정보도 없었다. 너나 할 것 없이 망연자실. 마을에 몇 개 없는 레스토랑에 앉아 허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는데 주인장은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처음 보는 한국인이라며 60도짜리 밤 증류주 오드비를 한 잔 선물했다. 오드비는 ‘생명의 물(eau de vie)’을 뜻한다는 말과 함께.



Day 10 : 6 hours

티게투 대피소

Day 11 : 5 hours

아스쿠스타그누 대피소

알베르타체에 있는 지트 데탑에서 잠을 청한 트레커들은 해돋기 전에 눈을 떴다. 5명 이상으로 팀을 짜고 원래 속도의 절반 이하로 천천히 조심조심 걷는다고 서약할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 통행이 가능해졌다는 말이 들렸기 때문이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트레커들은 삼삼오오 팀을 짜기 시작했고 다시 5시간 가까이 걸어 티게투 대피소로 올라갔다. 다들 조바심이 났는지 걷는 속도가 산행 속도의 거의 두 배는 되어 보였다. 원래 6월 초면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걸어야 할 GR 20. 그리고 보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을 겪는 곳이 비단 한국만이 아니다. 한국이 영상 30도에 육박하는 이상고온 현상을 겪고 있다면 코르시카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전에 없는 이상저온 현상을 겪고 있다. 다행히 노면 상황은 소문만큼 나빠 보이지 않았다. 조심조심 살금살금 발뺄을

살피며 걷는 긴장감도 잠시, 일행들은 해발고도 2,706미터로 코르시카 최고봉인 몬테 친토의 위압적인 풍광에 넋을 잃고 말았다. 어느 구간 하나 쉽지 않은 길이지만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GR 20 코스를 찾고 또 최고로 꼽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순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대피소를 나오자마자 시작되는 가파른 절벽에 GR 20 트레킹 후

처음으로 겁을 먹었다. “아, 이래서 GR 20 코스가 유럽에서 가장 터프한 트레일로 꼽히는구나!” 지난 열흘도 만만치 않았지만 오늘 만난, 잊을 만하면 나오는 거칠고 경사 심한 길들은 해안가에서 받았던 사랑스러운 코르시카의 느낌을 한순간에 울퉁불퉁한 남성의 강인함으로 바꾸어 놓았다. 특히 비자보나 이후 만난 영국 계곡과는 달리 오늘 구간은 굉장히 억센 느낌을 주는 뾰족 바위들로 가득했다. 산허리나 정상 부근에 걸린 구름 속을 걸을 때면 긴장감은 배가 됐다. ‘심연을 헤매는 두려움’ 같은 말은 아마도 이럴 때 쓰는 것일 테다. 그러나 이런 감상을 가만히 내버려둘 GR 20이 아니다. 이내 구름이 걷히면서 저 아래로 둥글게 휘칼비 만(Golfe de Calvi)과 그 끝에 우뚝 솟은 요새가 시야에 들어왔다. 최종 목적지인 칼렌자나가 멀지 않다는 의미다. 오늘은 트레킹 후 처음으로 텐트에서 잠을 청했다.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북쪽에서 GR 20 종주에 나선 트레커들이 칼렌자나에서 하나 둘 내려와 대피소 도미토리룸은 만원이었다. 비록 녹녹한 잠자리였지만 한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하늘 가득한 별빛에 마음은 호사스러웠다.





몬테 친토 Monte Cinto



Day 12 : 6 hours
카로쥬 대피소
오르투디 우 피오부 대피소

새벽에 두어 차례 비가 내렸다. 그동안 우박을 맞으며 걸은 날이 두 번, 비를 맞으며 걸은 날 역시 두 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몸도 기분도 당해내기 쉽지 않았다. 오늘은 비가 그치면 출발할 요량으로 텐트 밖을 나가지 않았다. 비가 멎은 11시 40분쯤 주섬주섬 짐을 챙겨 다시 여로에 올랐다. 그런데 웬걸, 출발한 지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안개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돌아가자니 애매하고 어차피 땀이나 빗물이나 별 차이가 없다 싶어 그냥 걷기로 했다. 오르락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구간이라

사실 비 때문에 체온이 저하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다. 정작 문제는 발밑이 너무 미끄럽다는 데 있었다. 날카로운 바위 구간을 지날 때엔 차라리 탈이 없었는데 너털지대나 이끼 덮인 암반을 지나야 할 땐 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웠다. 트레킹이 거의 다 끝나간다는 안도감에 집중력이 떨어진 데다 종일 그치지 않는 비까지 더해지면서 아찔한 순간을 여러 번 겪었다. 두 번 정도는 아예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기도 했다. 손과 발에 난 작은 상처 외에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게 천운처럼 느껴졌다. 마리 모레티(Marie Moretti)를 만난 건 ‘포플러의 숲’이라는 근사한 뜻을 지닌 오르투디 우 피오부 대피소에 도착해서였다. 그녀는 지난 34년 동안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대피소에 와서 살며 트레커들을 위한 잠자리와 음식을 준비해온 대피소지기이다. “집은 아스쿠 스타그누 대피소 근처에 있는 아스코 계곡에 있어요. 10월부터 4월까지 GR 20 입산이 불가능할 때엔 아이들을 상대로 숲 가이드 역할을 하죠. 코르시카 산악이 좋아서 1년 내내 이렇게 산에서 살아요. 전화도 안 터지는 곳이지만 사시사철 행복하니 저처럼 복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때마침 비가 그치고 구름도 지나가면서 대피소 주변에 저녁 해가 드리워졌다. 텐트 속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트레커들은 하나 둘 밖으로 나와 붉은 석양을 마음에 담았다. 평생 산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마리의 미소도 그윽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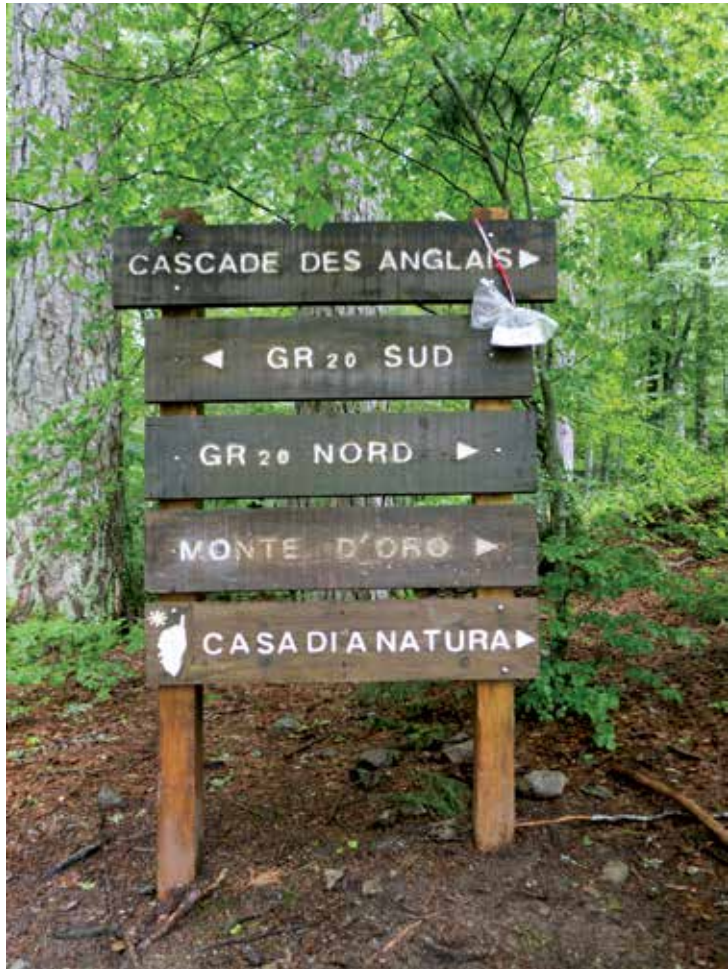
Day 13 : 6 hours
오르투디 우피오부 대피소
칼렌자나 대피소

마지막 날! GR 20 트레일은 대개 16일 일정으로 많이들 걷는데 조금 서두르다 보니 13일 만에 최종 목적지 칼렌자나를 향하고 있었다. 코르시카어로 칼린자나(Calinzana), 프랑스어로는 칼렌자나(Calenzana)라 불리는, 콩카와 같은 또 하나의 GR 20의 출발지이자 종착점이다. GR 20 트레일을 품은 이 섬을 이곳 사람들은 ‘코르시카’라고 부르지만 프랑스인들은 ‘콕스(Corse)’라 칭한다. 한편 코르시카 사람들도 보통 ‘아작시오(Ajaccio)’라 부르는 섬의 주도는 프랑스어를 따른 것으로, 코르시카어로는 ‘아이아씨우(Aiacciu)’다. 섬이나 도시 이름 외에 GR 20 대피소나 산봉우리, 능선, 고개 이름 등에도 코르시카어와 프랑스어가 섞여 있다. ‘고개’를 뜻하는 프랑스어 ‘콜(Col)’과 코르시카어

‘보카(Bocca)’가 한 지도 안에 공존한다. 프랑스이되 프랑스가 아닌 코르시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1999년 이래 이 트레일과 함께 하며 ‘GR 20의 집(Maison du GR 20)’ 책임자로 있는 단 빈첸텔리(Dan Vincentelli)는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한마디로 정리해줬다. “프랑스에 GR 코스만 수십 곳이 있고 유럽 전역의 도보 코스는 수백 곳이지. 그 중에서 강도가 세다는 게 피레네 산맥을 횡단하는 GR10과 이탈리아의 돌로미티 지역이에요. 그런데 GR 20 길의 험한 정도는 GR10의 2배 정도이고, 아름다움의 정도는 또 그 두 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GR 20 트레일을 다른 트레일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험하다고 해서 다 매력적인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GR 20에는 본토 프랑스와는 또 다른 코르시카만의 매력이 있다는 거죠. 코르시카 사람들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 그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자연 안으로 들어가 함께

살고 또 가꾸는 코르시카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누군가는 삶의 무력감에서 탈출하기 위해, 또 누군가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을 하루라도 더 갖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는 해변의 평화로운 모습 뒤에 숨어 있을 것만 같은 코르시카의 다른 매력을 찾아 GR 20에 접어든다. 이 곳을 찾은 이유가 다르듯 GR 20을 걸으며 받은 느낌도 저마다 다르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또 다른 계절에 이 길을 걷는다면 역시 처음과는 다른 감상을 품게 될 것이다. 앞서 두 번에 걸쳐 두 달 가까이 코르시카를 여행했지만 GR 20 종주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시 이 길을 걷게 될까 싶을 만큼 험한 여정이었다. GR 20은 강인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머지않은 언젠가 칼렌자나에서 콩카로, 즉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시 이 길을 걷고 있는 내모습이 데자뷰처럼 다가온다는 것이다. GR 20 트레일은 중독성이 강한 생명의 물, 오드비를 닮았다. **H**





GR 20 트레킹 전 준비할 것들



숙소 예약

GR 트레킹 코스 내에는 대피소와 지트 데탐, 그리고 호텔이 있다. 대피소의 경우 비수기라면 현장에서 직접 숙박비를 치를 수 있지만 7~8월 성수기에는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해야 한다. 대피소에서는 내부 도미토리를 이용하거나 텐트를 대어해 캠핑장에서 잘 수 있으며, 캠핑장에서 본인 텐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대피소예약 사이트 (www.parc-corse.org)는 프랑스어 서비스만 제공한다. 지트 데탐은 일종의 민박으로 식사도 제공된다. GR 20 트레킹 구간 내 호텔은 비자보나(Vizzavona)와 버지오 고개(Col de Vergio)에만 있다. 대피소나 지트 데탐, 호텔 이외 장소에서 비부락은 금지돼 있다. 식사는 대피소나 지트 데탐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직접 해 먹을 수도 있고, 완성된 요리를 사 먹을 수도 있다. 파스타면과 소스는 5~10유로, 완성된 요리는 15~20유로 정도.

- 대피소: 도미토리 11유로, 텐트 대어 10~17유로, 캠핑장 이용 10~11유로
- 지트 데탐: 저녁과 아침을 포함할 경우 35~40유로, 숙박만 할 경우 15~20유로
- 호텔: 80~100유로



배낭: 덥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배낭은 등판과 허리 벨트 부분이 시원한 메쉬 소재로 된 제품이 좋다. 또 어깨에 닿는 무게를 저절히 분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배낭이어야 걷는 동안 후회하지 않는다. 갑자기 비나 우박이 내리면 바로 꺼내서 덮을 수 있도록 배낭 하단에 방수천이 내장되어 있는 게 편리하고, 배낭 상단 부분의 수납공간도 걷는 동안 의외로 자주 사용하게 된다.



태양광 충전기와 헤드랜턴: 지트 데탐이나 호텔은 팬츠지만 대피소에는 전기 및 조명 시설이 거의 없다.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서는 태양광 충전기를 휴대해야 하고, 해가 진 뒤에 화장실에 갈 때나 세면을 할 때는 헤드랜턴이 무조건 필요하다.



챙 넓은 모자와 선크림: 지중해의 햇볕은 매우 강하다. 특히 해발고도 2,000미터 대의 고산에서라면 더더욱.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모자는 바람이 잘 통하고 빨리 건조되는 소재로 고르고, 향균 방취 기능이 있는 제품이 좋다. 턱 끈이 달려 있는 모자가 좋다.



의복: 보름 동안 걸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옷은 짐이 된다. 셔츠든 바지든 무조건 부피가 작고 가벼운 동시에 수납공간을 갖추는 등한 벌이라도 여러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품이 좋다. 통기성이 좋고 빨리 건조되는 재질이어야 하며, 지중해 고산 지대라 햇빛이 강하고 관목 지대를 많이 지나기 때문에 강한 자외선을 막아 줄 수 있는 UV프로텍션 기능이나 해충 방지 기능이 있는 옷이 유용하다. 상의는 방풍 재킷, 긴팔 셔츠, 반팔 셔츠, 그리고 밤중이나 트레킹 시 기상 변화를 대비해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난 플리스 재킷 각 1개로 최소화 하고, 하의도 긴바지와 반바지 각 1개씩만 준비해서 숙소에서 매일 빨아입는 게 트레킹 시 체력 소모를 줄이는 방법이다.



등산화 : 트레킹화보다는 발목을 잡아주는 미드컷 등산화가 필요하다. 미끄러운 구간이 많으므로 접지력이 뛰어나고 방수 기능이 훌륭한 것으로 준비해야 한다.



스틱: 험악한 GR 20 트레킹에는 초경량 초강도 자재를 사용한 스틱을 준비해야 한다. GR 20 트레일에서 스틱은 어떤 길동무보다 의지가 되는 장비다.



침낭: 대피소 안에서 자든 텐트를 빌려서 자든 침낭은 필수다. 매트리스는 제공된다. 여름이라도 고산 지대라 밤이면 춥기 때문에 3계절용 침낭이 좋다. 트레킹 내내 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부피가 작고 가벼운 침낭이어야 한다.

그 많던 ‘싸나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요새는 왜 사나이를 만나기가 힘들지.
싱싱하게 몸부림치는
가물치처럼 온몸을 던져오는
거대한 파도를...

몰래 숨어 해치우는
누우렁고 나약한 잡것들뿐
눈에 떨까, 어슬렁거리는 초라한 잡종들뿐
눈부신 야생마는 만나기가 어렵지.

여권 운동가들이 저지른 일 중에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세상에서
멋진 잡놈들을 추방해 버린 것은 아닐까.
핑계대기 쉬운 말로 산업사회 탓인가.
그들의 빛나는 이빨을 뽑아내고
그들의 거친 머리칼을 쏘아내고
그들의 발에 제지의 쇠고리를
채워버린 것은 누구일까.

그건 너무 슬픈 일이야.
여자들은 누구나 마음 속 깊이
야성의 사나이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걸.
갈증처럼 바람둥이에 휘말려
한평 생을 던져버리고 싶은 걸.
...

그런데 어찌 된 일이야.
요새는
비겁하게 치마 속으로 손을 들이미는
때 묻고 약아빠진 줄개들은 많은데
불꽃을 찾아온 사막을 헤매이며
검은 눈썹을 태우는
진짜 멋지고 당당한 잡놈은
멸종 위기네.

문정희, 〈다시 남자를 위하여〉 부분

글: 김화성 (동아일보 스포츠 전문 기자)

쫄쫄!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남자인
내가 봐도 요즘 사내들이란 게 어찌 그리
하나같이 약해 빠졌는지. 목소리가 좀
기름 바른 것처럼 부드럽고 느끼하면
어떤가? 몸짓이야는 실난실 고분고분하면
또 어떤가? 시대의 흐름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는가? 문제는 좀스럽고 찜찜해졌다는
것이다. 찌질한 데다 웅줄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사막의 늑대 같은 ‘당당한 잡놈’
은 일찍이 사라졌다. 왜 ‘약아빠진 줄개’
들만 남아 여자들 치맛 자락잡고 줄줄
따라다니는지. 요즘 백화점에 가면 어디나
‘남자보관소’가 있다. 이른바 ‘Man's
Lounge’다. 쇼핑 나온 아내들이 청얼대는
남편들을 잠시 맡겨놓는 간이보관소 같은
곳이다. 남편들은 암전히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프로야구 중계방송
보느라 뉘이 빠져 있다. 그 옆 유모차엔
아기가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곤하게
나비잠을 자고 있다.

남자들은 저마다 100만 년 전 돌도끼 들고
공룡과 맞서 싸우던 DNA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사내들은 오직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한다. ‘물빵 줄기세포’
가 프로그램화 돼 있다. 집중하는 데
방해하면 화를 벌컥 낸다.

그렇다. 남자는 온 몸과 마음을 사냥감
쫓는 데만 집중한다. 한번 놓치고 나면
다음에 또 언제 그런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른다. 못 잡으면 굶어 죽는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 사냥할 땐 말도 필요 없다.
침묵이 미덕이다. 떠들면 먹잇감이
도망간다. 그래서 남자들은 하루에 2
천~5천 단어 밖에 쓰지 않는다. 하지만
여자들은 하루 6천~8천 단어를 쓴다.

도대체 ‘사내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남자다움에 관하여»라는 책을 쓴
미국 하버드대 하비 맨스필드 교수는
말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의 시류에
휩쓸려가지 않으며, 누가 뭐래도 강단
있게 반대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
이라고. 신념이 있고,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임무에 대해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 따위는 전혀 계산하지 않는 남자라는
것이다. 그는 남자다움에도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단계는 부당한 것에 대해 가차
없이 ‘NO’라고 말하는 저항 정신이다.
그것이 아무리 자신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준다 해도 ‘아니요’라고 머리를
흔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의자를 박차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무언가 행동이 필요할 때,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실패를
각오하고 벌떡 일어나 행동하는 남자다.
세 번째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믿고 있는 사실이나 상식들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과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사나이
중의 사나이다.”

그렇다. 사내들이란 모름지기 ‘독립만세’
를 부르며 살아야 한다. 말을 타고
만주 벌판을 달리는 대륙성이 있어야
한다. 울끈불끈 근육질 체력은 더 이상
남자다움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성격이
늑잡하고, 시원시원 너그러워야 한다.
석침대몽(石枕大夢)! ‘돌베개를 베고서도
세상을 뒤엎을 큰 꿈을 꾸어야’ 한다.

바야흐로 ‘여자들 세상’이다. 여성들이
펼 펼 날고 있다. 전국 유명 관광지를
가봐라. 어느 곳이든 팔 할이 여자다.
남자는 20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다.
아름답고 멋진 경치의 명승지마다
여자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친다. 맛있는
음식점에도 “까르르, 까르르” 여자들
웃음소리가 왁자하다. 도대체 남자들은
뭐하고 있을까. 그거야 안 봐도 비디오다.
술 먹고 있거나, 그따분한 정치나 축구
이야기 하며 핏대를 올리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여성 시대다. 한국이라고
다를까. 한국은 더 빠르고 급격하게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 우선 그 질기고
질겼던 ‘남아선호사상’이 어느 날 눈 깜빡
할 사이에 끝나버렸다. 2010년 설문조사
결과 ‘딸 낳고 싶다(40퍼센트)’가 ‘아들
낳고 싶다(30퍼센트)’를 간단하게
눌러버렸다. 나머지 30퍼센트는
‘아들이든 딸이든 아무래도 좋다’였다.
2011년 한국 대학 등록생 중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제 남자라는 말은 하나의 족쇄가
돼간다. 심하게 말하면 ‘미련통이, 밥통’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여성들이
부드럽다거나, 남을 배려한다거나,
동정심을 남자보다 더 가졌다거나 하는
생각도 갈수록 희미해진다. ‘착한 여자’
보다는 ‘나쁜 기집애, 악녀, 거친 여자’
들이 코드가 되는 세상이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자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영역에 물밀듯이 밀물져 들어오고
있다. 남성들은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하던 직업에 발을 하나 ‘담글까 말까’
주뻗거리며 서성댄다. ‘남자다움’의
대가(大家) 하비 맨스필드 교수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을까.
“지난 50년간 가장 남자다운 리더는 영국
철의 수상 마거릿 대처였다. 시종일관
자신을 밀어붙인 보기 드문 인물이다.
그 어떤 남성 리더도 대처를 못 따라간다.
요즘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못 남성을
압도하고 있다.”

갈수록 ‘뻗뻗한 남자의 자리’는 생각이
유연한 여자가 차지할 것이다. 여자는
스스로 고이지 않으면 영영 멈출 수 없는
물이다. 흘러 다닐 수밖에 없는 바람이다.
남자는 하나의 조국과 하나의 아버지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붙박일 수밖에 없는
‘영원한 허영의 철부지’다. 그 잘난 ‘밥벌이
보급 투쟁’도 여성들이 날이 갈수록 더
잘한다. 이제 남자들에게 ‘먹고사니즘’은
‘귀차니즘’일 뿐이다. 늙을수록 남자들은
아내에게 매달린다. 거꾸로 여자들은 나이
먹을수록 자유롭다.
‘남자가 혼자되면 적막강산이지만, 여자가
혼자되면 만고강산 열씨구 지화자 좋~다’
이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아내들의 ‘남편
팝니다’ 글이 올라온다.

남편 팝니다

한때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특하면 껍 톨라지고, 빠치고, 짹짹
울기까지 하는 성격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처음 그만 특A급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속 빈 강정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천하의 좁쟁이인 데다가
어찌나 잔소리가 심한지 좁쌀영감 따로
없습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두
배입니다. 외관은 그런대로 아직은 쓸만
합니다. 사용설명서는 어차피 읽어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AS 안 됩니다. 반품
또한 절대 안 됩니다. 덤으로 시어머니도
드리겠습니다.

PS.
연봉은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 연료인 알코올 구입비가
연 2천만 원 정도 되며, 부가 사용료인
레저비가 360만 원입니다.

오늘날 사내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왜 고행석의 만화 주인공
‘구영탄’ 눈동자처럼 하나같이 눈들이
몽롱하게 풀렸을까. 왜 이현세의 만화
주인공 ‘까치’처럼 눈 번득이는 반항아가
보이지 않을까. 물은 석자만 흘러도
스스로를 맑게 한다는데, 요즘 남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 철부지처럼 먼 옛날 원시
사냥만을 그리워한다. 일단 몸을 쓰는 걸
싫어한다. 그렇다고 머리를 쓰지도 않는다.
지능지수(IQ)는 커녕 ‘잔머리
지수(IQ)’만 높아간다. 도대체 그 많던 ‘
싸나이’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문정희 시인의 말처럼 여권운동가들이
억센 사내 들을 세상 밖 어딘가로
추방해버린 걸까. 사나이들의 빛나는
이빨을 뽑아내고, 그들의 거친
머리칼을 쉼아내고, 그들의 발에 쇠고리를
채웠을까.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폐 인간’이
된 것뿐이다. 누구 하나 그에게 뭐라 한
적이 없는데도, 팬스레 홀로 동굴 속에
웅크리고 앉아 끼이끼이 울고 있을
뿐이다. 왜 그럴까. 왜 여자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수다 떨며, 깔깔거리며, 찡고,
까불며, 때론 야수처럼 으르렁대고, 킁킁
짓어대고, 울부짖으며, 살지 못할까.
어쩌면 황순원의 단편소설 《수컷 퇴화설》
에 답이 있는지도 모른다. 소설 속의 남자
주인공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한 끝에
나름대로 수컷들이 퇴화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추출해낸다. 그 답은
‘외로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천 배 만 배 ‘죽음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을 탄다는 것이다.
“남자들은 왜 술 담배를 즐겨 할까?
그것은 결국 남자가 여자보다 외롭기
때문이 아닐까? 남자 수도사보다 수녀의
수가 많은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일까?
여자는 혼자서 살 수 있을 만큼 외로움을
덜 타기 때문은 아닐까? 양계장의 수천
마리 암탉에 한 마리 수탉, 얼마나
외로울까? 어떤 짐승들은 암컷이 죽으면
수컷이 먹이도 안 먹고 슬피 울다
따라 죽는다는데 그것도 본능적이긴
하지만, 죽음보다 무서운 외로움 때문이
아닐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
것도 결국은 외로움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왜 조물주는
남자가 여자보다 외로움을 더 타게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다. 남자들은 이제 액세서리만
남았다. 그걸 서양학자들은 ‘맨세서리
(mancessory)’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이제 사내다운 사내는 TV 속 모델로
혹은 서부영화 총잡이로만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이 세상엔
‘조심한 수컷들’만 가득하다는 말이다.
낙장불입.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돼지 잔등에 말 안장
없는다고 경마가 되는가. 불독에 립스틱
발라봤자 불독일 뿐이다. 남자들이여!
이제 어쩔 것인가!
쫄쫄, 도대체 당신이 웬 걱정이냐고? 지금
같이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재미있는데 웬
앙앙불락이냐고? 오호! 그렇구나, 그걸
여태 모르고 살아왔다니!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멀고, 오늘밤은 어디서 쉬어 갈
거나. 부디 ‘출처 불분명한 밥’은 먹지
않아야 될 텐데…。 **H**

몸속에 꿈틀대던 늑대의 유전자
세상과 불화하며 광목 찢듯 부우욱
하늘 찢으며 서슬 푸른 울음 울고 싶었다
곧게 꼬리 세우고 송곳니 번뜩이며
울타리 침범하는 무리 기함하게 하고 싶었다
하늘이 내린 본성대로 통 크게 울며
생의 별관 기침없이 내달리고 싶었다
배고파 달이나 뜯는 밤이 울지라도
출처 불분명한 밥은 먹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불온하고 궁핍한 시간을
나는 끝내 이기지 못하였다
목에는 제도의 줄이 채워져 있었고
줄이 허락하는 생활의 마당 안에서
정해진 일과의 트랙 돌고 있었다
체제의 수술대에 눕혀져 수술당한 성대로
저 홀로 고아를 살며 자주 꼬리
흔들고 있었다 머리 조아리는 날 늘어갈수록
적, 킁, 킁 나오지 않는 억지 울음
스스로를 향해 짓고 있었다

이재무, <울음이 없는 개> 전문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여름 호를 읽고 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독자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매호 다섯 분께 프로스펙스, 몽벨, 잭울프스킨,
스케처스 등 LS네트웍스의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의견 보내실 곳
당사 홈페이지 ‘사이버홍보실-보보담’
혹은 bobodam@lsnetworks.com

당부
독자 의견에 당첨되실 수 있으니, 의견을 보내실
때는 선물 발송에 필요한 ‘성함, 연락처, 주소’도
꼭 함께 적어 주세요.

지난 호에 대한 독자 의견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하고 발굴한
주옥같은 기사들 보면서 정말 많이 칭찬해주고
실습니다. 활기찬 신문시장 모습도 반가웠고,
화보는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야쿠시마 중단
트레킹과 느리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시라코야마’에 대한 정보는 일본에 가게 되면
꼭 활용해 보려 합니다.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승남(인천시 부평구)

한국 방문길에 호텔에서 처음 <보보담>을
만났습니다. 한 권 가득 유익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
참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모르고 있던 인천을
읽어가며 내나라가 더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고구려 때 미추홀이라 불렀다는, 아름다운 인천의
옛 이름이 정겹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르고
있던 인천 이야기들은 기억나는 대로 다 해외
교포들에게 전할게요, 정말 사랑스러운 책입니다.
한은주(서울시 용산구)

안녕하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책 읽는 것에 답을
쌍게 되고 언제부턴가 정말 큰마음을 먹어야 책 한
권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봄 호 <보보담>은 대하는
순간 책 속에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네요. 신기한
일입니다. 특히 한 지역에 집중해
그곳에 어울려 사는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보여주는 것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천에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손에 꼽지만
책에 실린 인천은 마치 제가 오래 전부터
살던 곳 같고, 그 이들의 살아온 내력을 보며 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기복(충북 청원군)

한 지역을 좀 더 오래 걷고, 더 오래 생각하고
싶다는 에디터스 노트의 문장처럼 더 생생해진
이야기들에 눈을 빼앗겨 책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면 과거 걸어온 길을 되살펴
보라는 말이 있지요.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보여주고 또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기사들
참 좋았습니다.
이춘임(경기도 포천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보보담>을 처음 접했고요. 기업에서
내는 잡지가 자사 광고도 없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귀사의 분위기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내용은 뒷전이고 홍보나 제품 광고에 바쁜
잡지들을 여럿 접한 터라 더 그렇습니다. 독자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꿰뚫고 그 방향으로 먼저 받을
내디던 <보보담>에 박수를 보냅니다.
성태훈(대구시 남구 대명동)



독자 의견에 당첨되신 다섯 분께는
LS네트웍스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의
배낭을 선물로 드립니다.



DUBAKOO 바이시클 갤러리는
LS네트웍스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전시관으로, 자전거의
원형인 '드라이지네', 최초의 페달
자전거인 '미쇼 벨로시페드' 등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자전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자전거 유물들을 매 시즌 20대씩
선별해 일반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관람 안내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LS용산타워 1-2층
교통: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2번 출구와 연결
시간: 연중 무휴
문의: 02-799-7169



W가 130g으로 더 가벼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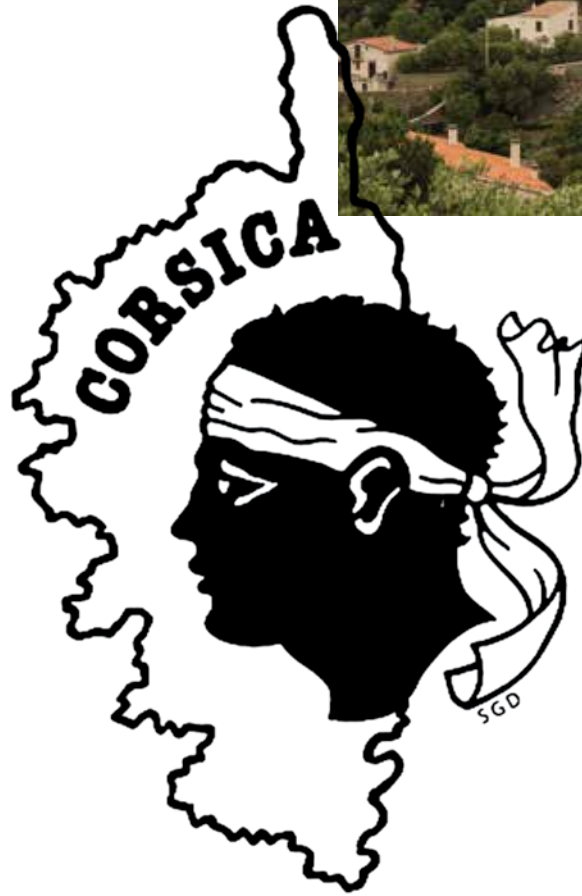
130g의 초경량, 쿨 디자인

W 130



W LITE PLUS 1
(130g, 230mm 기준)





LS Networks

140-70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LS Yongsan Tower, 9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Korea #140-720